

카자흐스탄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알마티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2
한국과의 주요이슈 /12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17
주요 산업 동향 /25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43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43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46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49
대한수입규제동향 /50
관세제도 /50
주요인증제도 /51
지적재산권 /53
통관운송 /5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57
- 외국기업 투자동향 /61
- 우리기업 투자동향 /65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9
- 진출형태별 절차 /81
- 투자입지여건 /8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95
- 조세제도 /10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07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114
- 물가정보 /117
- 바이어발굴 /118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119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123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24
- 이주정착 가이드 /128
- 출장가이드 /13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56
- 유관기관 웹사이트 /15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위치	아시아 대륙 중부
면적	272만 Km ²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
기후	○ 대륙성 기후 - 1월 평균기온: 북부 -18℃, 남부 -3℃ - 7월 평균기온: 북부 19℃, 남부 28~30℃ - 평균 강수량: 250mm(남부 약 200mm)
수도	아스타나(Astan) 인구: 63만 명 1997.12월 이전 수도: 알마티(Almaty) 인구136만 명
인구	1,577.6만 명(2009. 4. 기준)
주요도시	카라간다(Karaganda), 칭켄트(Chimkent), 크즐오르다(Kzylorda), 아티라우(Atyrau), 빠블로다르(Pavlodar)
인종	카자흐인(57.6%, 872만), 러시아인(27.2%, 407만), 우크라이나인(3.1%, 47만), 우즈베크인(2.7%, 40만), 독일인(1.6%, 24만), 위구르인(1.5%, 22만), 따타르인(1.6%, 23만), 등 다민족국가, 한민족(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0.7%(8번째)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는 공용어)
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국교는 없음)
독립일	1991.12.16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국가원수	○ 대통령: Nursultan NAZARBAEV ○ 총리: Karim Masimov
입법부	○ 상하 양원제(상원: 6년, 하원: 5년) ○ 상원의장: Kassym-Zhomart Tokayev ○ 하원의장: Oral Mukhamedzhanov
가입현황	IMF, IBRD, OSCE 등 59개 국제기구 회원국, 2010년 WTO 가입 예정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정부 및 대통령 비서실

나. 경제지표

GDP	1,320억 달러(2008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3.2%(200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8,400달러(2008년 기준)
실업률	7.0%(2009년 상반기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물가상승률	7.8%(2009년 9월 평균)
화폐단위	Tenge(텡게)
환율	1달러=150.95텡게(2009년 9월 평균)
외채	1,066억 달러(2009년 9월 기준)
외환보유고	425억 달러(2009년 상반기 기준, 국가기금 포함)
주요산업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철, 비철금속 등 채굴 및 가공
주요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구리, 아연, 망간, 납, 알루미늄, 크롬, 니켈 등
교역규모 (2009년 상반기 기준)	○ 교역량: 302.4억 달러 ○ 수출: 171.7억 달러 ○ 수입: 131.7억 달러 ○ 무역수지: 40.0억 달러
교역품	○ 수출: 광물 제품, 비금속, 화학제품, 식품 및 관련 재료, 기계 ○ 수입: 기계 및 장비류, 광물 제품, 비금속, 화학제품, 식품 및 관련 재료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WTA

다. 한-카 관계

체결 협정	○ 1992. 7 무역협정 ○ 1995. 5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 1996. 3 투자보장협정 ○ 1999. 4 이중과세방지협정 ○ 2003.11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 카자흐 측 발효절차 진행중 ○ 2004. 9 원자력 협력협정 - 카자흐 측 발효절차 진행 중 ○ 2005.4 서울에서 개최된 2차 자원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라늄 공동 개발 사업을 위한 합작기업(J/V)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하고, 발전용 연료(석탄 및 가스)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전력 분야 협력을 강화 키로 합의 ○ 2005.10 카자흐스탄 WTO가입 관련 양자협상 타결 ○ 2006.9 해외봉사단 파견협정 ○ 2007.4 항공협정체결 - 인천-알마티간 정기전세기 노선(아시아나항공 및 아스타나항공 각 1회)이 주2회 운항하고 있으며, 항공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기 노선으로 승격 ○ 2007.6 외교관, 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 2008.5 한승수 총리 에너지 자원외교 방카: 에너지분야, 건설분야, 도시계획수립 관련, 섬유산업분 상호협력 MOU체결 ○ 2009.5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 에너지, IT, 수송 등 3개 벨트중심으로 양국간 협력강화 목적
한-카 교역 규모	○ 2008년 기준 - 수출: USD 347,736천 달러(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 수입: USD 350,457천 달러(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 - 무역수지: -2,721천 달러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가전, 휴대폰, 산업기계, 플라스틱, 철강 ○ 수입 - 합금철, 금, 열연강판, 은, 아연괴 및 스크랩, 냉연 강판, 귀금속 장식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면사, 백금
투자 교류	○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카 투자교류통계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규모 · 2002년: 3건, 50만 달러 · 2003년: 6건, 1,382만 달러 · 2004년: 24건, 2,252만 달러 · 2005년: 32건, 2,957만 달러 · 2006년: 61건, 26,437만 달러 · 2007년: 127건, 32,107만 달러 · 2008년: 57건, 20,665만 달러 · 2009년(1-10월): 47건, 10,138만 달러 - 투자누계금액: 408건, 10억 1,508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교 민	총 교민 수 약 3,000명(2008년 기준,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제공)

자료: 한국관세청,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개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 붕괴과정에서 카자흐스탄 독립을 주도해 같은 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연방

소속 1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구소련을 대신할 독립국가연합(CIS) 창설을 주도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현대 정치사의 주된 흐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통치 기반 강화와 정권의 권위주의 강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 10월, 대통령 임기 연장 및 대통령 피선연령 제한 규정 폐지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이 채택된 이후 1999년 1월에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는 79%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였고, 1999년 9월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 2007년 5월 개정된 헌법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종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2007년 5월 개헌을 시도해 대통령의 종임 제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의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형적인 개발중심형 리더십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에게는 계몽군주로 평가받고 있어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서방으로부터 민주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나 내부적으로 마땅한 후계구도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요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 상태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오타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의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오타당의 당원수가 100만 명(총인구 1,55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정치적인 기반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치사회동향을 종합하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경제부처 중심의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우선 전략형 성장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합당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에너지자원 수출에 기반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재선과 정국구도

1) 대통령 재선 배경

2005년 12월 대선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91%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된 것은 지방 정부의 행정력 동원 등 관권 개입 및 집권세력의 언론매체 장악 등 특수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9%를 상회하는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온데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의 부상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가 국민적 자신감을 고취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색깔혁명”을 경험한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및 키르기즈스탄에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불안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카자흐스탄은 급진적인 민주화를 통한 혼란보다는 현재와 같은 다소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유지, 정치 안정을 이루어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또한 야권이 내부 분열로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대중적 지지를 받는 구심력있는 야권 인사가 부재한 카자흐스탄의 정치상황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재선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일면에는 음모설, 친인척들의 정치참여 등에 의한 부정부패의 단면 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민주화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민주화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자치제를 강화해 가는 한편 2009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장국 수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2007년 5월 헌법 개정 당시 총리 선출권을 하원에 이양하는 등 각종 제도와 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므로 점진적이거나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도 민주 정권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을 겪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경험을 통해 급격한 민주화보다는 각국의 정치역사와 상황을 감안한 점진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국구도

2004년 9월 및 2005년 8월 실시된 상.하원 선거를 통해 의회를 완전 장악하고 주요 요직에 측근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친정체제를 강화해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국 주도능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개정된 헌법조항에 따라 2007년 8월에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개헌조항에는 하원의원석 기존 정원 77석에서 107석으로 확대시킨 것이 골자인데, 98석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9석은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00개 민족대표 360명으로 구성된 민족회의에서 선출되는 의원이다.

2007년 8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결과는 오타당이 총 유효투표수 5,942,625 표의 88.41%인 5,247,720 표를 획득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원 선거 시 의회 진출에 실패(상.하원 의석 중 1석 확보)함으로써 정국운영 및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완전 배제된 야권의 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모든 제정치 세력의 참여가 보장된 “정치개혁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야권의 정국운영 참여를 보장하였으나, 야권은 동 위원회 참여를 거부, 향후 추진될 정치개혁 참여도 매우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 친여 성향의 야당이 집권당인 오타당에 합병이 확대되면서, 야당의 정치 참여는 보다 악화되고 있다.

3) 최근 정치 개각 동향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전망기간(2009~2010) 동안 권력 장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정치엘리트 사이의 긴장이 팽배해지고 경제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보다 노련한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내각을 자신의 충복들로 채우려는 욕구를 나타냈고, 주요 언론매체도 어려운 경제상황 보도에 따른 사회불안이 정권 수뇌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언론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2년 재선거에서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거나 적어도 후계자의 승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방법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집회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각사퇴와 의회해산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고문인 Mr. Yertysbayev는 2012년까지 실시하지 않기로 되어있는 총선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국은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화되면서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인데, 이는 지난 10여년 이상 지속된 고속 경제성장기에는 국민의 가계소득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이었으나,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그간 원유 수입으로 확보된 기금(외환 보유고 190억불 및 석유 안정 국가 기금 140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을 산업 다변화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자본 시장 육성을 통해 카자흐스탄 기업의 외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받아 왔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부의 행정력 강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산업다변화로 세계 50대 경쟁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 하는 단계로 본격 진입하려는 의도가 이번 총리 경질의 기본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 주목 받았던 정치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통령의 은행권 조직범죄 조사촉구이고 다른 하나는 Aliyev 사건 연루 인물 소송이 비밀리에 종결된 것이다. 2009년 2월 국유화된 2009년 2월 국유화된 카자흐스탄 제 1위 은행 BTA의 전 은행총장인 Mukhtar Ablyazov와 부행장이었던 Zhaksylyk Zharimbetov, 국유화 직후 부행장으로 임명되었던 Roman Solodchenko의 돈세탁 및 은행자금횡령 사건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은행 국유화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로 단언하였다. Aliyev 사건 연루 인물 소송 사건은 2007년 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사위 Rakhat Aliyev의 반정부(쿠데타) 기도 및 유괴, 사기 혐의 사건에 연루된 Serik Burkitbayev(전 대통령 고문 및 교통통신장관)의 소송건이 군법정에서 비밀리에 종결되면서 기존 형보다 감형된 6년 형으로 판정되었다.

2009년 4월, 법치환경 개선에 따른 정부 인사이동도 이루어졌는데, 법치권에 해당되는 내무부장관,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법원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법치절대권력의 결점을 해소코자하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로 보인다는 긍정적 외부평가가 있으나 일부에선 금번 조치가 기존 정부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부정적 해석을 내놓았다.

신임된 내무부장관은 Serik Baymaganbetov로, Majilis(하원위원회) 위원장이며 내무부 차관직을 겸하고 있었다. 한편 금번조치로 내무부장관에서 퇴임된 Baurzhan Mukhamedzhanov는 상원의원으로 임명되었다. 신임 검찰총장은 Kayrat Mami(전 대법원장)로 임명되었으며 검찰총장직에서 퇴임된 Rashid Tusupbekov는 신임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금번에 인사이동된 Baurzhan Mukhamedzhanov(전 내무부장관), Rashid Tusupbekov(전 검찰총장), Zagipa Baliyeva(전 법무장관), Musbek Alimbekov(전 대법원장)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오랜 총복 정부인사들로, 대통령 전 사위인 Rakhat Aliyev 사건(야당 총수 Altynbek Sarsenbayev 살인사건 연루)에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 국무총리 및 부총리, 내각부처장관 및 주요인사

- 국무총리 및 부총리
 - Prime minister : Karim Masimov
 - First deputyprime minister : Umirzak Shukeev
 - Deputy prime minister : Yerbol Orynbayev, Serik Akhmetov

○ 내각부처장관 및 주요인사

기 관	성 명	직 위
중앙정부	Karim K. Massimov	총리
	Yerbo Orynbayev, Serik Akhmetov	부총리
	Serik Baymaganbetov	내무부장관
	Zhaksylyk Doskaliyev	보건의료부장관
	Asset Isekeshev	산업무역부장관
	Kanat Suadbyev	외교부장관
	Murhtar Kul-Mukhammed	문화정보부장관
	Zhanseit tuymbayev	교육과학부장관
	Nurgali Ashimov	환경보호부장관
	Akilbek Kuryshbayev	농업부장관
	Temirhan Dosmukhanbetov	관광체육부장관
	Bolat Shamishev	재무부장관
	Bakhyt Sultanov	경제예산부장관
	Sauat Mynbayev	에너지자원부장관
	Vladimir Bozhko	비상사태대책부장관
	Gulshara Abdykalikova	노동사회부장관
	Rashid Tusupbekov	법무부장관
	Adilbek Dzhaksybekov	국방부
	Abelgazy Kysainov	교통정보부
국 회	Kasymzhomart Tokayev	국회상원의장
	Oral Mukhamedzhanov	국회하원의장

라. 민주화 전망

1) 민주화 과정

야권이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는 야권인사도 부재한 카자흐스탄 정치권의 특성상 앞으로 민주화 방향 및 속도는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의 민주화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민주화 의지는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었으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6년 3월 연두교서를 통해 1) 상·하원 의석수 확대를 통한 의회 위상 강화, 2) 의회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정부 구성, 3) 의회의 대정부 감독기능 강화 및 4)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을 사회불안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카자흐스탄은 2010 OSCE 의장국 수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법을 OSCE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는 바, 이는 카자흐스탄 민주화는 물론 중앙 아 전반에 절친 정치행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집권층 일각에서는 점진적 정

치 자유화를 통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민주화 욕구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 정국의 장기적 안정에 긴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 카자흐스탄이 점진적이거나 실질적인 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2007년 11월, 2008 OSCE 수임국이 스페인이 됨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이 2010 OSCE 의장국 수임이 결정되었다. 현재 이와 관련 진행중인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2010 OSCE 의장국으로서 신행정수도 아스타나를 OSCE 상징적 수도로 구축,
- ODIHR(Organization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의 모니터링을 통한 민주적 2008년 8월 총선 진행,
- 비 OSCE 멤버국가인 러시아와 미국간의 견제에 대한 카자흐스탄 중재적 입장 고취.

2010 OSCE 의장국으로서 ODIHR 기준에 맞는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의 민주화 과정을 서방국가들에게 날카롭게 평가받아야 하는 관제를 안고 있다. 한편 서방국가들의 반대 시각을 해소하고자 2007년 5월 헌법을 개정해 총리 선출권을 하원에 이양하였다.

한편, 하원인 Majilis는 2007년 8월 이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인 Nur Otan 당 1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2010년 OSCE(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국 수임조건인 하원 최소 2석 확보가 중시되는 상황이다. 2008년 11월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에서 7% 이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제 2당에게 의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자치제도 강화

2006년 10월 20일 49개 시군(카자흐스탄 전체 시군의 1/3에 해당)에서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방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단체장 선거는 주지사가 후보를 지명하고, 동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142명의 후보 (이중 여성 후보는 5명) 대부분은 현직 시장 또는 부시장, 공기업 사장들이었으며, 현 지방 단체장이 39개 선거구에서 재선되었다.

주마베코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단체장 선거 투표율을 99.1%였다고 밝히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21명의 지방단체장 대리인, 86명의 정당 관계자 및 232명의 언론인들이 선거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민주화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했으며, 금번 지방단체장 선거도 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방단체장 선거는 선거구 확대와 함께 직선제 요소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민주화의 일환으로 지방단체장 선거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01년 최초로 28개 지역 지방단체장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2005년 4개 지역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지방단체장은 총 16개 지방단체장 (시장 및 주지사 등)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지방정부별 단체장은 아래와 같다.

지방정부	Akhmetzhan S. Esimov	알마티시장
	Imangalli N. Tasmagambetov	아스타나시장
	Albert P. Rau	아크몰라주지사
	Eleusin N. Sagindikov	악투빈스크주지사
	Serik A. Umbetov	알마티주지사
	Bergei S. Ryskaliev	아티라주지사
	Berdibek M. Saparbayev	동카자흐스탄주지사
	Boribai B. Zheksemin	잠빌스크주지사
	Bakhytkhozha S. Izmutkambetov	서카자흐스탄주지사
	Akhmetov Serik	카라간다주지사
	Sergei V. Kulagin	코스타나이주지사
	Bolatbek B. Kuandikov	코즐오르다주지사
	Krymbek E. Kuserbayev	망기스타우주지사
	Bakhytzhan A. Sagintayev	파블로르다주지사
	Serik S. Bilyalov	북카자흐스탄 주지사
	Askar I. Myrzakhmetov	남카자흐스탄주지사

3) 국제 관계

미국, EU 등 서방국들은 일관성있는 민주화 과정을 강조하면서도 (i) 급격한 민주화가 국내 정세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ii) 카자흐 정치 불안이 중앙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져 대 테러 전략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고려하에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보다는 민주 화 과정이 후퇴하지 않는 한 “점진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2005년 3월 대중혁명 이후 민주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예는 시민사회의 경험이 부재하고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민주화가 정치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고 급격한 민주화보다는 각국의 정치역사와 상황을 감안한 점진적 민주화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마.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추진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은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과 국가경제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러시아·중국 및 투르크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이 국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자국산 원유·천연가스 및 광물 자원의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독립 이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CIS 집단안보조약’ 등 구 소련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협력기구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미국·중국 및 서방국과의 협력증진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주관하는 등 역내 안보협력 주도에도 적극적이다. 터키, 파키스탄, 이란 등 이슬람권 국가들과는 이슬람권 ‘경제협력기구’(ECO)를 통해 상호 경험 및 아프간 전후 체제 정착 등에 협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다자지역협력 참여기구 현황이다.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경제협력기구’(ECO), ‘상하이협력기구’(SCO), ‘집단안보조약기구’(SCTO), ‘Turk Cooperation’, ‘Caspian Cooperation’, ‘PFP/EAPC’, ‘EU와 동반자·협력협정’,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단일 경제공간’(SES) 등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2009년 WTO 가입을 목표로 WTO 기준에 부합되도록 경제개방 수준을 제고하면서 정부 개입을 줄여가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새로운 입법 조치들을 통해 WTO 가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바. 외교관계

카자흐스탄은 전반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국제기구 가입현황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 구 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에 110여 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UN, IMF, World Bank, EBRD, ADB, IFC, ISDB 등의 회원국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CIS 집단안보조약기구’,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경제협력기구 (ECO)’, ‘상하이 협력기구(SCO)’, ‘집단안보조약기구(SCTO)’, ‘Turk Cooperation’, ‘Caspian Cooperation’, ‘PFP/EAPC’, ‘EU와 동반자 협력협정’,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단일경제공간(SES)’ 등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카자흐스탄은 여러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양자 및 다자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2002. 6월 아시아 신뢰구축회의 즉, CICA 1차 정상회의를 주도하여 주변국들 및 중동지역 국가들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3. 9월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이 다민족 국가인 점에 착안하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촉구하고 각 종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종교인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9.11 테러 이후 대립의 양상이 고조되고 있던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중동 이슬람과 유대교간의 분쟁해결 등을 희망하는 세계 종교인들의 소망을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일조하였다.

2) 러시아와의 관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CIS 집단안보조약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 체제와 같은 러시아 주도 하의 종속관계에서 탈피, 중앙아시아 지역 중심국가로서 균형 있는 외교노선을 견지해 나가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 협력에 주안을 두고 실질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필요에 따라 군사, 안보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실리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2003. 6월 아스타나에서 카자흐 국방부 장관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의 군사기술 분야 협력의 확대,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집단 안보조약 틀 안에서 양국군이 상호 무기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군사, 안보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09년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OSCE 및 EurAsEC 정상회담에 참가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시 관세동맹이 '경제위기 후속조치(Post Crisis)'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2009년 중순경, 3국은 관세동맹 승인 및 WTO 공동가입 가능성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제네바로 협상담을 보낼 만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국 관세동맹은 확정되었으나 WTO 공동가입 여부는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3)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는 SCO(상하이협력기구)를 토대로 정치,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양국 간 선린우호협력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2003-08년간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하여 양국 간 전략적 협력체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고, 2003. 8월 SCO 틀 안에서 카자흐스탄, 중국 및 여타 회원국이 참가하는 "Interaction 2003"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SCO 회원국들 간의 지역안보 및 신뢰구축은 물론 향후 카자흐와 중국 간의 군사 분야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원부자재 가격 상승 현상은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신 다양한 수출경로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9년 4월 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중국방문중 에너지 부문 투자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투자를 위한 중국차관(100억달러)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Eximbank(수출입은행)을 통해 50달러가 지급될 것이며 나머지 50억 달러는 CNPC를 통해 KMG로 직접 투자될 것이다.

4)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는 9.11. 테러 이후 다국적 연합군의 대 아프간 작전을 지지하는 등 반테러 작전 등에서 미국 등에 협력하고 있다. 2003년 9월에 미국과 군사협력 5개년 계획에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양국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관계구축, 카자흐스탄 군의 장비 현대화, 카자흐스탄 직원 군인 양성, 테러집단 퇴치에 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 핵 연료 은행 설립을 제안한 상태이다.

5)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인접한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과는 이슬람 근본주의 및 극단주의 확산 방지와 마약밀매 단속에 공조해 나가면서 중앙아시아협력기구를 창구로 하여 단일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터키, 파키스탄, 이란 등과는 회교권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상호 교역 및 아프간 전후 체제 정착 등에 협조해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UN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6) 유럽 국가와의 관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시장경제국과는 양자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투자유치 및 카자흐스탄 원유·가스, 비철금속 등 자원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특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장국으로 07년 하반기에 선출되었고 이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프랑스는 카자흐스탄의 5대 교역대상국으로 러시아·이태리·스위스 및 중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이다.

2008년 2월에 프랑스의 필론 총리가 공식 방문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막시모프 총리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카자흐스탄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2007년 하반기 서구 석유메이저와의 카사 간 유전분쟁으로 악화된 외교통상관계를 회복하고, 2010년 OSCE 의장국이 되기 이전에 유럽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번 회담을 계기로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피력하며 협력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듯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교정책에서도 유럽국가와의 전략적 관계강화가 중시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카자흐스탄은 EU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EU국가로부터 첨단기술 이전, 행정경험습득 및 법률구조개선 등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U 측으로서도, 러시아에 가스공급의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카자흐스탄 가스의 중요성에 착안, 카스피해에 해저 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을 카자흐스탄 측에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등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 열린 EU와 흑해, 카스피해 연안국 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되었고 앞으로 EU와 카자흐스탄간 에너지 협력문제에는 계속해서 많은 진전이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친 유럽 분위기는 외교 이외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 중 소수 고소득층은 EU 브랜드 선호도가 더 한층 강화되고있고, 일반 국민도 카자흐스탄이 아시아 국가가 아닌 유럽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2007년부터는 카자흐스탄 축구협회는 아시안컵에서 탈퇴해 유럽컵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유럽화 프로그램(The Special Program Way to Europe) 추진은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 협력강화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EU(27개국)의 대 카자흐스탄 수출규모는 82억 2,911만 달러로 '07년 대비 0.8% 상승한것으로 집계되었다. 대 카자흐스탄 EU 수출국 중 독일이 대표적이며 EU 전체 수출의 15%가량이 독일 수출이다. 그러나 2008년 대 카자흐스탄 독일 수출은 -14.6%를 기록하였으며 기계(12.6%↓), 자동차(39.0%↓), 항공기(45.1%↓)가 주 요인이다.

한편, 2008년 EU의 교역국 대변화 추이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수출량이 2008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계류(광물 관련 및 의약제조용 기기)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대 카자흐스탄 수출규모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제약기기(증류수 제조기)라는 단일 품목의 대량 수출이라는 점을 미루어보아 의료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2008년 대 카자흐스탄 프랑스 수출량은 '07년 대비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 항공기 수출이 2억 9,500만달러(전년대비45%↑)에 이르고 그 밖에 의약품과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사. 민족·종교 분쟁 없는 안정적인 사회기반

카자흐스탄은 CIS 국가들 중에서 전쟁이나 종교 및 인종 간의 갈등을 겪지 않은 유일한 나라에 해당한다. 이슬람국가이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은 편이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력은 미약한 편이다. 카자흐스탄 집권세력에서도 종교의 영향력보다는 세속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터키 모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아프칸니스탄·타지키스탄 등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자국내 침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3년과 2006년에 다민족 국가인 점에 착안하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촉구하고 각 종교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종교인 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9. 11 이후 대립의 양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중동 이슬람·유대교 분쟁해결 등을 희망하는 세계 종교계 인사들의 소망을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다민족 간의 특성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및 정부정책으로 안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수의 러시아계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쓰면서도 카자흐스탄 전통과 언어를 우대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관

- 한-카자흐스탄 관계는 1992.1.28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이 자국의 경제개발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 경험 전수 및 카자흐스탄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독립직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방기업들의 무관심이 지속되던 시기에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적극 진출하여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이룸으로써 결국 서방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 우리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하였으나 2002년도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방한 및 산자부 장관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양국관계는 2003.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2004.9)으로 카스피해 원유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 등 실질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3년 11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및 2006년 9 월 한명숙 총리 공식 방문 등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양국간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한 우미르작 슈케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대통령 접견자리에서 카자흐스탄 국민복지화를 강조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최근 연두교서 내용을 강조하며 향후 에너지 및 건축 관련 양자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했다. 접견 후, 우미르작 슈케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에너지 및 건축관련 한국 대표기업들과의 투자협상면담에 참석하면서, 이번 카자흐스탄 부총리 방한이 향후 대 카자흐스탄 한국 기업 투자진출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 방문을 통해 한국석유공사 주도 잠빌 유전 탐사 개발권 계약 체결과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주도로 우라늄 장기도입 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 2009년 5월13일~14일동안 카자흐스탄에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여 경제통상뿐만아니라 에너지·자원, 산업·인프라, 건설, 문화, 노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였다.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으로는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협력협약서 체결이 대표적이며,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는 현대상사와 KazMunayGaz 간의 조선소 건설 및 오일탱커 수주 협력과 한국전력공사와 KEGOC(국영송전망운용회사) 간의 전력 분야 기술교류 MOU 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보쉐콜 동광개발, 잠빌광구(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성과 연계), 인터넷망, 철도분야, 건설분야 등 다양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외교관계

- 1991.12.30: 카자흐스탄 국가승인
- 1992.01.28: 외교관계 수립
- 1993.07.12: 김창근 대사 신임장 제정(초대: 키르기즈 겸임)
- 1996.10.16: 이영민 대사 신임장 제정(2대: 키르기즈 겸임)
- 1999.11.03: 최승호 대사 신임장 제정(3대: 키르기즈 겸임)
- 2002.10.11: 태석원 대사 신임장 제정(4대: 키르기즈 겸임)
- 2005.09.29: 김일수 대사 신임장 제정(5대: 키르기즈 겸임)
- 2008.09.01: 김병호 키르기스 대사 신임
- 2009.03.10: 이병화 대사 신임장 제정(6대)

다. 주요 인사교류

- 1990.11: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소연방 공화국 대통령 방한
- 1992.07: 이상옥 외무장관 카자흐스탄 방문
- 1995.05: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방한
- 1997.10: 예시모프 제1부총리 방한
- 2001.08: 아브디카리모프 상원의장 방한
- 2004.04: 투야크바이 하원의장 비공식 방한
- 2002.09: 예센바예프 산업무역부 장관 방한
- 2002.10: 토카예프 국무장관 겸 외무부 장관 방한
- 2002.11: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카자흐스탄 방문
- 2003.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공식방한

- 2004.03: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카자흐스탄 방문
- 2004.05: 마미 대법원장 방한
- 2004.07: 쉰비노프 국방부 차관 방한
- 2004.07: 아비카예프 상원의장 비공식 방한
- 2004.09: 노무현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 2004.10: 프로테트 국방차관 방한
- 2004.11: 이명박 서울시장 카자흐스탄 방문
- 2005.01: 전윤철 감사원장 카자흐스탄 방문
- 2005.01: 김영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카자흐스탄 방문
- 2005.04: 마르첸코 전경제부총리(현 할릭은행 총재) 방한
- 2005.04: 김용덕 관세청장 카자흐스탄 방문
- 2005.04: 슈콜릭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방한
- 2005.05: 켈림베토프 경제.예산기획부장관 방한(제6차 정부혁신세계 포럼 참가)
- 2005.08: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방문
- 2005.09: 김원기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방문
- 2005.12: 이호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카자흐스탄 방문(12월 대선 참관)
- 2005.12: 샤키로프 외무차관 방한(한.카자흐 정책협의회 참석)
- 2006.01: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카자흐스탄 방문(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6.04: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장(한명숙 의원 동행)
- 2006.0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CICA 정상회의 참석)
- 2006.09: 김원기 전국회의장(제2차 세계종교회의 참석)
- 2006.09: 한명숙 총리 공식방문(추규호 건교부장관 수행)
- 2006.12: 아리스타노프 알마티금융센터 위원장
 - 매년 10,000명 이상의 한국국민이 카자흐스탄 방문
 - 2006년 3,841명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 방문
- 2008.02.26: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우미르차 슈케예프 부통령 접견(대통령 취임식)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민복지의 성장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는 주제를 담은 연두교서 전달
 - 한-카 협력관계 동향과 전망 관련 문제 논의
 - 한국 건축회사, 에너지 회사, 재정기관 대표들과 면담
- 2008.05.13: 한승수 총리 카자흐스탄 방문(경제단 대동)
- 2009.05.13~14: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 에너지, IT, 수송 등 3대 벨트중심으로 양국간 협력 강화 목적

라. 협정체결 현황

- 1992.07: 무역협정
- 1995.05: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
- 1996.03: 투자보장협정
- 1999.04: 이중과세방지협정
- 2003.11: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 2004.09: 원자력 협력협정
- 2006.09: KOICA 봉사단 파견협정
- 2007.05: 항공협정
- 2007.06: 외교관·관용 여권 사증 면제협정
- 2008.05: 건설분야, 도시계획수립 관련, 섬유산업분야, SOC 경제협력 MOU 체결.
- 2009.05: 에너지·자원 협력(MOU 3건, 협약 1건, 회사설립 1건), 산업·인프라 MOU(5건)

마.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 7개사는 2002.3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 원유 컨소시움은 카자흐 석유가스공사 측과 카스피 해 유망광구인 잠빌 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2004.3월 체결하였으며, 2006.9월 지분양·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어 2006.11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 방문을 통해 카작국영석유회사(KMG)와 잠빌 해상광구 지분 27%에 해당하는 양수도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동안 카작국영석유회사(KMG)와 한국컨소시움은 잠빌광구 탐사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운영회사를 설립하였고 2011년 탐사시추 예정이다.

한국의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 개발 현황

개발광구	한국 참여기업	한국 지분	추정매장량
잠빌(Zhambyl)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 27%(탐사 성공 시 추가 23% 선택권) ○ 한국컨소시엄 지분의 참여사별 비중 - 한국석유공사 35%, SK 25%, LG 상사 20%, 삼성물산 10%, 대성 산업 5%, 대우조선해양 5%	16.6억 배럴
ADA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 50% - 석유공 22.5%, LG 상사 22.5%, 기타 5%	1.7억 배럴
에기즈카라(Egizkara)유전	한국컨소시엄	○ LG 상사 50%, 한국석유공사	2억 배럴
남카르포프스키 (South Karpovsky)가스전	한국컨소시엄	○ 50% - 석유공 17.5%, GS 홀딩스 12.5%, 경남기업 7.5%, 금호 석 유 5%, 현대 중공업 5%, 카즈너지 2.5%	4,600만 톤
사크라마바스 (Sarkramabas) 유전	KS 에너지 (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 50% - 세하 25%, 기타 25%	2.7억 배럴
웨스트 보조바 (West Bozoba) 유전	KS 에너지 (세하, 우리투자증권 등)	○ 50% - 세하 25%, 기타 25%	1.6억 배럴
8광구 유전	LG 상사, SK	○ 100% - LG 상사 50%, SK 50%	2.5억 배럴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측과 카자흐스탄 동남부(15만km²) 주요 광물부존 구역에 대한 공동탐사를 2004년부터 실시 중이며, 금·동·연·아연 등 유망광물 발굴 시 아국기업의 후속개발진출 연계를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카자흐스탄 Kazatomprom 측과 우라늄광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Kazatomprom 측과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 우리 우라늄 수요의 약 1/4을 카자흐스탄이 공급 중이다. (우리나라 연간 우라늄 수요 총 3,600톤 중 960 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기간의 성과로는, 예상매장량이 10억통 이상 (품위 0.37%)이 되는 보셰콜 동광 협력개발 MOU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삼성물산, 카작 국영석유회사(KMG) 간 체결했다는 것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약 1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셰콜 동광은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동광산 중 최대규모라는 점에 동 협력 체결은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바. 고려인 현황

- 한인들은 1850년대부터 계절농 형태로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극동지역 개발에 부심하고 있던 러시아 제국 정부는 한인들의 정착을 수용하였다. 1917.10 볼셰비키 혁명 이후 스탈린 하에서 본격적인 계획경제가 도입되고 농장의 집단화가 추진되면서 한인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극동지역에서 수십 개의 농업, 어업 콜호즈를 조직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한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신문, 잡지가 발간되고 라디오 방송, 한인극장, 출판소 등이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사범학교, 기술전문학교 등을 설립하여 후진들의 주류사회 진입을 위한 문화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 하였다.
- 소련 정부는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1937년 가을 한인의 중앙아 강제이주를 단행 하였다. 1930년대 초 농업집단화와 기근 등으로 250만 명이 사망한 비극을 겪은 바 있는 카자흐인들은 강제 이주된 한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 후 한인들은 60여 년에 걸쳐 소련 내에서 다수의 한인 콜호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다수의 한인들이 소련 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수한 소수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에서 유일한 한인종합 예술극장인 고려 극장, 한글 신문인 레닌기치(현 고려일보)를 운영하는 등 중앙아내 고려인 사회를 주도하였다.
-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인 2-4세대 고려인들이 동포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정.관계 고위직, 학계.문화.예술분야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김 비오레타 : 전 대법관
 - 니 블라디미르 : 대통령 알마티 총무 수석비서관
 - 김 블라디미르 : 카자흐무스 구리광업 공사 사장
 - 최 유리 : 상원의원, 전 카스피 Holding 회장
 - 남 올레그 : KUAT 사장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오랜 기간 모국과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바, 한국어 라디오 방송 및 우리민족 TV 등 문화.예술언론활동을 통해 CIS 지역 내 우리 민족 문화의 유지.보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수 세대에 걸친 모국과의 격리 및 소련 정부의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 등으로 고려인 2-4세대 들은 한국어 구사가 어렵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하다.
- 그러나 수교 및 우리 대사관 개설 이후 우리 정부로부터의 지원 등에 힘입어 젊은 층의 우리말 구사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북한 성향을 보여 주고 있던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한국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 주요 재외동포 단체로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있다.
 - 고려인협회: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고려인 권익보호 등 제반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2004.12월 고려인 자체 부담으로 고려인 회관을 개관하였다.

- 알마티시 고려문화중앙: 알마티 시를 중심으로 한 고려인들의 모임으로서 한때 고려인 협회와 다소의 갈등을 겪은 바 있으나, 최근 신보리스로 회장이 교체된 이후 고려인 협회와 원만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고려일보: 1923.1월 “선봉”으로 창간된 이후 “레닌기치”(1938.5.15-1990.12.31)로 개칭된 바 있으며 1999.1월 현재의 “고려일보”로 개칭되었다. 직원 12명(주필: 리발레라)이 주1회 2,500부(러시아어판 8면, 한국판 4면 발행)를 발행하고 있다.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고려인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최근 한글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추세이며 고질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어 현재는 고려인협회가 국가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 중이다.
- 고려극장: 1932.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되었으며 1937년 한인 강제 이주 이후인 1939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立 음악연극조선극장”으로 부활 했다. 2002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단원 89명(극장장: 니 류보브)의 고려극장은 CIS 지역 동포사회 내 대표적인 국립 예술극장으로서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2년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현재의 단독극장건물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 고려 말 라디오 방송: 국영 카자흐스탄 TV.라디오방송국 산하에 1984.5월 설립된 이후 직원 3명(국장: 성 이리나)이 주2회 20분 방송한다. 최근 고려인협회 및 우리민족 TV 등과 함께 고려인 회관 내 독자적인 studio 설립을 추진 중이다.
- 우리민족 TV: 국영 카자흐스탄 TV.라디오방송국 산하에 1991.2월 설립된 이후 직원 4명(국장: 최엘라)이 한국어 및 노어로 주1~2회 20분씩 방송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KBS로부터 한국 소식 등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방송하고 있다.
- 한편, 카자흐스탄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00년부터 年 10%대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활발한 기업활동은 카자흐스탄 내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한-카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고리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카자흐스탄은 세계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로 인해 2000년 이후 9% 수준의 고도 GDP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3.2%로 크게 하락하였다.

카자흐스탄 1인당 실질 GDP는 2002년 \$1,631에서 2008년 \$8,400로 크게 증가하였고 명목 1인당 GDP 기준으로는 CIS 국가들 중, 러시아(16,146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11,318달러)이다. 2010년 1인당 실질 GDP는 \$9,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당초 예정보다 7년 앞선 2000년 IMF에 대한 모든 부채를 상환했는데, 이는 CIS 국가 최초로 정부주도 시장경제개혁에 따른 경제발전 덕분이었다.

러시아 및 CIS 국가 경제지표 비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실질 GDP 증가율(%)	러시아	6.4	6.7	8.1	5.6	-7.8
	우크라이나	2.6	7.4	7.3	2.1	-16.0
	카자흐스탄	9.7	10.6	8.5	3.2	-1.9
	우즈벡	7.0	7.2	9.5	8.6	7.8
산업생산증가율(%)	러시아	4.0	3.9	6.3	2.0	-10.0
	우크라이나	3.2	6.2	10.2	1.8	-23.0
	카자흐스탄	4.6	7.1	4.5	2.1	-1.2
	우즈벡	7.7	10.0	12.2	11.2	8.7
소비자물가상승률(%)	러시아	12.7	9.7	9.0	14.1	11.7
	우크라이나	13.5	9.1	12.8	22.3	16.0
	카자흐스탄	7.6	8.6	10.8	9.5	7.3
	우즈벡	6.9	6.8	6.5	6.5	8.6
수출(십억 달러)	러시아	243.6	303.9	354.4	4,69.0	298.8
	우크라이나	35.0	38.9	49.2	62.9	41.5
	카자흐스탄	28.3	38.8	47.7	71.1	41.9
	우즈벡	4.9	6.3	7.6	9.8	9.5
수입(십억 달러)	러시아	125.3	164.7	212.4	2,92.5	194.7
	우크라이나	36.2	44.1	60.4	78.3	46.0
	카자흐스탄	18.0	24.1	31.7	37.8	25.1
	우즈벡	3.5	4.4	3.9	6.4	6.5
경상수지(십억 달러)	러시아	84.2	94.5	76.6	98.8	47.4
	우크라이나	2.5	-1.6	-3.3	-11.0	-1.3
	카자흐스탄	-0.5	-1.8	-5.9	6.0	-2.3
	우즈벡	1.1	1.9	3.2	5.6	4.5
환율(자국화폐/US\$, 연평균)	러시아	28.31	26.33	24.55	24.85	31.80
	우크라이나	5.12	5.05	5.05	7.7	7.80
	카자흐스탄	133	127	120.2	120.77	147.9
	우즈벡	1,114	1,240	1,288	1,383	1,468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IU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카자흐를 세계 50대 경쟁력 국가로 진입시킨다는 것을 국가목표로 선정하여 산업다변화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사회,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 흡수를 위해 카자흐스탄은 국가기금(National Fund: 오일펀드)을 설립하여 에너지 분야 재정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실업률도 1999년 13.5%에서 2008년 기준 6.4%로 크게 하락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국가기금으로부터 100억달러 이상 경기부양 대책 기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주 지원 부문은 금융권으로 4대 시중은행이 국유화였고 현재 2개은행(BTA, Alliance)은 국유화와 동시에 구조조정 중이다.

연도별 카자흐스탄 주요 경제 지표(2004-2009.10월)

구분(단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0월)
인구 (만명)		1,511.0	1,521.7	1,538.0	1,556.5	1,556.5	1,577.1
GDP	총액(억달러)	58,770	75,910	102,140	127,260	158,400	64,460(~6월)
	(억 불)	489.7	632.6	851.2	1,060.5	1320	1,024*
	성장률	9.6%	9.7%	10.7%	8.5%	3.2%	-2.3%
	1인당 GDP	\$2,700	\$3,700	\$5,100	\$6,800	\$8,400	\$6,550*
산업생산 성장률		10.1%	4.6%	5.9%	4.5%	2.1%	-1.5%*
월평균임금 (USD)		207.9	280.7	333.4	441.7	498.3	439.4
인플레이션 (%)		6.7	7.6	8.4	10.8	9.5	7.8
평균환율		135.9	132.8	127.3	122.1	120.7	150.95
대출금리 (%)		7.0	8.0	9.0	9.0	15.0	14.7
무역 (억불)	교역량	328.7	452.0	619.2	795.7	1,090.6	389.8
	수출	200.9	278.4	382.5	469.7	711.8	251.4
	수입	127.8	173.5	236.7	326.0	378.8	138.4
	무역수지	73.1	104.9	145.8	143.7	333.0	40.0
총외채 (백만불) (GDP 대비 %)		32,017 (77.9%)	41,516 (78.7%)	73,455 (76.9%)	93,923 (73.8%)	105,400 (79.8%)	106,673 (37.1%)
외국인직접투자 (백만불)		8,317.3	6,618.6	10,568.6	17,466.1	12,842.4	7,675
재정수지 (GDP 대비 %)		N/A	0.6	0.5	-1.7	-2.1	0.1
실업률 (총인구 대비, %)		4.2	4.1	7.8	7.5	6.4	6.6
외환보유고 (억불, 국가기금포함)		138	153	335	388	469	425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통계청, EIU

가. 경제개발계획

카자흐스탄 국가 발전 계획의 화두는 WEF(World Economic Forum)기준 세계 50대 경쟁력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3년에 ‘카자흐스탄 공화국 2003~ 15 산업 및 투자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자원 채굴 분야(1차 산업)를 벗어나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고 ‘중장기적인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발전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2003~15년도 산업 및 투자 발전 정책’의 주요 목표는 연간 가공업 성장률 최소 8.4% 달성, 2000년보다 2015년까지 GDP를 3.5~3.8배로 증가, 연간 평균 경제성장률 최소 8.8~9.2% 달성, 경쟁력이 있는 고급 기술상품 생산,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상품 생산, 세계적 수준의 질과 서비스의 달성이다. 이 정책은 3단계로 실시될 예정이며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면 카자흐스탄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기술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개발 은행, 카자흐스탄 투자 펀드, 국립 이노베이션 펀드, 투자 및 수출 보험 주식회사, 연구, 조사 및 마케팅 센터 및 기술 이전 및 공학 센터 등 많은 기관을 설립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5년 동안 토지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며,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는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CIS역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조세로, 세계은행으로부터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20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조약 체결,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투명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보호정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정부정책 아래 카자흐스탄 투자유망분야로 화학, 건설, 기계제조, 농업, 인프라, 통신분야가 있다.

나. 경제 정책

1) 산업 다변화 정책

석유 및 가스 관련 산업이 총 산업생산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운송, 건설 등도 간접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의존하고 있어 비자원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할 예정으로서, 비자원 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Cluster Approach' 방식을 채택하여 금속가공,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설비, 건설장비, 운송 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에 중점 지원하고 제조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농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 종합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 정부의 효과적 거시경제 운영정책

1990년대 중반 통화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킨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물가와 통화가치 안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과다한 해외유동성 관리를 위해 재할인율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화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투기적 자금의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점 하에 금융권 안정화 정책을 핵심으로 추진 중으로 시중은행(4대)가 국유화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3) 자원관련 재정 수입의 효율적 관리 정책

카자흐스탄은 복지혜택 등의 증가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으나, 석유 수출에서 발생하는 재정 수입 증가로 재정 상태는 안정적인 편으로서, 2000년부터 국가기금(오일기금)을 통해 석유 수출에서 걷어 들이는 일정액의 재정수입을 적립하는 노르웨이 방식을 채택하여 원유 가격이 배럴당 19달러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사용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주요 정부부처 관료직에 젊은 경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일선에 배치함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3-2015년간 산업개발계획 개요*

- 목표
 - 2015년까지 GDP 를 3.5배 증가(2000년 기준)
 - 연 9~9.5% 실질 경제성장률, 8.4% 산업 성장률 유지
 - 2008년까지 GDP 2배 증가(달성)
 - 2015년까지 산업생산성 2배 증가
 - 2015년까지 세계 50대 경쟁력 국가 진입
- 활동계획
 - 유라시아 공동경제구역 추진
 - WTO 가입
 - 투자규제 완화(투자기금설립)
 - 중점산업 선정 및 클러스터 건설
- 3단계 추진
 - 2003년~2005년: 이노베이션 및 금융인프라 구축
 - 2006년~2010년: 에너지자원개발 부문 통합관리
 - 2011년~2015년: 기업경쟁력 및 균형발전 추진
- 시행 관련 국영기업 및 기관
 - Samruk-Kazyna(국가복지기금)
 - 경제기반시설 개발에 50억달러 투자계획
 - 주요 산하기관: 카자흐스탄 발전은행, 카즈나 캐피탈 매니지먼트(투자기금, 이노베이션 기금관리운용), 중소기업발전기금, 경제연구센터, 정부보험 위원회, 카즈인베스트, Social Innovation Technology
 - 원유, 전력, 철도, 우편, 통신 등 국가 SOC 사업총괄
 - RFCA: 알마티 지역 금융센터 육성 지원 센터
 - KazArgo National Holding JSC: 농업 및 농산물 가공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영 기업

주: 동 계획안은 2000년대 초 계획으로 2008년 경제위축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2003~2015년 산업이노베이션 전략
 - 2004~2010년 농촌 개발 및 발전 프로그램
 - 2004~2015년 환경 보호 및 안전 프로그램
 - 2001~2010년 카자흐스탄의 민족언어들 발전 프로그램
 - 2001~2010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 2005~2007년 주택건설 프로그램
 - 2005~2010년 건강 및 보건분야 발전 프로그램
 - 2005~2010년 교육 발전 프로그램
 - 2005~2007년 카자흐민족 제외동포 지지 및 지원 프로그램
 - 2006~2014년 반마약 프로그램
 - 2006~2010년 반부패 프로그램
 - 2015년까지 교통 개선 프로그램
 - 2006~2010년 아스타나시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

4) Anti-crisis Programme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 11월 말 Anti-crisis Programme을 수립하였고 2009년 1월 구체 수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가기금(오일기금)을 적극 활용해 2009년~11년간 약 170억달러를 국가 경기 진작 및 대책 기금으로 투입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산업별로, 금융부문에 40억달러, 공공부문(주택 및 건설)에 30억달러, 중소기업(SME) 육성에 10억달러, 농업부문에 10억달러, 그밖에 사회인프라구축에 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위기 대책 정책하에, 2008년 시중은행 구제증가계획 발표이후 4대 은행(BTA Bank, Halyk Bank, kazkommerts Bank, Alliance Bank)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국유화)을 단행중에 있다. BTA의 경우는 최근 17억 달러(전체 지분의 78.14%)가량이 Samruk-Kazyna를 통해 투입되어 국유화가 공고해졌으며 Alliance Bank에는 1억97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지분76%가 정부 자산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Halyk Bank에 투입될 금액은 약 10억 달러 가량이며 이중 5억 달러는 단기성 예금으로, 나머지 5억 달러는 장기성 예금을 통한 제조업, 농업, 인프라, 자원, 교통 부문 대출자금이 될 것이다. Kazkommerts Bank인 경우는 6개월 단기성 예금으로 2억9500달러와 3년 분할대금(Tenor)로 6억8900만 달러가 이미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카자흐스탄 경제는 1999년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 및 원유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대에 힘입어 연평균 9%이상의 성장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2006년도에 10.6%의 실질 성장을 보였으며, 2007년도 하반기 글로벌 자금경색에도 불구하고 2007년 성장률은 8.7%를 달성했다.

외국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져 원유생산량은 연 1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원유 및 가스 부문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대 중앙아시아 투자액의 80%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의 외국인 투자액은 자그마치 279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존의 경제발전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초 국제적 국가연구기관(EIU, Global Insight)들은 원유 가스 산업의 호조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신용경색 지속화와 두 자릿수가 넘는 인플레이션(2007년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10.8%이나 12월 말 기준 인플레이션은 18.8%를 경신하였는데 2008년 실물경기의 위축으로 9%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08년도 경제 성장률은 3%대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 9년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카자흐스탄 외환보유고(금본 외화 포함)는 2008년 12월 기준 193.9억달러로 전년대비 10.5% 가량 증가하였고 국가기금(오일기금)을 포함하면 총 273.3억달러로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면상으로 외환위기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경기 부양 정책으로 170억달러를 각 산업부문별로 배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 2009년 외환

보유고가 크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보유고 소진예상의 또 다른 근거는 국제 상품 가격(2007년 말 브랜드 오일가격: 150달러/배럴→2009년 2월 브랜드오일가격: 40.9달러)로, 카자흐스탄 수출품목의 70%이 자원관련품목이기에 자연스런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향후 경제전망(2009-2011)

구분	2008	2009	2010	2011
GDP(증가율)	3.2%	-1.9%	2.0%	2.3%
GDP(억 달러)	1,320	1,026	1,172	1,330
1인당 GDP(USD)	8,400	6,611	7,554	8,382
산업 생산 성장률(%)	2.1	-1.2	3.8	3.3
1인당 월평균임금(달러)	498.7	551.4	621.7	N/A
수출 규모(억 달러)	711.8	419	511.5	772
수입 규모(억 달러)	378.8	251	314.4	558
정책금리(%)	10.0	7.0	6.5	6.0
인플레이션 (%)	9.5	6.3	8.4	5.2

자료: Renaissance Capital, EIU

라. 환율 동향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de facto peg제도를 채택해 1% 내외의 미미한 수준으로 환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동 기간 러시아는 18단계를 거쳐 44% 이상 환율을 절하시켰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52.5%의 환율이 절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자흐스탄의 환율변동조정 정책은 매우 강력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마르첸코(Gregory Marchenko, 전 Halyk Bank 은행장, 전 중앙은행장)를 중앙은행장으로 재임시켰으며 마르첸코의 과거경력(환율절하조치)에 따라 텡게(현지화) 평가절하허용에 대해 발표되었고 2월4일 환율절하를 25%까지 허용하겠다는 전격발표로, 당일 텡게화 환율이 22%이상(122텡게→143.98텡게) 급격히 하락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단행의 의도는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수출대외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상품 가격이 급락과 자원 수출국들의 환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 에게는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고려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중앙 은행의 환율 방어(de facto peg)에 의한 의도적인 시장개입으로 불필요한 외환보유고 소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환율방어를 위해 약 60억달러 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외환보유고가 '08년 대비 20%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크레디트디폴트스왑 프리미엄(CDS)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외화자산 해외차입으로 자국 통화인 텡게화 로 자산운용하던 시중은행들을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국유화)를 수행 중에 있어 외환부채상환의 압박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근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 카자흐스탄의 해외투자 동향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이 투자한 대상 국가는 미국으로 그 밖에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등 서방 선진국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약 151억 달러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중 채권매입이나 해외 은행예금 등 금융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이나 은행 인수 및 지분참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08년 금융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국통화안정화 및 국내경기부양정책 일환으로 해외투자자금이 크게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 투자자금들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서 FDI로 집계되는데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우호적인 네덜란드를 경유했거나 버지니아군도 및 라이베리아 등의 자본이 역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 글로벌 불황타격을 위한 카자흐스탄 과제

글로벌 경제위기에 당면한 카자흐스탄 불황타격 과제로는 ① 외환보유고 및 국가기금 효율적 운용, ② 산업 다변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 ③ 국제경제체제 편입 확대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 마련, ④ 장기적 신용 확보 보다는 단기적 이해에 좌우되는 정책 결정 자세 지양, ⑤ 원유 등 에너지·광물자원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재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외환보유고 및 국가기금 효율적 운용

카자흐스탄은 468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국내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활용 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국가펀드(원유 관련 국가 수입을 적립하는 펀드)를 해외 포트폴리오 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건설 등 산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해 외에서 차입해오는 방식을 선호해온 결과, 불필요한 금융 비용 초래와 함께, 국제 경제 변화에 민감한 금융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금융위기를 초래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 동안 풍부했던 외환보유고(국가기금 포함)를 바탕으로 금융구조 조정과 각 산업부문 경기부양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최근 텅게화 환율절하와 산업생산력 저하, 외환 근본 대외부채 상환도래, 국제상품가격 하락 등으로 외환보유고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산업다변화 추진 과정에서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 등 에너지·광물자원에 기초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7대 주요 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동 과정에서 30대 핵심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구 1,500만이라는 시장의 협소함과 내륙국으로서 물류비용이 크다는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가 7대 주요 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적 논리(최고 통치권자의 결정 등)로 7대 주요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따라 기업들의 자체 사업 분야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 보장 및 직접 투자 확대를 통해 발전을 추진하면서, 한국 등 경제·산업 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 받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제상품가격 급락은 대 카자흐스탄 투자 매력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유치 정책노력이 요구된다.

3) 국제경제체제 편입 확대

예정대로 2009년 WTO 가입 완료, 2010년 OSCE 의장국 수임되면 카자흐스탄은 명실상부한 중앙아시아의 국제경제체제에 급속하게 편입되는 한편, 국제경제 변동에 더욱 노출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금번 금융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과 같이 외자 활용 비효율성, 금융 구조조정 정책 실패, 산업 생산물의 지속적 저하가 현실화 될 시, 1997년 동남아에서 촉발된 IMF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근시안적 정책 결정 자세 지양

한동안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Shell 등 다국적 기업들과의 거래가 커졌지만 국제적 관행 및 원칙에 어긋나는 양태를 보여 국제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KMG 는 Shell 측과 누르술탄 광구 탐사 계약 체결을 위해 지난 5년간 협상을 통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1년 이상 탐사계약 서명을 미루다가, 누르술탄 광구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 탐사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누르술탄 광구를 자체 탐사기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Shell 에 이와 같은 입장을 통보했었다. 또한, 카샤간 유전 개발 주사업자인 ENI 사에 대해 계약 이행 위반을 KMG 지분 증가와 함께 ENI 사의 사업 주무 역할을 박탈시켰던 ‘카샤간 스캔들’도 발생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자칫 카자흐스탄을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파트너라는 인식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초기부터 해외투자보호와 함께 투자자금 및 이익금의 자유로운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고려,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서구 기준에 맞는 법 제도 정비와 함께, 비즈니스 추진도 서구기준(약속의 준수 등)에 맞도록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개황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섹터에 의존에서 벗어나 비자원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 산업구조는 석유·가스 관련산업이 총 산업 생산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운송, 건설 등도 간접적으로 자원분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원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Cluster Approach’ 방식을 채택하여 금속가공, 원유·천연가스 생산설비, 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섬유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농업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 종합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요산업은 산업가스 생산, 기타 광물자원 채굴, 식료품 및 담배 생산, 섬유 및 모피 생산, 목재 및 제지, 석유화학 제품 생산, 비금속 및 금속 제품 생산, 기계 및 장비 제조, 금속공업, 에너지 및 수돗물 생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GDP에서 차지하는 공업의 비중은 53.7%이고 농업의 비중은 8.5%였다. 제조업 및 채굴업 등은 석유·철강 생산 호조에 힘입어 2004년, 2005년, 2006년 채굴업이 10.0%, 12.8%, 8.2%가 각각 성장했으며, 가공업은 8.2%, 4.8%, 7.3%가 각각 성장하였다.

특히 채굴업은 석유, 가스개발 및 금,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2006년 총수출의 71.9%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기타 수출산업 비중은 화학제품 4.2%, 식품 2.8%, 기계 및 장비류 1.8%, 기타 3.2% 등이다.

2005년과 2006년의 GDP 성장률은 각각 9.4%, 10.6%를 기록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전체 산업 생산 규모는 506.49억 달러를 기록, '05년과 비교해 7%가 증가했다. 가공업 생산 규모는 '05년과 비교 7.3% 증가한 185.74달러, 광업은 '05년과 비교해 7% 증가한 293.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농업 생산 규모는 '05년과 비교해 7% 증가한 65.9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산업비중을 보면, 공업부문이 28.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농업부문은 3.3%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기기 낙후와 국가 예산투자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 Post Crisis 일환으로 농업부문에 국가 지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역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카자흐스탄 산업발전 방향이다.

카자흐스탄 부문별 산업비중

주요산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부문	8.8	7.8	7.0	5.5	5.7	3.3
공업부문	32.4	32.3	32.8	29.6	28.3	28.7
건설부문	6.7	6.7	8.6	9.8	9.4	7.0
교역	13.0	13.7	13.0	11.4	12.4	14.1
교통 및 통신	13.8	13.0	13.0	11.5	11.5	9.3
서비스	25.4	26.5	25.4	32.2	32.7	37.9

나. 주요산업

1) 석유·가스산업

카자흐스탄의 BP가 확인한 석유 매장량은 2008년 기준 396억 배럴이며, 가스 매장량은 105.9조 입방피트로 집계된다. 다른 연구기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잔존 가채 매장량은 285억 배럴이며 예상 매장량은 920억 배럴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카자흐스탄의 가채 가스매장량은 65~100 Tcf 로 추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자원의 30~40%가 해양지역에 위치하며 전체 상업적 매장량 중 약 2/3는 석유 및 컨덴세이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장량 중 대부분은 Tengiz, Karachaganak, Kashagan, Uzen 유전 등이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매장량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석유 매장량(억 배럴)	396	396	396	398	398	398	398	398
가스 매장량(Tcm)	1.72	1.77	1.77	1.77	1.90	1.90	1.39	1.82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은 1991년 569천 b/d에 이르렀으나 경제혼란과 러시아의 수출 파이프라인 제한 등으로 1990년 중반까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전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구 소련 해체 이후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 혼란이 있었으며,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에서 러시아 사마라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일의 원유 수출 파이프라인을 독점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의 수출량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외국 석유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고 러시아와 원유 수출 협정을 체결하면서 원유 생산은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2년 6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아티라우-사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최저 연간 1,500만톤(30만 b/d), 마하치칼라-티호레츠크-노보로시스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최저 연간 250만톤(5만 b/d)의 원유수출 할당을 보증하는 장기협정 (15년)을 체결하였다.

2001년 Tengiz에서 노보로시스크에 이르는 CPC 파이프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등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원유 생산량 증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원유생산량은 1998년 이후 매년 15%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1억 300만 배럴이 생산되었다.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수급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석유	매장량(10억배럴)	39.6	39.6	39.8	39.8	39.8	39.6	39.8	39.8
	생산량(1일,천b/d)	1,018	1,297	1,364	1,426	1,490	1,111	1,169	1,554
	소비량(1일,천b/d)	193	188	208	221	219	183	180	229
가스	매장량 (Tcm)	1.72	1.77	1.77	1.90	1.90	1.77	1.39	1.82
	생산량 (Mt/d)	9.5	18.6	21.0	22.1	24.5	11.7	27.2	30.2
	소비량 (Mt/d)	10.0	13.9	17.5	18.8	17.8	12.0	18.5	20.6

자료: BP

천연가스의 경우 수송망의 부족과 낮은 가스가격으로 생산한 가스는 수출하고 국내소비를 위한 가스는 주변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 천연가스 국내 소비의 40%는 투르크 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350만 b/d로 증대할 계획이다. Kashagan 유전 1백만 b/d, Tengiz 유전 70만 b/d, Kurmangazy 유전 60만 b/d, Karachagan 유전 50만 d/b 등 주로 대형유전에서 증산할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Tengiz 유전 및 Karachagan 유전의 생산 개시, 장기적으로는 Kashagan 유전(2010년 100만 배럴 생산 예정)의 생산 개시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동북부, 서부, 남부에 3개의 주요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정유 능력은 401천 b/d이다. 특히 서부에 있는 Atyrau 정유공장은 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정유 공장이며 이들의 정제 가동률은 50~60% 수준이다. 현재 정유시설의 현대화가 진행 중인데, 일본의 Marubeni 사는 1998년 Atyrau 정유공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JBIC가 타당성 조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 현황(연별)

연도	1톤당 수출가격(USD)	수출량(ton)	수출규모(USD)
2001	131.7	32,378,022.6	4,254,746,000
2002	128.3	39,133,764.8	5,027,885,600
2003	158.4	44,264,791.8	7,012,512,700
2004	217.8	52,419,346.01	11,414,242,200
2005	263.8	52,404,684.49	17,395,248,340
2006	N/A	54,568,899.98	23,611,992,550
2007	N/A	217,204,182.5	30,136,548,500
2008	N/A	60,708,681	43,507,923,000
2009 상반기	N/A	33,033,093	9,962,512,000

자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odern policy 및 카자흐스탄 통계청

주: 200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2) 광업

카자흐스탄 전체 수출소득의 30%, GDP의 27%, 총 고용의 19%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제2의 산업이다. 광업은 2004년에 12.8%의 높은 산업생산증가율을 보였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2005년에는 3.4%의 증가에 그쳤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이 있다. 철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금속으로, 2005년 약 450 만 톤의 선철과, 320만 톤의 강판이 생산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보유 광물은 우라늄, 크롬, 동, 아연, 망간 등 세계 10위 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알루미늄, 티타늄, 모리브덴, 니켈 등 기타 광물도 풍부한 편이다.

3) 건설산업

원유·가스 및 광물 자원의 국제 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의 경제도 2000년 이후 연 10% 대의 고속 성장을 시현하였다. 이에 따라 아스타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알마티, 악타우, 아티라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붐이 조성되면서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2007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6~7월 경의 알마티 소재 아파트의 1평방 미터당 평균 매매가격이 3,000 달러가 넘어섰다. 특히, 2006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6년 7~8월 중 1평방 미터당 평균가격은 2,000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2월 2,500 달러, 2007년 1월 2,700 달러, 2007년 6~7월 3,000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같은 급속한 부동산 가격상승은 카자흐스탄의 부유층들이 부동산 이외에 적절한 투자 방안이 없다는 점과 은행 수신금리가 높지 않은 반면, 8%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있다는 현실적 요인과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경제적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7년 4월 알마티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신규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분양방식도 2006. 12.31 이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얻으면 분양을 할 수 있었으나, 2007. 1.1부로 토지를 매입한 후 기초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아파트의 신규공급물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은 물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산업중 건설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보았는데 전문자료들에 따르면 알마티 시 부동산 매매가격이 최근 2년 사이 60%이상이 하락되었고 매물량이 40% 줄은 것으로 나타나, 그 타격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해 볼만하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하락세는 점차 줄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건설부문 및 부동산 시장이 최저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지역별 건설산업 총 투자규모

(단위: 백만 달러)

총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064.3	6,575.7	7,961.9	9,848.2	15,233.8	17,288.8	7,271.9	3,100
악크몰린스크	31.7	51.7	62.3	72.2	132.9	246.9	134.8	55
악췌빈스크	414.4	558.9	780.3	861.0	1179.6	1,143.7	482.0	111
알마틴스크	114.0	164.3	247.9	313.4	629.7	624.3	425.5	281
악티라우스크	1439.8	1,728.4	2,559.8	3,359.3	5,561.7	5,516.9	405.3	146
동부 카자흐스탄	206.4	187.5	236.9	233.3	452.9	678.9	175.0	50
잠발스크	24.7	57.7	204.5	103.2	108.6	125.7	94.7	41
서부 카자흐스탄	927.8	1465.6	870.1	644.2	715.6	764.3	235.1	58
카라간딘스크	288.4	347.6	366.0	592.2	1,008.1	796.7	176.0	104
코스타나이스크	95.8	105.3	173.8	249.5	298.3	373.2	164.8	78
카즐오르다르스크	153.3	246.2	400.5	298.3	411.9	475.3	465.25	38
망기스타우스크	328.5	303.6	356.3	535.9	683.5	1,094.2	474.1	222
파블로르스크	157.3	105.7	131.1	236.6	365.3	635.0	551.8	60
북부 카자흐스탄	30.4	22.4	45.3	53.7	183.7	164.4	143.6	34
남부 카자흐스탄	169.8	160.2	200.1	264.5	454.3	531.8	357.3	128
아스타나 시	453.5	611.7	833.6	1,324.3	1,828.2	2,450.8	1,843.8	856
알마티 시	228.0	458.1	492.8	706.1	1,218.7	1,666.0	1,142.0	839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9월 기준 최신자료

□ 카자흐스탄, 신용경색과 건설경기(2007년 11~12월)

카자흐스탄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저금리 등 우호적인 대출환경을 기반으로 장기간 해외 차입을 무리하게 해온 상황에서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야기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위축이 시작되었고, 카자흐스탄 금융권은 외채상환 압력을 받는 동시에 조달금리 상승으로 해외차입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금융권과 건설업에서 신용경색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 년 이후 연평균 10.3%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호황을 타고 국내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장기간에 걸쳐 저리의 단기 해외 차입을 해오던 차에 신용경색 조짐이 일게 되었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내각이 이를 차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등급기관인 S&P 와 Fitch IBC 는 카자흐스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하였다. S&P 는 카자흐스탄의 장기 외화표시 채권의 등급을 종전 BBB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1 단계 하향 조정하였고, Fitch 는 종전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Positive 에서 Stable 로 변경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올 7 월 이후로 시중은행의 해외차입금 상환을 위해 100 억 달러 정도의 단기자금을 차입하였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 234 억 달러 중에서 50 억 달러를 이미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시중은행의 총 외채는 최근 1 년 동안 두 배나 늘어 2007 년 상반기 말 GDP 의 50% 수준인 460 억 달러에 달했다. 2007 년 4/4 분기에서 2008 년 2/4 분기까지 시중은행들이 상환해야 하는 만기도래 외채 규모는 약 90~100 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부기금 40 억 달러 시장공급 및 해외주식시장 상장 자국 국영기업 주식 일부 인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는 이후에 기획예산부 장관(Mr. Bakhyt Sultanov)은 10 월 16 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은행권을 통해 10 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있는 1 주일후인 10 월 22 일 다울렉 에르고진 재무차관은 카자흐스탄의 금융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향후 3-4 개월 동안에 세계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전에 검토했던 은행 구제자금은 앞으로 풀지 않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다만 국영기업인 '카자흐스탄 모기지 컴퍼니'도 1.7 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받아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 대출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9 월 말까지도 인플레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단기 유동성 부족과 인플레이 기대치를 완화하기 위해 재할인율을 현행 9.0%로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던 중앙은행도 최근 개최된 의회에서 2008 년에는 이자율 및 재할인율의 인상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IMF 로부터 재할인율을 9%에서 지난달 인플레이율 연평균 11.2% 이상으로 올리도록 압력을 받아 온 이후에 나온 내용이라서 경제운용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 온 카자흐스탄 정부의 우려감을 엿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시중은행들이 2008 년 2/4 분기까지 상환해야 할 외채규모는 최대 100 억 달러에 달하고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 대외차입여건이 악화되는 등 국제적 신용 경색의 여파를 여실히 받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금융권은 '08 년 8 월 13 일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스템 붕괴와 부동산 가격파괴 등의 소문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시중은행들은 '08 년 8 월 말 이후 대출 이자율을 연 20-25%로 일방적으로 인상했고 일부 은행들은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음에 따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평균 가격이 40%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알마티 시내의 부동산 sm 당 평균가격은 9 월 25 일 3,292 달러에서 10 월 16 일 3,096 달러로 6%가 떨어져 3 주 연속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알마티 시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Meduskyi 지역의 sm 당 평균가격은 1 만 1677 달러 3 주 동안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 금융권에서 신용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카자흐스탄 텡게화가 당연히 평가절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 등에 의한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등으로 10 월 말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USD 1 = KZT 120)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결과는 정부의 중요 거시경제 관리지표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었다. 당초 목표치인 8.7% 수준을 훨씬 웃돌아 실질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15%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식음료 가격, 전기료, 상수도 요금, 주택임대료 등이 크게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 월 중순 이후 국제적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카자흐스탄 금융권은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불신과 추가 해외차입여건 악화 등으로 경영여건에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은행 구제자금을 풀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우려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표시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더욱 불확실하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 경제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충분한 대외 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부문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외채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 년 이후 연평균 10.3%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카자흐스탄 경제가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현상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편중현상(카자흐스탄 전체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심한 건설업계가 신용경색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호기를 맞을 수도 있다. 사실 초기에는 카자흐스탄 건설경기가 단기적으로 침체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자재 수출상에게는 당분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다행히 카자흐스탄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건설업체인 동일하이빌, 우림건설, 성원건설, 범양건설 및 삼부토건 등은 프로젝트 시행 이전에 구매한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공시점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현재시점이 아니라 회복기에 들어설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재원을 카자흐스탄 현지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주로 국내 금융권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내국 건설업체보다는 위험요소가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식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 아파트가 고소득층의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으나 한국 건설업체가 추진하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변동이 없다는 점도 한국 투자업체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중소 건설 투자업체에서는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내 건설업체가 내놓은 우량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카자흐스탄은 자원에너지로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800 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이 장기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카자흐스탄 고소득층의 주택 건설투자 대상지가 이 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될 국내 건설업체에게는 향후 더 좋은 호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현지 금융권의 대출 이자율 인상에 따라 현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운전자금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들 프로젝트의 투자수익률이 기존 18~24% 수준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 시행사 또는 시공 사의 입장에서는 도산 등의 위험은 없을 것이고, 카자흐스탄의 신용경색 위험도 향후 6개월 이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번 카자흐스탄 신용경색 조짐에서 나타난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주택 건설사업에 진출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현상도 정리돼야 한다는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택 건설시장이 국내 관련기업의 과도한 투자로 수익성은 낮아지고 위험성은 높아지는 레드오션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낄고 있다. 한국 건설업계에서는 레드오션화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주택 건설업에서 석유화학산업, 전력산업, 기간 도로망 구축 등 SOC 분야 진출에 보다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SOC 프로젝트 추진방식을 기존 BOT 방식에서 점차 사업비를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시된다.

4) IT 산업

카자흐스탄의 과거 10년간 카자흐스탄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정보수요도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IT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신흥시장으로 다른 IS 권 국가시장보다 성장세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가처분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IT 시장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유무선 통신 시장·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에서 다양한 선진 IT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2005~06년 기간 카자흐스탄 IT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85%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은 자기 나라 웹보다는 다른 나라 웹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자국의 검색엔진이나 웹 리소스 등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정보시장이 계속 된다면 국가 경제력의 퇴보가 우려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는 전자정부를 2004년부터 추진 하고 있으나 예산배정과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카자흐스탄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인터넷 사용자 중 40.8%가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6.5%가 교육기관에서, 12.5%가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쇼핑 현황으로는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사용자는 1%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는 유저 가운데 5% 가량인데 카자흐스탄의 인구가 러시아의 1/10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사용자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쇼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자리잡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의 보급률이 낮으며 인터넷 사용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과 둘째,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셋째, 카탈로그 확인 후 주문 결재하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IT 업계자들은 향후 카자흐스탄에 인터넷 쇼핑이 정착 되기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임대료이다. 인터넷 쇼핑물은 이러한 임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부수적인 비용(인테리어, 유지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면적의 27배에 다다른 카자흐스탄에서 거리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아이템을 인터넷을 통해 가능케 한다는 논리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 전화카드, 멀티미디어, 도서, 소프트웨어, 화장품, 식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SDL, ADSL, VDSL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SDL 방식은 최대 속도가 56kb 이며, ADSL 은 128~4096kb 까지 속도가 다양한 편이다. VDSL 은 국가정보기관과 대통령궁과 같은 중요 행정기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10월 알마 TV 에서 2024년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단 미리 사막지역이나 기후가 좋지 않거나, 인구가 적정선이 안 되는 곳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는 유럽시장과 비교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많지 않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알라타우 IT 파크) 개발 업체에 면세를 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IT 시장은 인도의 IT 시장 형태로 육성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정학적으로 카자흐스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카라간다 시내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집중 배치시키고 단기간 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시너지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알마티 시의 PC 구매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드웨어 선호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자흐스탄 하드웨어 시장은 2006년 기준 35~40%의 증가세를 보였다. 알마티 시에는 약 24만의 중산 가정층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80%가 400~600 달러 정도의 PC 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5%가 600~1000달러 정도 가격대의 PC 를, 5%가 1000달러 이상의 PC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카자흐스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 하드웨어 시장에 있어서 중시될 수 있는 요소로는 1) 디자인, 2) AS 와 서비스 지원센터, 3) 저가의 상품(알마티 내에서는 이런 상품이 8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4) 작은 사이즈의 팜탑-이동성을 중시한, 5) LCD 디스플레이 등이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합시스템 부문은 IT 시장에서 투자자본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문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공급자에 따라 시스템을 통합해 분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시스템 설치 및 기술적 서비스 등 이 분야 관련업체들은 상호 간 협력해 전체 이익 획득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장의 특이한 점은 시스템 통합 생산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러시아 등 외국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카자흐스탄 내국업체들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초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투자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전화 통신시장의 절반은 원거리 전화와 국제전화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위성 네트워크의 운영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칸살 (segment-data 의 한 단위)은 국영 Kazakhtelecom 이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서비스 회사는 Kazakhtelecom 에서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다.

다른 통신시장에 비해 전화통신 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시장 내부 안의 경쟁률은 높아 새로운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만약 신규 회사로 전화통신 시장을 공략하려면 우선적으로 라이선스 획득, 인프라를 건설, 시장조사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대기업들은 신규회사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에서 Fixed line Communication, 인터넷 프로바이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적은 편임. 독점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카자흐스탄의 통신서비스요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통신의 경우에는 4개 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이동통신 이용자의 제품 선택 고려기준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이동통신 이용자 제품선택 고려기준

구분	간접적 요소의 중요성(0~1)	직접적 요소의 중요성(1~7)
통화 품질	0.17	6.6
접속 속도	0.09	6.3
서비스 지역	0.11	6.2
세금(요금)	0.2	6.2
서비스 질	0.09	6
디자인, 기능	0.06	5.9
할인 프로그램	0.14	5.7
보안 레벨	0.23	5.7
컨텐츠 서비스	0.21	5.5
부가 서비스	0.17	5.2
보조금	0.02	5.2
회사 이미지	0.05	5.1
가입자 수	0.02	4.7
회사규모	0.05	4.6

카자흐스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가격, 이미지, 통화품질, 접속속도, 서비스 지역을 가장 많이 고려해 휴대폰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의 이미지 보다는 서비스와 품질의 특징도 또한 브랜드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욱더 고품질, 다양화 되면서 점차적으로 휴대폰 시장의 업체들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부가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ISP 는 전화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 KazakTelcom 을 비롯해서 이 회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Nursat, Astel, KazTransCom, Golden Telecom 등의 대형 프로바이더와 2 Day Telecom 등 소형 프로바이더 등으로 구분된다. KazakTelecom 은 'Megaline'이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케이블 임대서비스 및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영 통신회사다. Nursat 는 자사 소유의 광케이블과 동선 케이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CIS 권에서는 자사 소유 위성 케이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Astel 은 고품질 위성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무선인터넷, 유선인터넷, 전화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KazTransCom 과 Golden Telecom 등도 다른 회사와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도 알마티 국제공항, 일부 레스토랑, 백화점, 일부 대학 등지에서 무선 인터넷인 Wi-Fi 를 이용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은 PC 와 노트북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생겨난 새로운 접속 형태의 하나로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인터넷 접속 형태에 불만을 가져온 소비자들에 의해 그 수요는 촉진되고 있는 추세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는 인터넷 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터넷 환경이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의 발전 정도나 고비용 사회로 진입하는 여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IT 시장은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의 IT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음. 광활한 영토에 광통신망을 깔아야 하는 비용부담, 인터넷 사용 확대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빨리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정권차원에서의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제기될 수 있으나 IT 시장의 확장세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업이 카자흐스탄 IT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한국의 IT 환경과 카자흐스탄의 IT 환경에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적용되는 기술제품의 수준 및 담당 공무원이나 비즈니스맨의 마인드 등에서 괴리가 크다는 점을 항상 유의 해야겠다.

5) 농업

카자흐스탄은 세계 10대 곡물 생산국가이자 CIS 국가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뒤를 이어 제 3위의 곡물 생산국가로서 전체 GDP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수준이다. 전체 농지 규모는 2005년 기준 14,842,000 ha 이며, 주요 농업 지대는 코스타나이스카야 주(14.2%), 알마틴스카야 주(13.6%), 남카자흐스탄 주(12.3%), 북카자흐스탄 주(12.1%), 아크롤린스카야 주(11.7%), 동카자흐스탄 주(9.9%) 등이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농업분야는 높은 물류비용과 낙후된 생산설비로 인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4-2010년 농업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농업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생산성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 이외에 카자흐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생산국으로서 세계 생산량의 0.5%인 40만 톤의 면화를 매년 생산하고 있어 면화를 이용한 섬유산업 발전 추진 잠재력이 높은 상황이다. 면화 재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남 카자흐스탄 주이다.

카자흐스탄 지역별 곡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규모	14,777.4	12,374.2	13,781.4	16,511.5	20,137.8	15,578.2
아크몰라 주	3,112.2	2,475.4	2,966.8	3,475.9	4,456.1	3,011.6
악튜빈스크 주	542.0	373.9	220.7	129.3	459.2	553.6
알마티 주	1,058.8	977.2	979.8	967.3	1,059.5	659.7
악티라우 주	1.2	0.4	0.1	0.1	0.1	0.4
서부 카자흐스탄 주	614.7	672.4	561.4	516.4	711.5	196.0
잠볼 주	795.2	676.8	655.1	431.1	425.9	152.5
서부 카자흐스탄 주	611.1	371.1	149.6	271.0	422.9	714.4
카라간다 주	608.0	570.0	269.8	401.7	554.1	350.0
키즐오르다 주	256.6	252.3	259.2	256.2	263.3	218.3
코트사나이 주	3,337.6	2,393.0	3,537.2	4,733.0	5,899.3	4,790.2
망기스타우 주	0	0	0	0	0	0
파블오르다 주	294.8	354.9	286.6	354.7	514.8	185.6
북부 카자흐스탄 주	3,047.3	2,782.4	3,493.4	4,613.0	5,027.9	4,550.2
남부 카자흐스탄 주	497.4	474.1	400.6	361.0	342.4	195.3
알마티 시	0.2	0.3	0.5	0.2	0.3	0.1
아스타나 시	0.3	0	0.6	0.6	0.6	0.5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밀 수출동향(HS Code : 100190)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상반기	2008 점유율	2009 점유율
총 액	477.5	946.0	318.9	100	100
이란	24.3	0	80.3	0	25.2
아프가니스탄	6.2	10.5	44.1	1.1	13.8
투르크메니스탄	19.3	42.9	40.4	4.5	12.7
키르기즈스탄	15.5	29.7	33.2	3.2	10.4
타지키즈스탄	57.9	11.3	28.7	1.2	9.0
터키	4.2	166.4	28.3	17.6	8.9
그리스	2.3	1.3	16.1	0.1	5.1
우즈베키스탄	10.9	15.2	11.2	1.6	3.5
아르제르바이잔	61.0	9.6	11.2	1.0	3.5
노르웨이	4.9	89.7	10.0	9.5	3.1

자료: WTA

카자흐스탄 쌀 수출동향(HS Code : 1006)

(단위 : 백만달러, %)

	2007	2008	2009 상반기	2008 점유율	2009 점유율
총 액	3.4	12.2	2.7	100	100
이탈리아	0.3	0.2	0.9	1.4	33.8
러시아	2.1	8.2	0.5	67.6	19.3
우크라이나	0.6	1.7	0.5	14.3	16.0
벨라루시	0.4	0.8	0.4	6.7	14.3
우즈베키스탄	0	0	0.3	0	9.6
투르크메니스탄	0	0.05	0.2	0.4	6.8
키르기즈스탄	0	0.02	0	0.2	0.03
중국	0	0	0	0	0.01
스페인	0	0.2	0	0	0
타지키즈스탄	0.02	0.1	0	1.2	0

자료: WTA

6) 금융산업**□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2001년부터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금융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GDP 대비 금융분야 자산규모는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에 필적하는 수준이고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부문의 GDP대비 총 자산증가율은 2002년 이후 연평균 60%에 달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69.2%라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 가운데 금융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1~2005년간 연평균 56.9%의 대출 신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 은행은 평균 2배 이상의 자산규모 성장과 함께 순이익도 평균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금융 분야 발전 추진에 힘입어 금융 분야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경색에 따라 2007년도 금융성장은 2006년도에 비해 급하강 하였으나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알마티를 중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알마티에 “알마티 금융센터(Regional Financial Center of Almaty City: RFCA)” 건설하고 있어 이에 그 향방이 가려질 예정이다.

금융분야 성장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11
자산(단위: 억 달러)	588	942	1220	570
명목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	69.1	88.9	92%	55.1
성장률	N/A	60.2	29%	-53.3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적절한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거시경제지표와 환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노르웨이의 Petroleum Fund와 같은 성격인 National Fund를 설립하여 원유, 가스 및 기타자원 판매 정부수입을 적립하면서 그것을 통해 과잉유동성 공급을 완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영향을 피해갈수 없었는데, 카자흐스탄 시중은행이 2006년도에만 약 150억 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하여 대부분의 차입금을 건설사업 지원 및 모기지론 등 리테일 영업에 활용한 결과이다. 전체 모기지의 70~90% 가량이 주택 모기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중반 이후 주택가격이 이미 30% 이상 하락하여 개인대출자들의 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부동산 대출자금 유동자금의 급격한 저하로 2009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속되었었다

2009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정부지원금이 약 47억달러가 투입되었으나 국유화된 BTA와 Alliance의 해외채무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시중은행의 NPLs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의 채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은 100%이상 증가시킬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2009년 하반기 내에 BTA와 Alliance가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BTA의 지분이 해외에 매각(러시아 Sberbank) 되는 등 강력한 금융권 안정화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IMF나 EIU와 같은 국제전문 기관들은 카자흐스탄 금융권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에 예정대로 RFCA(Regional Financial Center in Almaty)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RFCA 는 현 증권거래소를 병합, 명실상부한 중앙아 금융 허브로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카자흐스탄 경제는 국제경제체제에 급속하게 편입되는 한편, 국제경제 변동에 더욱 노출되어 해외 대규모 투자자들의 개입 여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번 금융 위기를 잘 극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외자를 활용하고, 재정·금융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1997년 동남아에서 촉발된 IMF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은행 중심의 경쟁

카자흐스탄 은행시장의 경쟁 현황은 대형은행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형태로서 '06년 말 은행권 총자산 규모는 선진국 중형은행 자산 수준인 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총 34개 은행이 영업 중이나 3개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초과하고, 상위 6개 은행이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KKB, BTA 및 Halyk Bank의 상위 3대 은행을 뒤를 쫓는 Alliance, ATF, BCC는 공격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최근 상위은행보다 1.4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 중소형 은행들의 생존 노력

중소형은행들은 인수합병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추구하고 있으며, 수도인 Almaty에 6대 상위은행이 본사를 두는 등 영업이 집중화되어 있으나 최근 지방 주요도시에 영업망을 확대하며 적극 진출 중이다. 2001년 민영화 이전에는 Halyk Bank가 주로 지방에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인 및 중소기업영업을 강화한 시중은행들이 금융자산비율이 낮은 지방 시장 공략을 확대 중이다.

□ 외국으로의 진출 시도하는 대형은행

한편, 대형은행들은 CIS권 등 국외진출을 모색 중인데, 카자흐스탄 국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대형은행 중심으로 러시아 등 CIS국가로 영업영역을 확대하여 대형화 추진 중이다. Kazkommertsbank(KKB)와 Bank Turan Alem(BTA)는 자체 러시아 진출 외에 러시아 은행에 대한 지분 확보를 통해 진출에 속도를 붙이고 있고, 특히 BTA와 그 주주들은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그루지아 등 CIS 4개국의 소형은행들에 대한 지분확보를 통해 Pan-CIS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이다.

최근 카자흐은행의 국외진출 추진사례

	대상은행	지분	시기
Kazcommertsbank	키르기즈스탄 Kizskommertsbank (자산규모 2억 달러)	72%	2002
	러시아 Moskommertsbank (자산규모 6.3억 달러)	52%	2007
Bank TuranAlem	러시아 Slavinvestbank (자산규모 6.5억 달러)	16%	2006

자료: Fitch

□ 종합금융그룹화를 시도하는 대형은행들

카자흐스탄 금융기관 수

은행	주택금융	보험사	연금	기타	계
37	8	43	14	17	119

카자흐스탄은 은행업, 증권업 이외의 자산관리, 보험, 연기금 등의 금융서비스업은 아직 초창기 단계이나, 시장 선점을 위하여 7개 은행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등 신규 시장 진출 본격화 중이다. 특히 연금 분야는 급여의 10%의 연금 납입 의무가 적용된 2005년 연금개혁 실시 이후 가입자 8.54백만 명 확보, 운용자산이 50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험분야는 1998년 자동차보험 도입으로 시작되어 40여 개사가 영업 중이나, 아직까지는 보험문화의 미성숙으로 기업체 영업 관련 보험 위주로 총 자산 11 억달러 수준의 초창기 단계이며 생보사는 5개가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1997년에 개장된 카자흐 증권거래소(KASE)에는 총 69개 종목상장, 일 평균거래량 25백만 달러, 시가총액 657억 달러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알마티 지역금융센터에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 추진, 연기금 증시 투자 확대 등 정부의 증권시장 활성화 의지에 따라 증권 분야는 지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

카자흐의 협소한 시장규모로 인하여 현재까지 외국계은행들은 자원개발사 등 국제적인 기업고객 지원 중심으로 진출하여 은행권 총자산의 5% 미만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상반기 ABN Amor 1.9%, Citi 1.3%, HSBC 1.9% 정도이다.

외국계은행은 외화부채에 대한 8% 준비금 적립 등 국내은행에 비하여 조달여건이 불리하고 15% 특별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외국계은행의 경쟁 제한 및 M&A로부터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웠으나, WTO 가입을 위하여 외국계 자본 참여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제거되고 있어 향후 소비자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한 진출 전망된다.

최근 외국계 은행의 진출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은행의 BCC 지분 참여로, 2008년까지 30.5% BCC 지분을 인수하였다. 현재 국민은행의 BCC 인수팀이 파견되어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전수중에 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50%이상의 지분인수를, 국제금융협회와 공동 인수 계획으로 바꾸고, 약 35%의 지분인수로 대주주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국민은행의 BCC 지분인수 계획변경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 국유화 은행 구조조정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Anti-crisi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BTA(제 1위 은행)와 Alliance(제 2위 은행)를 국유화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BTA의 경우 2009년 상반기 기준 해외채무가 120억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은행 해외채무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근 BTA와 Alliance가 채무구조를 Restructuring하면서 NPL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자산 감소 등 난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보아 금번 조치가 필연적 결과 라는게 다수의 입장이다.

7) 전력산업

카자흐스탄의 총 전력선은 460,000 Km이며 최초의 국제전력선인 시베리아-카자흐스탄-우랄 전력선 (1,900 Km)이 설치되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동 전력선의 카자흐스탄 남북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력발전소 5개를 포함해 71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총 발전량은 17GW로 이중 화력이 88%, 수력이 12%를 차지 화력발전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수력발전소는 주로 이티시강에 위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이미 독립 직후인 1992년부터 전력분야 인프라 부족 및 낙후로 인해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발전·송전 설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뒤따르지 못해 전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07년 5월 17일 에너지·광물자원부 직원은 2009년 카자흐스탄의 전력수요가 857 Bk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약 40억 Bkwh의 전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전측면에서도 알마티 등 카자흐스탄 내부의 경우 키르기즈스탄 등 해외에서 전력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한편,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라는

점에서 송전선 개선 및 확충도 긴요한 상황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송전선이 낙후 되고 송전거리도 285,000 마일에 달할 정도로 길어 생산된 전력의 약 15%가 송전 중 손실 되고 있는 상황이다.

Turganov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카자흐스탄 발전분야 개발행동계획에 따르면 2015년 까지 2조7,000억~2조8,000억 텡게(약 22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동 자금은 예산, 파이낸스, 기업 자금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전 분야 개발을 위한 중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9년 전력 부족은 5~6%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자흐·중국 정부는 파블로다르 지역(카자흐 북부)에 위치한 에키바스투즈 석탄광산에 7,200MW 급 발전소를 건설, 생산 전력 전부를 중국으로 송전하는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었으나, 카자흐 정부측이 동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중국측에 통보, 동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카자흐 정부가 원유 자원뿐만 아니라 발전 분야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필요 시 계약 또는 협의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자흐 내 민족주의 경향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카자흐스탄, 지하자원이용법 개정(2007년 10~12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샤간 광구 탐사 계약과 관련, 이탈리아 Eni 사를 주축으로 한 국제 석유 메이저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Agip KCO 측이 당초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계약자 변경 가능성을 포함하여 계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Agip KCO 측과 진행 중이다.

카샤간 유전은 전체 부존 매장량 380억 배럴, 가채 매장량 90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으로서 본격 생산이 개시되면 일일 생산량이 약 1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2015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3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130만 배럴) 카자흐스탄 정부 계획상의 핵심 유전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Nigmatulin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하원 환경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국익 수호를 위해 외국 기업과의 국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하자원이용법(Law of Subsoil and Subsoil Use)” 개정안 마련, 입법화를 추진하였는 바, 동 개정안은 9.27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10.24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 카샤간 광구 계약 변경 협상 추진 및 타결 동향

Eni 사는 2007.6월 카샤간 광구의 생산 개시 일정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고 동 유전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예상 570억 달러에서 1,360억 달러로 증액이 불가 피함을 카자흐스탄 정부측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카샤간 광구 개발 관련 Agip KCO 와 카자흐 정부 간 분쟁 표면화 되었다. 마시모프 총리는 이를 Agip KCO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라고 하면서, 계약 재검토 등 강경 입장을 밝히고, ① Eni 사의 주사업자로서의 지위 재검토, ② 1997년 체결 PSA 계약상 카자흐 정부의 이익 배당을 10%에서 40%로 증액, ③ 생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Agip KCO 에 조건으로 제시하고 협상 진행 중이었다.

카사간 광구를 둘러싼 카자흐 정부의 강경 입장은 동 광구 개발 지연이 초래할 경제 발전 계획상의 차질에 대한 현실적 우려(Eni 의 보고와 같이 본격 생산 시점이 2010-11년 경으로 연장되고 생산 비용이 1,360억 달러로 증액되는 경우, 카자흐 정부가 당초 2015년 으로 계획하였던 일산 300만 배럴 원유 생산 시점은 2020년 경으로 늦추어지며, PSA 계약에 따라 컨소시엄이 투자 이익을 회수하여 카자흐 정부가 생산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시점은 2025년 경이 될 것으로 예상) 및 이를 계기로 하여 PSA 계약을 카자흐 측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하여 국익을 수호하는 정부로서의 인상을 국민에게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는 물론 EU 측은 동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Agip KCO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고위 대표단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등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하원 환경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국가안보법(Law on National Security) 상에 “카자흐스탄 전략 자원의 이용에 관한 계약 이행시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 보호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하자원이용법”이 동 국가안보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가안보법에 부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Nigmatulin 하원의원은 지하자원이용법이 개정될 경우, 카사간 광구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하자원이용법 개정 추진이 카사간 광구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 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원 개발자가 카자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정도로 카자흐 경제 이해에 반하는 영향을 끼칠 경우, 카자흐 정부는 카자흐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해 동 지하자원 개발자 및/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일방적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전략 자원 개발 에 관한 계약이 국가 안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 할 수 있는 권한을 카자흐 정부에 부여했다.

개정 법안의 내용은, ①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계약 종결/변경 필요 통보를 받은 자원 개발자가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한 협상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 협상을 거부할 경우, ② 자원 개발자가 동 협상에 참여, 4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③ 자원 개발자가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른 후 6개월 이내에 합의 사항이 반영된 신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자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 보유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1개월 기간 부여 등 개정 시점 이전에 체결된 전략적 에너지·광물자원 탐사 및 생산 계약에도 적용한다.

전략 자원은 카자흐스탄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양도 시 카자흐스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으로 정의되며, 소유권(국유 또는 사유)과 관계없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필요 시 전략 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 전략 자원에는 주요 원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국가 송전망, 주요 항만 시설, 카자흐스탄 정부 및 국민의 전략자원 개발 등 사업 참여권 등이 있다.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 실질적으로 발효되면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경제적 국가 이익을 정의할 수 있으며, 동 경제적 국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항시 계약 파기 가능하다. 자원 개발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계약 파기 결정 시 자원 개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 또는 중재재판 등 구제절차 불가능하다. 사유화된 전략 자원의 경우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동의 없이 양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카자흐 정부가 우선 구매권 보유한다.

카자흐스탄 주재 외국 지상사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이 카사간 광구 재협상 카드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 동 개정안은 그간 카자흐 정부가 일관적으로 유지해온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한 외국 투자 개방 및 계약 준수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
- 카자흐 정부에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계약 변경 및 파기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카자흐에 대한 국제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카자흐가 추진 중인 중앙아 금융 허브 구축 정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 카자흐 의회 및 정부 측은 동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원유자원 국유화 추진 과정에서 입법 자문을 맡았던 미국계 로펌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유화로 인해 외국 투자가 급감함으로써 오히려 국익에 크게 반했다는 선례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원개발을 위해 카자흐가 충분한 자금 및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협조 관계 유지 필요성

현재 카자흐스탄의 자본력 및 기술력 수준 감안시 자원 등 개발에 외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주요 외교 목표로 추진 중인 세계 경쟁력 국가 50위 진입, WTO 가입, 2011년 OSCE 의장국 수임 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 투명성 제고 및 개방성 확대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하자원이용법” 개정은 카사간 광구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었다.

그러나 2007년 11월 개정안 발효로, 2008년 초 실질적인 카사간 분쟁은 종결되었으며, 그 결과로는 카자흐스탄 국영기업 KazMunaiGas(KMG)의 지분을 8.33%에서 16.81%로 확대시켰다. 이와 더불어 ENI 사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벌칙금 20억 달러 가량을 회수했으며 향후 50억에서 100억 달러 가량의 벌칙금을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카사간 광구 문제가 경제적 이익 실현과 함께 카자흐스탄 정치지도자들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가졌다는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내 자원 민족주의 경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카자흐스탄은 2007년 12월 말까지 세계 어느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WTO 가입을 목표로 자국의 경제 개방 수준을 WTO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부 개입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새로운 입법 조치 등을 추진했으나, WTO에는 가입하지 못했다.

WTO 가입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터키, 중국과 양자 협상을 종결한 상태이며,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16일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에 110여 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현재는 CIS회원국이며, UN, IMF, World Bank, EBRD, ADB, IFC, ISDB 등의 회원국이다.

EU와 미국은 카자흐스탄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WTO 가입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각종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CIS 회원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과는 관세동맹국가로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 2000년 이후 교역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수출은 '98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자원수출이 증가하면서 급증 추세
- 주요 교역 품목으로, 수출은 원유, 가스 및 광물 등 자원분야(68.2%)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철강 (20%), 곡류(3.3%) 순이며, 수입은 자원개발 관련 장비 등 기계류 (19.7%), 광물자원(15%), 금속(9%), 수송기기(8.8%) 순임.
- 주요 수출국은 종래의 CIS 지역 일변도에서, 다른 지역으로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CIS(16.6%), EU(42.7%), 중국(12.1%) 등임.
 - 2008년 상반기 수출지역 특이점으로, 일본(110.4%↑), 터키(103.8%↑), 노르웨이 (95.5%↑), 이스라엘(114.1%↑) 수출 급증으로, 노르웨이의 경우 국물 수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원유 및 가스 수출가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 반면, 주요 수입국은 여전히 CIS(44.28%)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12.03%), 독일(6.79%), 미국(5.09%), 일본(2.58%) 등 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연도별 카자흐스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6 월)
교역량	32,579 (N/A)	45,161 (38.6)	61,708 (36.6)	79,576 (28.9)	108,987 (36.9)	30,342 (-36.4%)
수출	19,942 (N/A)	27,690 (38.8)	38,013 (37.2)	46,976 (23.5)	71,171 (51.5)	17,172 (-51.0%)
수입	12,637 (N/A)	17,471 (38.3)	23,695 (35.6)	32,600 (37.5)	37,816 (16.0)	13,170 (-22.87)
무역수지	7,305	10,219	14,318	14,376	33,355	4,002

주: WTA

나. 교역대상국별 품목 및 동향 수출입통계

2006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	수입
광물 제품 (72.7%)	기계 및 장비류 (45.4%)
비금속 (15.7%)	광물 제품 (13.8%)
화학 제품 (4.0%)	비금속 (13.4%)
식품 및 관련 재료 (2.6%)	화학 제품 (11.0%)
기계 (1.7%)	식품 및 관련 재료 (7.1%)
기타 (3.3%)	기타 (9.3%)

2007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	수입
광물 제품 (67.6%)	기계 및 장비류 (46.9%)
비금속 (18.0%)	비금속 (13.8%)
화학 제품 (4.7%)	광물 제품 (12.6%)
식품 및 관련 재료 (4.4%)	화학 제품 (10.9%)
기계 (1.9%)	식품 및 관련 재료 (6.9%)
기타 (3.5%)	기타 (8.8%)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2008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	수입
광물 제품 (68.3%)	기계 및 장비류 (19.7%)
금속 (9.1%)	석유 및 가스, 광물(가공) (15.7%)
비금속 (3.5%)	금속 (9.1%)
곡물 및 관련 제품(3.3%)	운송차량 (8.8%)
금속원석 (3.0%)	전기 및 전자제품 (6.8%)
기타 (12.8%)	기타 (39.9%)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2007년 카자흐스탄 주요 국가별 교역동향

	수 입				수 출				총 계
	순위	규모 (백만달러)	점유율(%)	증감률(%)	순위	규모 (백만달러)	점유율(%)	증감률(%)	
러시아	1	11,502	35.8	26.9	4	4,225	9.0	17.0	15,727
중국	2	3,507	10.7	82.0	3	5,562	11.8	55.6	9,069
독일	3	2,585	7.9	42.7	18	383	0.8	-30.0	2,968
미국	4	1,611	4.9	46.4	22	349	0.7	-16.3	1,960
우크라이나	5	1,517	4.6	54.1	9	1,113	2.3	78.6	2,630
일본	6	1,369	4.2	49.8	19	382	0.8	78.6	1,751
이탈리아	7	1,130	3.4	-21.0	1	7,774	16.5	12.7	8,904
터키	8	958	2.9	71.2	11	934	1.9	171.2	1,892
영국	9	736	2.2	44.1	8	1,133	2.4	-0.9	1,869
프랑스	10	705	2.1	52.7	5	3,836	8.1	15.6	4,541
한국	11	625	1.9	74.1	26	217	0.4	1.1	842
우즈베키스탄	12	538	1.6	68.7	12	871	1.8	127.9	1,409
폴란드	13	396	1.2	27.9	25	256	0.5	25.6	652
벨로루시	14	395	1.2	38.8	31	129	0.2	82	524
네덜란드	15	375	1.5	96.4	6	2,462	5.2	44.5	2,837
핀란드	17	307	0.7	154.2	15	412	0.8	46.4	719
스위스	18	97	0.7	154.2	2	7,475	15.9	11.2	7,572
이스라엘	28	133	0.4	-22.5	10	1,058	2.2	70.1	1,191
스페인	29	130	0.4	75.1	13	775	1.6	-19.9	905
루마니아	38	70	0.2	-13.8	14	686	1.4	-8.1	756
이란	47	44	0.1	124.2	7	2,451	5.2	18.0	2,498
기타		3,707				4,483			8,190
총 계		32,600	100	37.5		46,976	100	23.5	79,576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2008년 카자흐스탄 주요 국가별 교역동향

	수출				수입				총계
	순위	규모	증감율	점유율	순위	규모	증감율	점유율	
러시아	1	13,765.5	36.33	19.7	4	6,228	10.1	47.4	19,993.5
중국	2	4,560	12.03	30	3	7,676.6	12.1	38	12,236.6
독일	3	2,573.5	6.79	-0.44	14	614.1	0.9	0.6	3,187.6
우크라이나	4	2,105.2	5.55	38.8	8	2,003.3	2.9	79.9	4,108.5
미국	5	1,928.8	5.09	19.7	15	579.5	0.9	66	2,508.3
이탈리아	6	1,240.8	3.27	9.8	1	11,920.3	18.7	53.3	13,161.1
일본	7	979.3	2.58	-28.5	13	803.9	1.2	110.4	1,783.2
터키	8	971.3	2.56	-1.4	9	1,903.7	3.8	103.8	2,875
프랑스	9	812.8	2.14	15.3	5	5,388.6	7.7	40.4	6,201.4
노르웨이	10	695	1.83	572.1	10	48.1	0.2	95.5	743.1
영국	11	688.9	1.81	-6.4	11	1,810.4	2.6	59.7	2,499.3
우즈베키스탄	12	516	1.36	-4.1	12	1,272.1	3.1	46	1,788.1
핀란드	13	506	1.33	64.8	14	634.1	1	53.9	1,140.1
폴란드	14	426.4	1.12	7.4	16	461.5	0.7	79.6	887.9
한국	15	423.3	1.11	-32.2	18	330.8	0.5	52.4	754.1*
벨라루시	16	396.2	1.04	0.3	19	170.8	0.5	32.4	567
캐나다	17	329.4	0.86	82.3	17	398.1	0.8	-5.3	727.5
오스트리아	18	315.9	0.83	37.8	22	3.1	0.2	10.7	319
네덜란드	19	275.8	0.72	-26.5	6	4,638.6	7.6	88.3	4,914.4
이스라엘	20	204.8	0.54	53.9	7	2,265.5	4.4	114.1	2,470.3
UAE	21	204.5	0.53	-17.4	20	90.4	0.4	67	294.9
스위스	22	162.5	0.42	67.5	2	11,281.3	3.1	50.9	11,443.8
기타		3807.1	10.16	2.7		10,660.5	16.6	137.7	14,467.6
총 계		37,889	100	16.2		71,183.3	100	51.3	109,072.5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2009년 카자흐스탄 주요 국가별 교역동향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1Q	1992~ 2009.1Q
총 계	6,618.6	10,568.6	17,466.1	19,809.1	3,340.2	108,986.6
네덜란드	1,549.2	2,877.3	3,072.0	4,349.3	937.8	24,022.0
미국	1,131.5	1,694.7	2,441.6	2,059.5	535.8	14,594.7
오스트리아	59.8	74.9	2,344.0	133.2	-12.7	5,138.6
프랑스	774.7	802.3	1,022.6	1,203.8	234.1	7,300.3
러시아	223.5	490.9	751.2	851.4	121.7	4,653.9
영국	-61.1	852.3	720.0	1,797.2	206.7	7,091.3
영국령 버진제도	268.8	503.9	1,745.7	1,590.9	120.5	8,190.8
스위스	103.4	234.6	633.0	143.9	15.6	2,157.6
이탈리아	306.6	376.1	517.2	693.1	137.6	3,754.6
일본	335.0	342.6	405.3	456.3	103.2	2,949.8
리비아	335.9	338.8	403.6	486.8	98.6	2,991.5
중국	216.1	360.3	351.5	692.4	212.7	3,449.9
터키	72.7	92.9	329.2	183.6	0	1,284.1
캐나다	247.0	437.1	314.1	944.8	-24.4	3,590.2
한국	57.6	248.6	262.2	883.4	19.1	2,884.2
기 타	998.0	842.2	2,064.4	3,339.5	633.90	14,758.0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9월 현재 최신 통계자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우리나라의 최근 카자흐스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품목코드)	2007		2008		2009(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화학제품(21)	55,444	46.5	53,068	-4.3	48,474	7.9
2	수송기계 (74)	164,167	82	72,524	-55.8	34,529	-40.9
3	산업용전자제품(81)	40,002	125.4	14,978	-62.6	22,859	120.1
4	가정용전자제품(82)	68,709	29.3	37,621	-45.2	22,845	-11.2
5	철강제품(61)	28,011	85.3	16,734	-40.3	17,619	45.6
6	농산물(01)	15,132	33.5	23,045	52.3	16,126	-10.2
7	전자부품(83)	10,076	-20.5	13,191	30.9	9,376	11.8
8	기초산업기계(71)	30,585	9.9	31,568	3.2	7,022	-74.7
9	플라스틱제품(31)	10,126	160	7,857	-22.4	6,956	20.8
10	산업기계(72)	39,180	88.4	29,135	-25.6	6,670	-73.1
11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25)	2,700	45.6	4,182	54.9	4,996	104.8
12	정밀화학제품(22)	5,135	116.5	3,511	-31.6	3,857	45.6
13	고무제품(32)	4,503	42.4	6,091	35.3	3,642	-33.9
14	광물성연료 (13)	3,034	24.7	2,891	-4.7	2,633	34.6
15	중전(heavy electric) 기기(84)	7,966	343	5,131	-35.6	2,333	-46.7
16	직물(43)	3,232	-30.1	3,267	1.1	2,679	16.9
17	섬유제품(44)	3,287	27.1	3,566	8.5	2,463	-2.8
18	비철금속제품(62)	5,887	155.5	4,513	-23.3	2,180	-41.3
19	기계요소공구및금형(75)	2,667	320	2,358	-11.6	1,906	7
20	축산물(02)	1,988	141.5	3,354	68.7	1,117	-57.6
21	정밀기계(73)	1,419	-27.5	1,187	-16.4	1,197	39.1
22	기타화학공업제품(29)	418	34.5	736	76.1	716	25.4
23	전선(85)	5,348	322.5	209	-96.1	517	255.2
24	기타 철강금속제품(69)	2,699	178.4	1,170	-56.6	430	-25.8
25	문구(55)	347	81.8	308	-11.1	413	41.9
26	기타기계류 (79)	5,052	67.9	1,208	-76.1	370	-14.5

27	임산물(03)	5,831	1,130.80	928	-84.1	333	-18.3
28	신변잡화(51)	289	121.7	333	15.3	271	13.3
29	요업제품 (24)	4,748	1,986.30	151	-96.8	171	36.5
30	가구(52)	15,042	3,678.40	1,269	-91.6	241	-79.8
31	수산물(04)	100	554.5	205	105.2	191	21
32	비료(23)	0	0	0	0	170	-
33	운동및취미오락기구(54)	470	107.3	224	-52.4	85	-61.7
34	기타잡제품 (99)	217	170.4	333	53.7	170	-38.2
35	섬유원료 (41)	186	48.8	179	-3.9	117	7
36	완구(56)	203	216.7	119	-41	107	-1.6
37	의료위생용품(95)	52	-38.6	94	79.2	95	165.9
38	비금속광물 (12)	335	-	63	-81.2	45	-27.7
39	악기(53)	9	-	3	-70.9	60	74,351.30
40	인쇄물(91)	46	-87.7	22	-51.8	44	104.6
41	안경및콘택트렌즈(94)	547	2,270.40	14	-97.5	22	61.8
42	식탁용구(63)	18	2,194.40	39	119.2	26	210.8
43	섬유사(42)	0	0	0	0	18	-
44	기타생활용품(59)	48	-68	44	-8.6	15	-66.1
45	마찰및연마제품(27)	159	3.8	96	-39.7	13	-85.6
46	가발및가늌(98)	0	-	84	-	2	-
47	공예품(57)	114	707.9	37	-68	9	-74.1
48	주화및컨테이너(64)	21	3,831.90	0	-99.9	1	-
49	수집품(93)	0	-	0	-	0	60
	합 계	545,978	68.6	347,736	-36.3	251,447	-17.6

자료: KITA

우리나라의 최근 카자흐스탄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품목번호	2007		2008		2009(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철강제품(61)	127,036	-26	246,658	94.2	80,420	-64.7
2	광물성 연료(13)	0	-	0	-	28,228	-
3	비철금속제품(62)	55,656	291.4	82,029	47.4	26,729	-61.3
4	정밀화학제품(22)	5,303	153.5	5,235	-1.3	2,452	-51.4
5	기초산업기계(71)	0	-	2	-	189	9,138.00
6	농산물(01)	10	-97.1	143	1,335	119	33.7
7	섬유제품(44)	29	405.7	56	91.3	96	98.9
8	인쇄물(91)	117	137	133	13.4	87	12.3
9	금속광물(11)	68,008	-19.4	15,821	-76.7	57	-99.6
10	산업용전자 제품(81)	7	-70.9	85	1070	39	-49.2
11	정밀기계(73)	0	-	4	-	9	154.6
12	플라스틱제품(31)	0	-	0	-	5	-
13	문구(55)	0	-	4	-	5	185.8
14	악기(53)	0	-	0	-	2	-
15	신변잡화(51)	0	-	0	-	2	2,011.70
16	전자부품(83)	0	-	6	-	2	-52.4
17	요업제품(24)	0	-	0	-	1	-
18	가정용전자제품(82)	8	813.6	15	98.3	1	-82.4
19	기계요소공구및금형(75)	0	-	15	-	1	-95.2
20	완구(56)	0	-	0	-	1	-
21	석유화학제품(21)	0	-	2	-	0	-80.5
22	공예품(57)	0	-	0	-	0	-
23	기타잡제품(99)	0	-	2	-	0	-92.1
24	가구(52)	0	-	0	-	0	-
	총계	256,767	-6.9	350,457	36.5	138,447	-56.4

자료: KITA

가.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연도별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0월)
교역량	370,269 (87.2)	517,979 (39.9)	514,163 (-0.74)	599,697 (16.6)	802,735 (33.8)	698,193 (-13.0)	389,894 (-64.0)
수출	217,174 (72.2)	313,950 (44.6)	272,558 (-13.2)	323,815 (18.8)	545,978 (68.6)	347,736 (-36.3)	251,447 (-17.6)
수입	153,095 (113.6)	204,029 (33.3)	241,605 (18.4)	275,882 (14.2)	256,767 (1.1)	350,457 (36.5)	138,447 (-56.4)
무역수지	64,079	109,921	30,953	47,933	289,221	-2,721	113,000

주: ()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나. 교역규모

- 2003년: 3억 7,000만 달러(87.3% ↑)
- 2004년: 5억 1,700만 달러(59.3% ↑)
- 2005년: 5억 1,400만 달러(0.83% ↓)
- 2006년: 5억 9,900만 달러(16.6%↑)
- 2007년: 8억 2,700만 달러(33.8% ↑)
- 2008년: 6억 9,800만 달러(-13.0% ↓)
- 2009년 10월: 3억 89,89만 달러(-64.0↓)

다. 우리나라의 對 카자흐스탄 수출 동향

- 200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던 수출 부진이 2006년 하반기부터 회복 후, 2007년까지 수출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수출 급감
 - 2006년 18.8% 증가로 마감되었던 수출이 2007년 대폭 증가되어 증가율 68.6% 마감
 - 전체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가전, 휴대폰 등 일부 주력품목들이 2005년 하반기 이후 직수출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로 2006년 -4.8%로 마감되었으나, 2007년 꾸준한 증가로 증가율 29.3%로 마감
 - 2006년 69.8%로 마감되었던 수송기계 품목들이 2007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증가율 82%로 마감하였으며 수송기계 품목 중 자동차 수출은 2007년 '06년 대비 158% 증가
 -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무역흑자를 주도했던 수출품(수송기계, 가전, 철강 등)들이 하반기 카자흐스탄 경기 위축으로 큰 감소세를 보여
- 2009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금융권의 정책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도가 점차 악화되어 2009년 상반기내 대 카자흐스탄 한국수출 감소세의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 국제신용도 악화로 한국 금융권 보증 카자흐스탄 연불수출 신용대출 중단문제 해결과 신용대출여력 바이어 발굴이 관건
- 2009년 상반기 기준 대 카자흐스탄 수출품목 중 철강제품(합코일,파이프) 증가(115.3%↑)와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의 증가(153.6%↑)는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음.

라. 우리나라의 對 카자흐스탄 수입 동향

- 1996년 최초로 1억불 대(1.25억) 진입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03년 재진입 (1.53억불)하고 2004년 2억불 대 돌파 (33.3%↑)
- 2006년 들어 상반기 내내 감소세를 유지하다 하반기부터 상승기조로 반전, 2006년 말 '05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나 2007년 다시 -6.9%로 감소
- 대 카자흐스탄 수입은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2008년 상반기까지 급증한 국제원부자재 가격으로 '07년 대비 전체 수입량이 36.5%로 증가
-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 카자흐스탄 수입은 급격히 줄고 있으나 2009년 초 우라늄 수입이 처음으로 통계에 집계되었다는 것이 특이점임.
 - 조사에 따르면 금번 우라늄 수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우라늄 장기공급체결에 따라 발생된 것이 아닌 Spot 으로 이루어진 민간 수입으로 추정되며 이전의 대 한국 카자흐스탄 우라늄 공급은 3국을 경유(가공)로 이루어졌기에 한국 통계에 집계되고 있지 않았음.
 - 금액(약 2800만달러) 대비 물량(약 16톤)으로 비추어, 원석 수입이 아닌 성형된 우라늄 일 것으로 추정

(자료: 한국관세청, WTA)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수출입 관련 국제법이나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수출입품이 금지되지 않으면 개인이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외국으로 제품 및 차량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또는 정부는 제품 및 차량에 대한 수출입 쿼타 또는 수출입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출금지 품목

-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
 - 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 예술품, 골동품, 문화재, 과학 희귀용품
 - 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의 특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 Red Book 에 등록된 동식물
 - 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 마약류, 향정신의약품
 - 동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 취소 증권

다. 수입금지 품목

Antiques, Artwork-Fine, Batteries-Haz, Bearer documents, Bio Products-Haz, Bunker Oil for sample/analysis, Ceramic Products, Chemicals-Haz, Corrosives, Cosmetics-Haz, Credit Card Blanks, Credit Cards, Cyclamate, Devices for smoking opium or hashish, Drugs-Prescription, Flammables, Fire Extinguishers, Furs, Gambling Devices, Gases, Gold, Graphite Products, Ice-Blue, Ice-Dry, Ice-Wet, Infectious Substance, Isopropanol, Ivory, Jewelry, Liquor-Haz, Magnetized Materials, Metals, Precious, Military Equipment, Money Material, Oil Products, Oxidizers, Paints-Haz, Passports, Perfume-Haz, Personal Effects, Poisons, Political Material, Precious Stones, Psychotherapy Substance, Radioactives, Substances containing sodium/calcium, Toiletries-Haz, Undeveloped Photographic Film, Unused Postage Stamps 등

4. 대한수입규제 동향

“수입규제제도” 항목에 따른 일반적 수입규제 이외에 한국산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수입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걸쳐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코드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이 HS 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카자흐스탄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수량, 과세금액, 적용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하는 세금은 1) 관세, 2) 통관비용,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 되어 부과되는 경우 대부분이며, 평균관세율은 약 9%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치, 설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되며, 통관비용 및 소비세는 통관서류에 기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수입제품의 서류상 기재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둘째는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를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하는 경우, 셋째는 이들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취지아래 2009년 부가가치세는 12%로 하향 조정되었다. .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 조치는 관련업체 또는 기관의 제소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여부를 판정 후 반덤핑관세 부과, 가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단기간의 상계관세 부과, 가격 제한 등의 형태로 적용하는 관세이다.

반덤핑 제소는 수입제품의 덤핑가격 판매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가 자사의 판매에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경우는 2000~2002년 기간 중에 상품 수량 제한을 통한 보호조치로서 barium sulphate, 지붕소재(roofing material), slate, 광물 drilling 장비, 원심펌프, 소화장비, 교량크레인, 변압기, fluid meters, 전기 미터, 일부 식품, 벽지 등의 품목에 부과한 사례가 있고, 이후에는 동일사례가 없다.

다. 통관절차 강화조치

카자흐스탄 세관은 2007년 8월 21일부로 세관 통관절차를 특별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출의무가 없었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통관절차 강화조치는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 온라인으로 관세율을 알아보는 법

카자흐스탄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웹페이지(www.keden.kz)에서 각 품목의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어 만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많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국가 인증제도 시행 목적

- 신뢰할 수 없는 측정결과로 인한 카자흐스탄 국민 및 경제 보호
- 국내 및 수입 제품, 작업기능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 확인
- 모든 유형의 물질 소재 및 에너지 자원의 정확한 확인
- 질병의 진단과 치료, 직장 및 가정의 안전진단, 도로안전, 환경보호를 위한 정확한 측정 결과 확인

나. 국가 표준인증 제도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준비해오고 있다. CIS 지역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국가와는 자국 발급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경우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CIS 지역국가의 유사 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 성적서는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보에서는 인증선언에 의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을 확인해 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필수적으로 관계되는 제품이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연구소에서는 인증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인증서 발급 기관

- 규격인증 발급기관(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 알마티지사(Almaty Branch)
 - 주소: 83 Altynsarin Str., Almaty, 050035, Kazakhstan
 - 전화: 7-727-221-3773, 221-4647
 - 팩스: 7-727-228-5655
 - E-메일: export@afnaceks.kz
- 위생검역소(Sanitary Epidemic Station)
 - 주소: 130-A Tole-Bi Str., Almaty, 050026, Kazakhstan
 - 전화: 7-727-243-2655
 - 팩스: 7-727-279-6577
- 아우에조브구 관할(Auezov District)
 - 주소: 144 Dzhanosov Str., Almaty, 050042, Kazakhstan
 - 전화: 7-727-220-7900
 - 팩스: 7-727-220-6990

다. 관련 법령

표준화, 도량형 및 인증 등과 관련된 활동은 카자흐스탄 관련법 (the Laws of Kazakhstan On Standardization, On Ensuring Uniformity of Measurements and On Certification)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

라. 국제협약

- On Mutual Recognition of the Results of State Tests and Confirmation of the Type, Metrological Attestation, Examination and Calibration of Measuring Tools and Results of Accrediting Labs that Test and Calibrate Measuring Tools: 1992.10.6, CIS 지역국가들과 협약체결
- On Pursuing a Co-ordinated Policy in the Fields of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1992 3.13, CIS 지역국가들과 협약체결
- On Customs and Tax Exemption and Issue of Special Permits for Transporting Standards Documents, Standards, Measuring Tools and Standard Samples, Transported for the Purpose of Examination and Metrological Attestation: 1995.2.10, CIS 지역국가들과 협약체결

표준화, 도량형 통일, 인증 제도에 대한 상호협약은 상기 국가들 이외에 러시아, 리투아니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과 체결했다.

마. 정부의 인증제도 우선정책

- 표준화 및 인증제도 법률 및 법령 프레임 개발 및 개선을 통한 국제조항 부합 및 WTO 원칙 부합
- 기존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량형 통일, 국가 감독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령 정비
- 국제기준과의 강제 또는 자발적 전환을 통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 품질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개발을 위한 조사방법 지원
- 1992년 3월 13일 CIS 지역국가들과의 체결한 협정하에서 국제 표준화 협약 참여
- 국내 생산 제품의 카탈로그 도입
- ISO 9000, ISO 14000 국제품질관리시스템 도입
- 기타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카자흐스탄은 1992-1993년부터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에는 발명, 산업용 디자인, 설비모델, 상표, 서비스 마크, 원산지명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재산에 관한 권리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기초적인 권한은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위원회(IPRC)의 소관한다. 카자흐스탄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자 우대 원칙에 따라 IPRC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발명품, 실용품 신안모델, 산업디자인 등록

발명품은 새롭고 발명품의 정도가 진전된 것이면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명품의 특허 보호기간은 20년간 유효하며, 특허신청은 IPRC로 하면 된다. 실용품 신안모델은 새롭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실용품 신안모델에 대한 특허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실용품 신안 모델도 IPRC에서 관할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새롭고 독특하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경우 보호받게 된다. 산업디자인 특허 유효기간은 10년이며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권자는 자인인 또는 법인에게 권한 양도가 가능하다. 특허 양도계약 및 라이선스계약은 IPRC에 등록해야 한다.

다. 상표권, 서비스마크, 원산지 표기

상표권은 IPRC 등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표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10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 라이선스계약 및 양도계약은 IPRC에 등록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에 대한 법적 보호도 IPRC에 등록돼야 가능하며 원산지 증명서 소유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기 사용권한을 부여할 권한은 없다.

라.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및 관련권한에 관한 법령은 과학(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포함), 문학, 예술, 연극, 영화, 방송 분야에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는 등록요건과 관계없이 저자에게 부여되고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4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 불공정 경쟁 방지

불공정 경쟁 방지 법령은 민법, 행정법, 형사법 등과 연관되어 소비자 권한 보호를 위한 불공정 경쟁 방지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바. 관련 입법조항 발효

- 저작권 및 관련법: 1996. 6. 10
- 상표권, 서비스마크, 원산지 표기 관련법: 1999.7.26
- 특허법: 1999.7.16
- 산업재산권협약 국제선언: 1993. 2. 5

□ 카자흐스탄 국제협약 선언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1967
-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협약 가입: 1967
- 상표권 보호 마드리드협약 가입: 1967
- 특허협약(PCT): 1970, 1979, 1984(개정 체결)

□ 카자흐스탄 지적재산권 관련 사이트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 국립연구소(www.kazent.kz)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는 카자흐스탄 법 또는 국제법 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통관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제품 또는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세관은 2007년 8월 21일자로 세관 통관절차를 특별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출의무가 없었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통관절차 강화조치는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 또는 중개인은 수입 제품 또는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다. 원산지 증명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입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1)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2)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3)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때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다.

라. 세관 신고

관세법상 세관 신고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세관 신고는 통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상품 및 기타 상품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세관 신고의 종류: 화물 신고, 승객 신고, 수입금액 신고
- 통관의 종류: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 통관을 하는 개인(혹은 회사)은 수입 상품 및 차량 특성, 수량, 원산지, 도착지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관 종류를 선택 변경 가능
- 카자흐스탄 관세법의 통관 종류: 17가지로 구분.
 - 유통
 - 역수입
 - 세관창고
 - 면세점
 - 관세 부가 영역 내에서의 가공,
 - 유통을 위한 가공
 - 관세 부가 영역 외에서의 가공
 - 임시 수입
 - 임시 수출
 - 수출
 - 역수출
 - 경유 화물
 - 상품 폐기
 - 반입 금지
 - 면세지역
 - 보세 창고
 - 특별 관세 대상

마. 세관신고 제출

세관에 상품 혹은 차량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방 관세청은 상품 혹은 차량의 수취인·운송업자의 서면 신청서 상에 기록된 신청자의 등록 장소와는 별도로 상품, 차량의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세관 신고자가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허가는 1년간 유효하게 지속된다.

세관 신고자는 세관신고를 종료하는데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세관 당국에 제출 해야 한다.

- 세관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위임장
- 통관에 따라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무역계약서
- 매매계약서, 바터(Barter) 계약서, 기타 서류 등
- 운송 서류
- 송장, 견적서, 상품 사양 등 필요한 서류 및 수입금액
- 원산지 증명서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들
- 카자흐스탄이 동의·서명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선적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들
- 화폐 관리규정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들
- 동식물 관련 검역 증명서 (카자흐스탄 법으로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의 등록 서류

세관 신고서, 관련 서류들, 상품 및 차량 등(긴급 견적 포함)에 대한 확인, 사전신고(prior declaration)시 세관 신고서류 및 관련 서류들에 대한 확인 등은 세관 신고서와 통관 관련 각종 서류가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카자흐스탄 관세청이 실행해야 한다. 상기 기간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장의 서면 인가로 “접수 후 10일내 확인”으로 연장 가능하다.

바. 운송

세계 최대 내륙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육상 운송부문은 투자여자가 많은 부문이며 주변국과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이 완화될 경우 운송 관련사업은 협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망은 14,000 km로 CIS 국가 중 세 번째로 방대하며 이중 1/3은 복선화 전철화가 완료되었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까지 수송개발계획을 수립, 국제운송로 개발 및 국제운송 인프라와의 통합, 국내운송 인프라 구축, 관련법 정비 등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했다. 한편,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에는 주 4회 정기 전세기(인천~알마티)가 운항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항되고, 카자흐스탄 항공기인 Air Astana 항공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운항된다. 양국간 교역 및 인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항공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항공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민영항공사인 아스타나 항공 (British Aerospace와 합작)은 카자흐스탄 국영항공사 ‘카자흐스탄 항공’으로부터 인천-알마티 운항권을 인수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아시아 대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 바다인 카스피 해의 악타우만을 항구로 사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 해를 이용해 접경국가인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악타우 항을 이용할 때 일부 제한요건이 많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교역은 이 항구가 이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선편 운항로는 인천 항에서 선편으로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시키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철도편으로 알마티까지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운송노선을 이용할 경우 소요기간은 대략 30~50일 정도이며, 20피트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약 5,000 달러 정도이다. 반대로 알마티에서 인천까지의 운송비용은 이보다 훨씬 비싼 8,000~10,000 달러를 초과한다.

□ 카자흐스탄, 세관통관절차 강화조치 지속시행(2007년 하반기)

카자흐스탄 세관은 2007. 8. 21 부로 운송업자 및 수출입업자에게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세관 법령(Article No. 317)을 변경함.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Export Cargo Customs Declaration Sheets) 원본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만약 수출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그 동안 GTD 및 DTS 등의 수출면장을 작성하는데서 나타난 오류에 대해서도 관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개정된 법령은 관세사 개인은 물론 관세사가 속한 관세 법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묻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이 통관절차를 강화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온 블랙통관 및 회색통관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즉, 카자흐스탄 세관은 이 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부한 수출면장을 통해서 인보이스 밸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동안 수출입업자 상호간에 불법적으로 시행해 온 언더밸류 행위를 근절 시키겠다는 조치이고, 수출업자(shipper)와 수입업자(consignee)를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제3자 명의로 통관하는 방식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불법적인 통관에 대한 책임을 관세 법인으로 확대 적용한 것도 불법통관이나 서류작성의 오류나 착오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선언적 의지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WTO 가입 준비를 위해 비정상적인 통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수출입업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상기와 같은 갑작스런 통관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치는 카자흐스탄 세관의 임시적인 단기조치를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동안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해온 국내기업들은 비정상 통관의 전진 창고기지인 URC(우루무치)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통관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의 URC(우루무치) 창고를 이용하지 않고 알마티 화물로 집중될 것이며, 실제 수입업자(consignee) 명의로 통관되는 정식 화이트 통관방식으로 일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든 현지 투자한 기업이든 이 나라로 들어오는 수출화물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돼온 언더밸류 또는 단일품목 기재방식 등을 통한 블랙 통관방식에서 탈피해 정식 화이트 통관방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을 유념하면서 카자흐스탄과 무역거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투자

1. 투자환경

카자흐스탄의 투자여건 중에서 장점은 넓은 면적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12개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며 이는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가 된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석탄, 원유, 각종 금속 및 광물 등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원개발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

카자흐스탄은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최근 수년간 원유 생산 및 수출의 호조와 함께 연평균 10%를 오르내리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으로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CIS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개혁 및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으며, 민간부문 생산이 GDP의 75%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2006년 8%대를 유지하다, 2007년에는 10.8%를 기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체제 붕괴 후 독립 초기부터 시장을 활짝 열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1991년 독립 이후 2009년 1분기까지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모두 1,089억 달러에 달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이뤄진 외국인투자 총액의 무려 70%를 웃도는 규모이며, 국민 1인당 FDI 규모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10배 수준이다.

이렇듯 카자흐스탄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CIS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잘 정비돼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과거에 비해 오히려 퇴행하는 듯한 모습도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카자흐스탄 경제의 틀이 하나씩 갖춰지면서 격상된 위상에 따라 나름대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내경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가. 투자 유망 산업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년도 하반기 외국인투자가 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책을 재확인했다.

즉, 카자흐스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3~2015 산업혁신 전략”에 따라 제품을 생산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인데 5년 동안 토지세 및 법인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품질 제품 생산 시 인센티브는 5년 더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 금융 시스템을 유럽시스템으로 구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IS 역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의 조세는 세계은행이 카자흐스탄을 투자환경이 가장 좋은 20개국 중 하나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계약체결, 사업 인허가 과정 등을 투명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보호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각화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진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부분이 화학 분야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인, 질소비료 및 카보나이트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충분한 과학 기술 잠재력을 카자흐스탄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투자 유망 분야로서 대통령은 화학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제조, 농업, 인프라 및 통신 분야를 언급했다. 이번 외국인 투자가 위원회에 참가한 잔 레미에르 EBRD 총재도 이와 같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EBRD가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농업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문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Austin Associates는 2005년 중반 “카자흐스탄은 자원생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산품을 생산하여 국제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Austin Associates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제시한 가장 유망한 산업분야는 건축자재 생산, 석유 생산, 가구 생산, 식품 가공, 투자 은행 서비스, 운송, 광업용 설비 생산, 야금, 관광 등으로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외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체적으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분야로는 석유화학 산업을 들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협의회에 참가한 잔 레미에르 EBRD 총재도 이와 같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EBRD가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농업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카자흐스탄이 경제 다각화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법적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의 지속 개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현대식 인프라의 구축이다.

잔 레미에르 총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EBRD는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지원에 3.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투자자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은 투자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는 지하자원 개발에만 투자하지 말고 가공업에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동조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 총액 중 60%가 지하 자원 개발 및 채굴에 투입 되고 있다.

나. 카자흐스탄의 투자 유망 분야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합 법령이 없어 관련된 제반 법령을 일일이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전화통신 분야의 경우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참여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낙후된 통신 분야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 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음은 석유 개발 분야이다. 엄청난 양의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 해상의 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는 50%까지만 허용된다. 육상광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제한 한도는 이보다는 높으나 외국인에 대한 지분 양도 시 정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이 석유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총 투자액의 1%를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은행업의 경우는 투자진출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정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은행이 카자흐스탄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것 중에 방송 분야가 있는데, 외국인이 2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 외국인이 투자지분 제한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의 영구적 토지이용권(소유) 취득을 불가하고 있고, 상법에는 농지는 최대 10년까지만 임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경비법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합작회사는 경비 및 경호사업 일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증시에서는 다음 업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오프쇼어(Off-shore)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이 설립자 또는 주주자격으로 있는 업체와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의 계약사가 설립자 또는 주주자격으로 있는 업체,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의 설립자 또는 주주(개인)가 설립자 또는 주주자격으로 있는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업법은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보험회사는 카자흐스탄 법인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법은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이나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의 설립자 또는 주주로 있는 개인이 카자흐스탄 보험회사의 설립자 또는 주주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법은 외국보험회사가 카자흐스탄 내에서 지정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금법은 외국 연금저축 운용회사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치를 불가하고 있고, 상법은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이나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의 지분이 있는 법인이 카자흐스탄 연금저축운용회사의 설립자 또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기타 외국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금저축펀드의 설립자본금의 합계는 모든 연금저축펀드의 총 설립자본금의 25%를 넘으면 안 되며, 외국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금저축 펀드의 이사회는 최고 2/3까지 외국인 구성이 가능하다.

은행법은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이나 오프쇼어 지역에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오프쇼어 지역에서 등기된 법인의 설립자 또는 주주로 있는 개인이 카자흐스탄 은행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계 은행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지정설립을 불가하고 있다.

석유가스 관련 법은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50%까지만 허용하고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업체인 KMG와 합작 의무화를 시키고 있다.

건설법은 시공(하청)업체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언론매체법은 신문, 방송 등 언론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가기밀법은 국가기밀 정보에 외국인 접근을 불가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외국 법인이나 개인의 통신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통신 백본망 운영관리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에서 운영되는 통신망 설치 및 운영사업 불가, 국제 또는 시외통신 인프라 운영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10%까지만 허용하며, 국제 또는 시외통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 최대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다. 카자흐스탄의 투자 유망 분야

업종	시장진입매력도	시장 특성	비고
건축자재 생산	매력적	현재 지속적인 건축붐에 따라 거대한 내수 시장 형성 중이며 향후 에도 계속될 전망	고부가 제품 생산에 주력 필요
금융	매력적	국내 및 주변국(중앙아시아 및 CIS) 시장 수요 지속 확대 전망, 현재 군소은행 난립	투자관련 파이낸싱 서비스 개발 확대 필요
경공업 (주로 섬유)	매력적	주변국 시장규모 확대 추세 및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요 전망	관련인프라 개발 필요
야금	매력적	중국 및 동남아로부터 많은 수요 예측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 필요
가구 생산	매력적	국내는 물론 동유럽,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요 확대 전망	중소기업육성분야
석유가스 관련 설비	매력적	국내외 시장수요 막대	
화학	매력적	내수시장이 큼. 특히 인 및 인산염의 많은 수요 예측	인산염의 본격 생산 요구 증가
BT	매력적	향후 국내 및 해외 시장수요확대 전망.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며, 사업 성공 시 까지 장기간 소요	현지에서의 실제적 인 수요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 선행 필요
농작물 재배	매우 매력적	국내 자체 및 극동러시아로부터의 많은 수요 예측	
제약	매력적	내수 시장은 작으나 주변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시장수요 확대 발전 전망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수요 조사 필요
화물운송	비매력적 (경쟁치열)	시장수요 확대 전망	

자료: 카자흐스탄 경제예산계획부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외국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주로 지하자원 개발 및 생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 보유한 나라로 널리 알려진 카자흐스탄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한 업체들은 대부분 석유, 가스 및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업체들이었는데 대체로 성공적으로 투자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Tengiz Chevron이다.

이 외에도 성공사례로 Mittal Steel Temirtau(철강 생산), Coca Cola Almaty Bottlers(음료 생산), British American Tobacco 및 Gallaher Kazakhstan(담배 업체), GSM Kazakhstan(이동통신 업체),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전자제품 생산기업), KazakhMys(구리 생산 업체) 등으로 볼 수 있다.

가. TengizChevroil

TengizChevroil은 1993년에 설립된 이노베이션 투자 프로젝트이다. 총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카스피해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Tengiz 유전(전체 매장량이 750~1,125백만 톤 예상)의 개발, 답사 및 채굴 사업이다.

TengizChevroil 프로젝트의 참여업체와 비중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비중
ChevronTexaco Overseas (Chevron Overseas Company)	50%
Exxon Mobil Kazakhstan Ventures Inc	25%
KazMunayGas	20%
Russian-American JV LUKArco (Lukarco B.V.)	5%

2004년중 TengizChevroil이 13.7백만 톤의 석유를 채굴하여 2006년에 석유 채굴량을 22백만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 이 프로젝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1993~2004년 중 TengizChevroil이 사회복지 분야에 8900만 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TengizChevroil은 원유뿐 아니라 LPG, 유황까지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국, 러시아, 지중해 연안국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한해 13억 5000톤의 원유, 가스, 유황 등이 수출되었다.

나. Mittal Steel Temirtau

1995년에 설립된 Mittal Steel Temirtau가 카자흐스탄에서 최대 철강기업이다. 이 기업의 소재지는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카라간다(Karaganda)주에 있다. 현지 Mittal Steel Temirtau가 Karaganda, Temirtau 및 Shakhtinsk에 야금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종업원 수는 약 5만 명이다.

다. Coca Cola Almaty Bottlers

Coca Cola Almaty Bottlers를 1994년에 카자흐스탄 업체 Tonus 및 터키의 Efes Invest社로 설립된 기업이다. 현지 Coca Cola Almaty Bottlers는 알마티 공장에서 Coca Cola, Sprite, Fanta 음료 및 Bonaqua 미네랄 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이 2003년에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Best Investor of year' 상을 받았다. 2005년 7월에 Coca Cola Almaty Bottlers가 알마티 인근 지역에서 두 번째 음료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라. GSM Kazakhstan

최근 들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 KaR-Tel(2005년에 러시아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VimpelCom 이 3억5,000만 달러로 지분 인수하여 현재 K-Mobile, Excess, Beeline 브랜드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모든 서비스를 동일한 Beeline 로 제공)에 따르면 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2008년 710만명에 달했다. 두 번째 큰 GSM Kazakhstan(유통 브랜드 K-Cell, Aktiv)은 2008년에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2월 중순부터 세 번째 GSM 사업자인 Mobile Telecom Service 가 이동통신 시장에 NEO 브랜드로 등장했다.

마.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1995년에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후 알마티에서 LG Electronics 사가 참여하여 전자제품 조립생산 공장을 설립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 03에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98년 5월 28일에 알마티에 소재하는 52,000 s/m의 면적인 공장에서 텔레비전, 세탁기를 조립생산이 시작되었다.

1998~2004년 초 중 총 150만 대의 칼라 텔레비전이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LG AK이 국내 수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G AK에 따르면 57%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LG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이 여러 가지 많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 행사의 후원으로 유명하다.

LG 전자는 시장 Needs를 간파한 시의성있는 진출과 고용창출이라는 상생문화경영방식을 추구하였고, 단일 시장이 아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시장을 노린 거점화 진출이었다는 점이 성공요인이다.

바. KazakhMys

1995년 파산에 빠진 카자흐스탄 구리 제련소를 국제입찰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아 5년간 경영 정상화 노력을 통해 현재 종업원 6만 명의 세계 10대 구리 제련소로 탈바꿈시킨 사례이다.

참고로 카자흐무스(카자흐스탄 구리제련소)는 1992년 설립된 업체로 CIS에서 가장 큰 구리 공장이며, 순도 99.99%의 구리를 생산한다.

□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외국인투자유치현황

국가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5	2006	2007	2008	2009.1Q	1992~ 2009.1Q
총 계	6,618.6	10,568.6	17,466.1	19,809.1	3,340.2	108,986.6
네덜란드	1,549.2	2,877.3	3,072.0	4,349.3	937.8	24,022.0
미국	1,131.5	1,694.7	2,441.6	2,059.5	535.8	14,594.7
오스트리아	59.8	74.9	2,344.0	133.2	-12.7	5,138.6
프랑스	774.7	802.3	1,022.6	1,203.8	234.1	7,300.3
러시아	223.5	490.9	751.2	851.4	121.7	4,653.9
영국	-61.1	852.3	720.0	1,797.2	206.7	7,091.3
영국령 버진제도	268.8	503.9	1,745.7	1,590.9	120.5	8,190.8
스위스	103.4	234.6	633.0	143.9	15.6	2,157.6
이탈리아	306.6	376.1	517.2	693.1	137.6	3,754.6
일본	335.0	342.6	405.3	456.3	103.2	2,949.8
리비아	335.9	338.8	403.6	486.8	98.6	2,991.5
중국	216.1	360.3	351.5	692.4	212.7	3,449.9
터키	72.7	92.9	329.2	183.6	0	1,284.1
캐나다	247.0	437.1	314.1	944.8	-24.4	3,590.2
한국	57.6	248.6	262.2	883.4	19.1	2,884.2
기 타	998.0	842.2	2,064.4	3,339.5	633.90	14,758.0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2009년 09월 기준 최신자료

산업 부문별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ctivity	2004	2005	2006	2007	2008	1 q 2009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2.0	1.2	37.3	-24.9	32.5	53.7
agriculture, hunting and related service activities	-2.0	1.2	37.3	-41.4	10.8	1.4
fishing, operation of fish hatcheries and fish farms				16.5	21.7	52.2
MINING AND QUARRYING	5,247.8	1,796.6	2,396.1	5,390.5	3,104.4	879.0
mining of coal and lignite, extraction of peat	9.7	-3.5	0.0	-0.7	29.5	-28.1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5,177.1	1,682.4	2,003.4	5,049.9	2,622.7	831.6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34.8	68.4	162.4	148.9	198.4	54.7
mining of metal ores	16.4	55.3	222.1	188.0	148.7	20.6
other mining and quarrying	9.9	-6.0	8.3	4.5	105.1	0.2
MANUFACTURING	520.6	303.6	642.4	1,061.2	1,756.5	104.2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beverage and tobacco products	37.5	61.0	51.6	63.0	125.0	31.6
manufacture of textiles	0.7		3.9	2.1	-2.1	
tanning and dressing of leather, manufacture of luggage, handbags, saddlery, harness and footwear		0.0	2.3	0.3	2.8	3.4
manufacture of wood, paper, publishing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10.5	5.9	9.2	73.0	92.3	1.7
manufacture of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20.8	48.5	-15.8	-189.9	29.7	18.4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25.2	-0.9	13.7	11.9	34.4	24.4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9.2	9.5	7.9	25.4	10.0	-0.3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11.2	10.9	26.2	45.8	118.3	15.8
manufacture of basic metals	323.7	122.7	426.3	821.2	1,192.6	-1.4
manufactures of basic iron and steel	0.7	3.2	1.4	23.3	446.0	-0.3
manufacture of basic precious and non-ferrous metals	319.8	116.6	420.5	779.0	731.1	-2.4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3.1	2.9	4.3	19.0	15.5	1.3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7.6	-1.9	4.2	0.2	2.6	1.1
manufacture of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71.4	43.7	39.7	53.9	96.6	6.6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1.1	5.1	72.4	149.7	45.0	1.7
manufacture, n.e.c.	1.8	-0.9	0.7	4.6	9.4	1.1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11.4	119.5	26.7	36.6	134.5	166.4
CONSTRUCTION	160.3	94.0	367.8	478.8	448.2	100.2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259.1	381.4	739.3	1,237.3	824.1	155.2
HOTELS AND RESTAURANTS	13.4	5.8	10.2	49.2	34.3	13.8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101.1	98.1	300.6	181.8	626.1	19.1
land transport	36.7	17.9	23.6	39.7	49.4	6.8
transport via pipelines	28.8	11.7	19.4	36.6	35.3	3.8
water transport	-26.4	0.0	4.1	0.9	2.2	0.4
air transport	0.3	2.9	3.2	2.3	1.9	0.3
supporting transport activities	26.5	60.7	186.7	150.7	76.0	9.7

post and telecommunication	63.9	16.5	83.0	-11.8	132.6	1.9
telecommunication	63.5	16.0	81.1	-14.5	131.7	1.8
FINANCIAL INTERMEDIATION	71.0	107.9	452.7	2,964.4	2,245.3	56.9
monetary intermediation	7.8	15.4	298.8	2,720.1	966.5	44.6
other financial intermediation	61.1	88.9	141.7	236.9	1,263.2	10.1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2.2	3.3	12.2	1.3	5.1	0.5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intermediation	-0.2	0.4	0.1	6.2	10.4	1.7
REAL ESTATE, RENTING AND BUSINESS ACTIVITIES	1,843.7	3,647.8	5,551.0	6,980.3	7,941.1	1,786.5
real estate activities	7.7	14.8	29.1	70.2	45.7	5.7
rent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 without operator	0.8	0.8	20.0	39.8	1.0	11.0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3.6	5.4	13.2	7.3	7.5	0.9
research and development	1.6	8.4	5.5	0.1	3.4	2.4
other business activities	1,830.0	3,618.3	5,483.2	6,863.0	7,883.5	1,766.5
legal, accounting, book-keeping and auditing activities, tax consultancy, market research, business and management consultancy	51.5	27.3	-12.0	142.4	149.4	19.8
geological exploration and prospecting activities	1,759.4	3,521.7	5,413.9	6,642.9	7,565.2	1,686.4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23.4	11.5	6.3	-0.9	65.6	0.0
ACTIVITIES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ASSOCIATIONS AND UNIONS	67.6	51.1	93.2	99.0	2,960.7	5.2
TOTAL	8,317.3	6,618.6	10,623.6	18,453.4	19,809.1	3,340.2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양국 간 실질협력은 원유사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는 주재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對 주재국 가전.IT.유전개발.건설 중장비 및 자동차.건설.석유화학 분야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국내 건설 경기 하락에 따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우리 건설 기업들의 진출이 주재국의 아스타나 신도시 건설 및 카스피해 종합개발 등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로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는 1990년대 중반 삼성물산의 구리 채광 및 제련사업(200백만 달러), LG 전자 알마티 현지법인의 조립공장(20백만 달러) 등을 계기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04년 동일하이빌의 아스타나 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14백만 달러), 세원중공업의 압력 용기 생산공장 건설사업(500만 달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 독립 후, 기업경영마인드가 부재할 시기에 선도적인 투자진출을 하였으며, 경제논리와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선진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로 경영하였다. 한편, 삼성물산은 경영진들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현지사회활동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진출을 시도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성공요인이다. 현재 삼성물산 물류단지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향후 우리 원유 컨소시움의 카스피해 잠빌광구 공동개발사업(시추선 도입사업 포함), LG 상사의 Ada 육상유전 공동개발사업, 세림제지의 West Bozoba 및 Sakramabas 탐사광구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對카자흐 에너지 자원분야 투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협력

- 석유공사, 삼성, LG, SK, 대성 등 7개사는 2002.3 원유개발 컨소시움을 구성, 카스피해 및 육상유전개발 참여를 적극 추진 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방문(2004.9월)을 계기로 카스피해 유망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Protocol)에 서명 한데 이어 2005.2월에는 카스피해 잠빌 광구에 대한 기본계약서(HOA)를 체결하고 2006.9월 지분양 수도를 포함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었음. 2006.11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상반기내 지분양수도 계약 등 본계약 체결하였으며 2009.5월 이명박 대통령 방카후 중 잠빌광구 개발 협력사 설립.
 - 양자 간 잠빌광구 참여지분: 카자흐스탄(73%), 한국(27%)
 - 한국 컨소시움 회사: 석유공사 9.45%, SK 6.75%, LG상사 2.7%, 삼성물산 2.7%, 현대하이스코 2.7%, 대성산업 1.35%, 대우조선해양 1.35%, 아주
-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측과 카자흐스탄 동남부(15만km²) 주요 광물부존구역에 대한 공동탐사를 2004~2006년간 실시 중이며, 금·동·연·아연 등 유망광물 발굴 시 아국기업의 후속개발진출 연계를 추진 중임.
 - '05.4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자원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라늄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합작기업(J/V) 설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하고, 발전용 연료(석탄 및 가스)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전력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 2008년 4월 공식적으로 참여중인 광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9개로 SK네트웍스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있으며, 기타 삼성물산의 물리브덴광산개발 등에 참여중임.
 - 기타 국내 중소기업에서 참여중인 광물자원 프로젝트는 포넷, 엔디코프 등의 연아연 광산 개발 프로젝트 등이고 대부분의 광물개발 프로젝트는 광구 개인 소유지분 참여임.
 - 2008.5월 한승수 총리 자원외교 방카를 계기, 한국 수력원자력(주)우라늄 장기도입 계약(2011~2017, 3,140톤) 체결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기간의 성과로는, 예상매장량이 10억통 이상 (품위 0.37%)이 되는 보쉐콜 동광 협력개발 MOU를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삼성물산, 카작 국영석유회사(KMG) 간 체결했다는 것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약 1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쉐콜 동광은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동광산 중 최대규모라는 점에 동 협력 체결은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음.

인천-알마티 간 정기전세기 노선(아시아나항공 및 아스타나항공 각 2회)이 주4회 운항하고 있다.

현재 진출기업은 전자, 보일러 등 제조업 등을 비롯 서비스, 무역, 관광, 광고, 건축, 유흥업, 분야에 소자본 투자사 및 자회사 등이 진출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건설업 관련 한국투자업체는 25개사이상으로 추정되나 2007 년 미국발 서브프라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에 의해 대거 귀환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는 동일하이빌 아스타나 아파트 동, 우림 알마티 애플타운, 성원 상떼빌 건설이며, 기타 삼부토건, 범양건영, 성원건설 등의 사무동 빌딩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제조업 부문은 LG전자 가전제품 조립공장(알마티시, TV, 오디오, 세탁기 등), 포스코 제철소 건립 프로젝트 검토 중(카라칸다), 대우버스 조립공장(세미팔라친스크), 세원중공업 압력 용기 생산공장(악토베, 합작법인명: SEWON-VERTEX), 코카즈라인 샌드위치 판넬 생산공장 완공예정(2009년 5월)이다.

금융 부문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진출해있으며 한화증권(Seven Capitals), 대신증권, 현대증권은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 신한은행 : 은행업 진출 인허가 취득(2008년) 및 지점영업개시(2009년) *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지난 7년 동안 처음으로 인허가 승인 사례
- 국민은행 : 은행업 현지은행 인수(BCC 30.5% 지분인수)
- 우리은행 : 은행업 사무소 개설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 통계/한-카 투자교류 통계

연도	신고 건수	금액 (천달러)
1991	5	512
1992	1	994
1993	2	113
1994	5	5,592
1995	7	856
1996	8	1,031
1997	9	105,352
1998	2	60
1999	3	1,835
2000	6	354
2001	6	1,323
2002	3	500
2003	6	13,820
2004	24	22,527
2005	32	29,570
2006	61	264,379
2007	127	321,078
2008	65	206,654
2009(1-10월)	47	101,381
누계	408	1,015,08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진출 우리기업

회사	업종	취급분야
국민은행	금융·보험	금융관련(서비스업 포함)
범한물류	운송·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삼성물산	광업·자원개발	제스카스간 구리광산 사업 지원, 자원개발, 무역
삼성전자	제조업	가전제품, 통신기기 판매
(유)성원상떼빌	건설·공사업	아파트, SOS, 토목, 오피스텔 등
실로에너지	도소매·유통	보일러 설비 도소매 판매
아리랑여행사	서비스업	여행업
아시아나항공	운송·물류	운송, 항공권발매
영진 Global Logistics	운송·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우림 카자흐스탄	건설·공사업	주택건설
우진글로벌	운송·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통관업, 물류업
㈜대우일렉트로닉스	제조업	전자제품
서중물류	운송·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에코비로지스틱스	운송·물류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 통관업, 물류업
㈜우진트랜스	운송·물류	항공운송서비스
㈜코루스	도소매·유통	인쇄포장 기자재, 자동차 필름
㈜CAM	서비스업	부동산 컨설팅, 법무, 국제회의, 전시대행
테라	선택	
팀트레블	서비스업	항공권 발매, 초청장 발급, 비자연장, 숙소 및 각종 교통편 제공
한국석유공사	광업·자원개발	석유생산
현대종합상사	건설·공사업	인프라프로젝트, 엘리베이터
현진에버빌	건설·공사업	주택, 아파트건설
LG상사	광업·자원개발	
LG전자	제조업	TV, VTR생산, 가전제품생산
NURKAZ INT'L CO.	도소매·유통	무역(식품, 자동차, 카트리지 및 잉크)
S&S	도소매·유통	건설장비 판매, 수리
동일하이빌	건설·공사업	아파트건설
데이비드 랜든 앤 씨아	서비스업	건설공사 비용 관리, 프로젝트 관리, 계약 및 분쟁 관리, 실사, 사업평가
범양건영	건설·공사업	오피스 건설
삼부토건	건설·공사업	부동산 개발, 설계, 분양, 엔지니어링, 토목 건축공사
세하	제조업	제지판매, 유전개발
유니코카자흐스탄	운송·물류	수출,입 해외물류, 운송업, 창고업, 트럭킹, 항공운송, customs clearance, 프로젝트 화물운송, 개인 이주화물
현대증권	금융·보험	금융관련(서비스업 포함)
SK네트웍스	광업·자원개발	비철금속 광산 탐사 및 개발사업 참여
신한카자흐스탄은행	금융·보험	금융서비스
삼미 인터네셔널 엘엘피	건설·공사업	건설, 공사업
삼미 알마티 오피스	도소매·유통	

누르 디자인(도울)	건설·공사업	건축 설계
삼성엔지니어링	건설·공사업	Oil,Gas,Petrochemical Plant , Industrial Plant Environmental Plant
아멕스 지엘에스(주)	운송·물류	에어 및 컨테이너 운송
에코비스인터네셔널	도소매·유통	전자 제품의 A/S 부품판매 및 창고&물류 3PL 업무 대행
쉐르트란스카고	운송·물류	운송&통관 대행 및 창고 임대 운영의 3PL 업무
AK 파트너스 알마티	서비스업	컨설팅
한화	도소매·유통	트래킹
루벤스	서비스업	항공권, 호텔예약, 렌터카, 부동산 중개, 회계대행, 시장조사
삼우 엠오비	서비스업	건축 설계, 감리 및 컨설팅
알카스 베톤	건설·공사업	시멘트 공장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카자흐스탄 투자법은 2005.5.5일 개정되었으나 카자흐스탄 구 외국인투자법과 국가 지원법을 대체한 이 법은 새 투자자에게 분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기존 투자자는 법 개정되기 전 시점에서 체결된 투자계약에 따른 혜택은 계약 만료일까지 유지될 수 있어 개정 투자법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법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활동상 타법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이 투자법의 적용범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차후 계약 내용 해석하는데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나와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투자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자의 개념은 법인 설립 자금, 기업경영활동에 쓰이는 고정자산, 임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그리고 개인용으로 쓰이는 물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출자자금으로 규정한다.
- 법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카자흐스탄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기업에만 국한된다.
- 다른 특별세제적용을 받고 있거나 지하매장물 이용계약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투자세금혜택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금혜택은 투자계약 기간 동안 부여된다. 투자자는 해당 국가기관의 감사와 통제를 받게 된다. 투자자는 자산국유화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이 보상되며, 보상되는 경우 에는 시장 자산가치로 보상된다.

비거주자 투자자에 대한 혜택제한, 지하매장물 이용계약에 따른 활동에 대한 혜택제한, 법에 따른 계약의 부분적인 보호 등과 같은 투자규정은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원유 및 가스부문에 대한 투자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2003.05.13일 승인된 Government Decree No.436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투자 범위 지정, 투자계약서 양식 채택 등 투자혜택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다.

투자혜택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감면 등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장,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때 총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투자법(신투자법) 요약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내.외국인 구분 폐지	○ 구 외국인 투자법 폐지 ○ 투자자를 내외국인 구별 없이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 법인으로 규정	1조 6항
투자법 지위 약화	○ 구법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타 법규에 우선 적용” 조항 삭제 ○ 투자 수행상 카자흐스탄의 타 법률에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한 동법의 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투자운영과 관련 카자흐스탄 관련 법규를 직접 적용	2조 3항
국유화 및 수용 관련 투자보장 약화	○ 국유화 및 국가 수용에 대한 보상은 존속 ○ 구법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카자흐스탄 법률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	
환경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 구법에서는 법률변경에 의한 투자자 지위 약화 시 투자 당시 법률 최소 10년 적용 규정.	4조 3항
투자 안정성 보장 조항 변경	○ 신법은 국익, 환경보호, 보건, 사회풍속 관련 등 법규 변경 시와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 절차 및 조건 관련 법규 제정 시 보장 예외를 명시 ○ 구법상의 신속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상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 보장 조항을 삭제	
우선투자분야 지정 및 우대부여	○ 카자흐정부가 세부 우선 투자분야 지정 ○ 우선 투자분야에만 관세, 조세 등 혜택을 부여 ○ 조세, 관세의 우대기간을 5년으로 한정	
투자 분쟁 중재	○ 투자분쟁의 경우 당사자 합의 시 국제 중재기관 제소 가는 조항은 존속 ○ 투자분쟁에 포함되지 않는 분쟁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외환 관련	○ 구법상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외환의 지체 없는 국내외 이전 보장 조항을 삭제	

나. 세제 인센티브 공여기준

□ 카자흐스탄 정부 지정 우선투자대상 부문별 세제 인센티브 공여 기준

고정자산 투자규모 (단위: 백만 MCI*)	세금종류별 혜택기간(년)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감면기간	면제기간		
농업·수렵 및 기타				
가축사료생산				
기타식품생산				
1.3 이하	1-5	3	3	3
1.3-2.6	1-5	4	4	4
2.6-13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3				
13-14.5	1-6	6	5	5
14.5-16	1-7	7	5	5
16-17.5	1-8	8	5	5
17.5-19	1-9	9	5	5
19 이상	1-10	10	5	5
의류제조업; 모피 가공 및 염색				
피혁의류 제조				
모피 가공 및 염색				
구두 제조				
1.3 이하	1-5	3	3	3
1.3-2.6 이하	1-5	4	4	4
2.6-13이하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3				
13-14.5	1-6	6	5	5
14.5-16	1-7	7	5	5
16-17.5	1-8	8	5	5
17.5-19	1-9	9	5	5
19 이상	1-10	10	5	5
피혁제조; 피혁 제품 . 제화생산				
가죽가공				
가방 등 가죽제품 제조				
제화 생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목재가공, 목재 제조 (가구 제외)				
원목 가공				
합판, 패널 제조				
공사용 목재 제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제지업				
제지원료, 각종 종이제조				
각종 종이제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발행·인쇄업, 출판물 복사업				
발행사업				
인발업, 인발업 관련 서비스업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6	7	5	5
45-60	1-6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코크스, 석유제품, 핵원료 제조업				
코크스 제조				
석유제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화학산업				
주요 화학물질 제조				
농화학 제품 제조				
페인트 및 랙 제조				
제약업				
비누, 화장품, 세제, 광택제 제조				
기타 화학제품 제조				
인조섬유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고무제품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기타 비금속 무기질 제품 제조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				
세라믹 제품(건설용 제품 제외) 제조				
타일 등 제조				
벽돌, 기와등구운점원료의 건자재제조				
시멘트, 석회, 석고 제조				
건설 . 장식용 석재 가공				
기타 비금속, 무기질 제품 제조				
1.5 이하				
1.5-3				
3-1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야금공업				
주철, 강철, 합금철 제조				
파이프 제조				
기타 주철, 강철 1차 가공처리				
비철금속 제조				
금속 주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금속을 원료로 한 완제품 제조				
금속 구조물 및 건자재 제조				
보일러, 탱크 등 중앙식 난방용기계 제조				

보일러제조(중앙식 난방용 보일러 제외)				
금속 가공 및 도금; 기계 생산 공정				
금속을 원료로 한 기타 완제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기계 설비 생산				
설비 생산				
공공설비 생산				
농림업 기계 생산				
기계 생산				
무기 제조				
가전 제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4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45				
45-60	1-6	6	5	5
60-75	1-7	7	5	5
75-90	1-8	8	5	5
90-105	1-9	9	5	5
105 이상	1-10	10	5	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 제조				
전기 발전기, 변압기, 발동기 제조				
전기 분분.제어기 제조				
케이블 및 절연전선 제조				
전기 축적기, 갈바니 전지등 제조				
전등 및 조명기구 제조				
기타 전기기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라디오, TV, 통신 등 기기 제조				
전자 및 방사성 원소 제조				
전송기기 제조				
음성 및 영상 데이터 수신기, 녹음기, 재생기기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의료기기, 측정기, 광학기기 등 제조				
의료기기 제조				
측정제어장치 제조(생산공정 제어기, 조정기 제외)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자동차, 연결차 생산				
자동차 생산				
차체(車體), 연결차 생산				
엔진, 부품, 자동차용품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4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45				
45-60	1-6			
60-75	1-7			
75-90	1-8			
90-105	1-9			
105 이상	1-10			
기타 교통수단의 제조				
조선, 선박 정비				
철도차량 제조				
항공기 제조(우주선 포함)				
자전거 및 오토바이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가구제조, 기타 범주에 포함이 안된 제품 제조				
가구 제조				
악기 제조				
악기 제조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폐품 재활용				
고철 가공, 비금속 생산 폐기물 처리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전력, 가스, 증기, 온수 등 생산 및 공급				
전력, 가스, 증기, 온수 등 생산 및 공급				
기체연료 생산 및 공급				
수증기 및 온수 공급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수돗물 정화, 공급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건설업				
주택, 건물, 시설 등 건설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4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45				
45-60	1-6	6	5	5
60-75	1-7	7	5	5
75-90	1-8	8	5	5
90-105	1-9	9	5	5
105 이상	1-10	10	5	5
숙박, 요식업				
호텔 숙박업				
호텔 외 숙박시설 운영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지상 교통수단 운송업				
기타 지상 교통수단 운송업				
파이프라인 수송업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수상교통 운송업				
바다 운송				
강 운송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항공기 운항				
시간표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정기적 항공기 운항				
우주항공기 운항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2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운송 관련 부가 사업				
화물 포장 및 보관				
기타 부가 사업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25 5)				
25-40	1-6	6	5	5
40-55	1-7	7	5	5
55-70	1-8	8	5	5
70-85	1-9	9	5	5
85 이상	1-10	10	5	5
통신				
전기통신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레저문화, 유흥업				
영화산업				
스포츠산업				
레크리에이션, 유흥업				
1.5 이하	1-5	3	3	3
1.5-3	1-5	4	4	4
3-15	1-5	5	5	5
최대투자한도 15				
15-30	1-6	6	5	5
30-45	1-7	7	5	5
45-60	1-8	8	5	5
60-75	1-9	9	5	5
75 이상	1-10	10	5	5

MCI(Monthly Calculated Index) 측정 제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CIS 국가에서는 연금, 사회보조금, 벌금, 세금 및 각종 수수료(예: 법인등록수수료 등) 등 국가가 지급 또는 징수하는 각종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 측정제도이다. 연말 예산편성 기간 동안 정부에서 책정되며 연초에 MCI 기준값을 공시한다. (예: 2009년9월 기준 1MCI 는 1,296 텡게로 법인 최 소 설립자본금은 100MCI 이기에 100 X 1,168텡게로 계산됨)

다. 투자 인센티브

긍정적인 요소로서 투자인센티브 부분이 눈에 띈다. 이 법의 제3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우선분야에 투자할 경우 제공되는 정부의 현물 공여(부동산, 설비 등), 조세 및 관세 감면 등 제반 투자 인센티브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투자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투자 인센티브 개요

□ 투자 인센티브의 유형

- 세제 혜택
- 관세 혜택
- 정부의 현물 공여

□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절차

- 투자 인센티브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우선 투자대상 산업분야¹⁾에 한해 제공되며, 각 우선산업분야별 투자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기간도 정부가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설정한다.
-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심사, 인센티브 공여 여부 및 수준 결정 등은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조직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실시한다.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한편,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과 정부간의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 확정하며 제공한다.

□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 우선투자대상 산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제14조에서 이미 언급)
-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설비의 신설 또는 기존시설의 확대, 현대화 등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법인의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한 법인이 재정, 기술, 조직 면에서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투자법 제19조에서 규정)의 제출

□ 투자 인센티브 공여신청 구비서류

- 법인 등록증명서(공증)
- 법인 통계차트(공증)
- 법인 정관사본(공증)
- 소관 정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투자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
- 투자프로젝트의 이행과정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및 설치작업 추정비용의 타당성 입증 서류 사본(공증)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및 그 보증서 사본(공증, 자기 자본비용에 의한 출자일 경우, 그 자원의 가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빙 첨부)
- 법인이 신청한 정부공여현물의 가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정부의 현물공여 여부에 대한 예비승인서
- 인센티브 신청시점의 해당분기 최초일 기준 대차대조표
- 신청 법인이 세금, 연금, 사회보장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관할 세무당국이 발급한다.)

□ 투자 인센티브 공여 심사기간

-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심사결과는 투자인센티브 공여신청이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시점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보됨. 인센티브 공여 신청 서류의 접수, 등록, 심사 등의 절차는 투자위원회가 정한다.

2) 투자 인센티브 유형별 내용

□ 세제 혜택

- 인센티브의 제공기간은 투자산업 분야의 유형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 주로 대상 세금의 유형은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종전에는 감면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 공여 기간이 최대 5년이었으나 2005년 5월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확대되었다. 개별 투자 프로젝트마다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지의 여부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의 여부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자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정한다.
- 인센티브 적용 개시일자는 카자흐스탄 조세법과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상에 반영, 설정된다.
- 특별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인의 활동이나 지하자원 이용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 정부로부터 현물 공여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 관세 면제 혜택

-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면제된다.
- 관세면제 기간은 인센티브 제공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되 계약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다.
- 위의 관세면제 혜택 공여 결정에 대해서는 소관 정부기관이 관세 관련 국가 기관(세관)에 5근무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정부의 현물공여

- 카자흐스탄 정부의 소유로 돼 있는 현물도 투자법인에게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제공된다. 투자 소관 정부기관(주로 투자위원회)은 국가 자산 및 토지 관리 당국과의 조율(동의)을 거쳐 투자법인에게 현물에 대한 무상 임시 사용권이나 무상 임시 토지 사용권(보유권)을 공여한다. 요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국가 공여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 이후 투자법인이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투자의무사항들을 정히 이행할⁸⁾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 소관 기관에 의해 현물이나 토지 소유권 자체를 무상 양도받을 수도 있다.

-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공여 현물로는 부지, 건물, 설비, 기계 및 장비, 컴퓨터, 계측제어 장치 및 기기, 운송수단(승용차 제외), 제조설비 및 도구 등이 있다.
- 정부 공여 현물의 가격은 카자흐스탄의 제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감정)되는데, 투자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의 30%를 초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투자법인이 신청한 공여현물의 가격이 투자규모의 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차액을 지불하는 조건하에 신청한 공여현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5. 진출형태별 절차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자본 참여비율 제한과 관련하여 합작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다만 외국인이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합작회사를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참여(자본) 비율은 최대 49% 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의 유형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카자흐스탄 비거주 외국인도 현지 합작회사의 이사로 등재가 가능하여 합작회사의 외국인이 설립자가 될 수 있으며, 사장(이사)이 되려고 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노동 사회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작회사가 현지 사업자의 설계 서비스 계약을 하고 당사로부터 하청을 주는 형태로 사업 수행 시 합작회사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하여 합작회사가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합작회사가 건설을 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투자규모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건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여야 한다.

향후 합작회사의 능력 부족 등으로 합작회사 폐쇄 시 당사에 돌아오는 문제에 관하여 합작회사의 폐쇄의 정확한 원인에 따라 당사에 돌아오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유한책임 회사 유형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외국기업과 서비스계약을 통한 해외 송금 시 세금이 부과되며,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 될 수입을 해외로 송금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 유한책임회사

1) 회사의 조직

- 최고 의사결정 기구: 사원총회
- 업무 집행 기구: 이사 또는 경영진
- 감독 기관: 검사관 또는 검사관 위원회

2) 의결 정족수

- 정관 개정, 구조조정 및 정리 결정: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3/4 찬성
- 회사 자산의 저당 담보: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100% 찬성
- 기타 사안: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50% 찬성

3) 설립 구비 서류

- 회사 정관
- 설립 계약서

4) 설립자본금

- 최소 127,300 텡게(약 848.6달러)
 - 현금 또는 자산(부동산, 설비, 토지 등)
 - 회사 설립자본으로 23,360천 텡게(약 194,000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투입 할 경우 전문 평가 기관(회사)이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5) 설립자의 자격 요건

- 개인 또는 법인
- 카자흐스탄 국민 또는 외국인
 - 설립자 수에 제한은 없으나, 1인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으며,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6) 증권 발행 요건

-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경우 증권 발행 가능

7) 외국인 참여 조건

- 외국인 참여 비중의 제한은 없음. 외국인 개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노동 비자가 필요하다.
- 외국인이 사장이 되려고 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주식회사**1) 회사의 조직**

- 최고 의사결정 기구: 주주 총회
- 의결 기구: 이사회
- 업무 집행 기구: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
- 감독 기관: 감사관 위원회 및 내부감사 조직

2) 의결 정족수

- 정관 개정, 구조조정 및 정리, 주식 발행 부수 변동 결정: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3/4 찬성
- 기타 사안: 주주총회 참석인원의 50% 찬성

3) 설립 구비 서류

- 회사 정관
- 회사 설립 계약서(설립자 2명 이상 경우)

4) 설립자본금

- 최소 63,650천 텡게(약 424,333.3달러)
- 현금 또는 자산(부동산, 설비, 토지 등)

5) 설립자의 자격 요건

- 개인 또는 법인
- 카자흐스탄 국민 또는 외국인
- 설립자 수에는 제한이 없음.
-

6) 증권 발행 요건

- 금융 감독원에 등록할 경우,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 가능
- 보통주(ordinary shares):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수입액에 따라 배당을 받으며,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달리 주주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 우선주 (privileged shares):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수입액과 관계 없이 정해진 배당을 받으며, 회사 정리 및 배당 분배 시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 외국인 참여 조건
- 외국인 참여 비중은 제한이 없다.
- 외국인이 사장이 되려고 할 경우에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법인 등록 절차

2004년 3월에 개정된 법인, 지사 및 대표사무소 등록에 관한 법에 의하면 법인, 현지 사무소, 지점의 등록 절차는 원-스톱 샵 원칙을 도입하여 10일 이내 법무부, 통계청 및 세무당국에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현지 법인 또는 현지 사무소,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면 법무부에 모든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 접수 후 법무부에서 등록절차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통계청으로 보내지고, 통계청은 기업에게 일반 통계카드 번호와 경제활동 분류 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세무당국으로 모든 서류가 보내지면서 세무 고유번호와 함께 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법무부로 재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법률상 신청부터 등록까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 법인 등록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유한회사의 경우 3~4주, 주식회사의 경우 5~6주 이상이다. 또한 법인을 설립한 후에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법인 인감을 만들고,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각종 거래나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 대표 및 그 대리인의 서명과 함께 법인 인감의 날인이 필요한데 이는 거래나 임금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위해서는 사전에 법인형태, 즉 유한책임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기타 회사인지와 현지 법인의 대표자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인의 사원이나 주주가 2인 이상이라면 설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설립계약서를 통해 법인의 형태나 투자범위 등이 결정되므로 이를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 등록 시 현지 사무소를 준비했다는

임대차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법인 등록 전,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인이라면 외국에서 준비할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은행잔고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내외국인 여부, 법인 또는 개인여부, 특정 사업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정관
- 외국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 은행잔고 증명서
- 위임장(현지 대표자에게 권한 부여)
- 위임장(법인설립을 현지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 법인 설립 신청서
- 법인의 정관
-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임대차(주소지) 확인서
- 법인 설립 등록 수수료 납부 증명서
- 현지 대표자의 여권사본
- 미납 조세 부존재 확인서(필요한 경우에만)
- 기타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위 서류는 모두 러시아어 및 카작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정관, 위임장(법인설립을 현지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의 서류는 외국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공장 설립 관한 구비 서류 및 등록 절차

- 우선적으로 회사(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등록해야 한다.
- 새로운 공장 건설 또는 공장 재구성할 경우 공장의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 새로운 공장 건설 또는 공장 재구성할 경우 다음 기관에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시(구)청 하에 건축 관련 관청의 허가증
 - 국가 건축도시설계 센터의 허가증
 - 대규모 공장 경우 시청의 소방서(소규모 공장 경우 구청 소방서)의 허가증
 - 대규모 공장 경우 시청의 위생국(소규모 공장 경우 구청 위생국)의 허가증
 - (환경에 해를 주는 제품 생산할 경우) 시청의 환경보호국의 허가증
- 공장 건설 및 재구성 완료 후 시청 하인 건축검사위원회가 공장을 검사한 후 결정 (통과)을 내린다.
- 건축검사위원회 통과시킨 후 공장을 국가 부동산등록평가 센터(BTI)에 등록해야 한다.
- 공장에서 건축자재, 주류, 폭발물 생산할 경우 시청을 통한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인가증 받아야 한다.
-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식품 등)이 카자흐스탄에서 정한 표준을 갖추어야 할 경우 관련 업체를 통하여 장비, 설비를 평가 결제를 받아 경제통상부에서 등록해야 한다.

9) 회사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제출 서류(외국인 법인이 카자흐스탄에 회사 설립 경우)

□ 유한책임회사(TOO)

아래의 단계별 구분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절차 준비상 관련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1단계] 법인 정관 및 법인 설립결의서 작성

- 정관에 회사명, 주소, 설립목적 및 활동, 경영진 형태(설립자 총회, 이사회 등), 설립 자본규모, 지분구조 등 기재
- 설립결의서는 법인설립자들이 설립에 관한 결정 내용을 담고 있는 의결서로서 러시아어 및 카자흐어 번역 필요

[2단계] 법인 등록 신청서 작성

- 본 자료 부록에 있는 법인등록신청서 양식을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각각 3부씩 작성
- 본국 법인등기부등본의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번역본(외국법인이 설립자가 될 경우)

[3단계] 서류 공증

- 법인 정관의 공증
-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上記 본국 법인등기부등본의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번역본의 공증(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가능)
- 외국인 개인이 법인의 설립자가 될 경우, 설립자의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의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번역본
- 법인 설립결의서의 공증

[4단계] 기타 구비서류 준비

- 카자흐스탄 내 설치될 법인의 사업장 거주지주소 증명: 사무실 등 사업장의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갈음.
- 외국법인의 경우,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채무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지방 세무서에서 발급)
- 법인 등록수수료 납부증명서
 - 아래 5단계의 절차 완료 시 수취

[5단계] 법인설립 등록수수료 납부

- 접촉기관: 지방 세무서
- 납부처: 실제 납부는 시중은행에서 함
- 소요비용
 - 주식회사: 약 188달러
 - 유한책임회사: 중기업- 약 188달러, 소기업- 약 47달러

[6단계] 구비서류의 제출

① 접촉기관: 관할 지방 법무국

- 제출 서류
 - 법인 등록(설립) 신청서(부록 참조)
 - 법인 정관(2부)
 - 설립의결서(공증)
 - 설립자의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공증)
 - 설립자의 납세자 등록증명서
 - 법인설립 등록수수료 납부 증명서
 - 현지 채무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카자흐스탄 내에 설립될 법인의 거주지주소 증명서
 - 본국 법인 등기부등본
- 접촉 목적
 - 법인 등록(설립) 증명서(부록 참조) 및 정관상에 법무부 등록확인 날인 취득

② 접촉 기관: 통계청

- 제출 서류
 - 법인 등록(설립)신청서
 - 법인 정관 사본
 - 설립자의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공증)
 - 회사(법인) 사장의 임명 결정서
 - 접촉 목적: 통계카드 취득

③ 접촉 기관: 세무서

- 제출 서류
 - 법인 등록(설립)신청서
 - 공증 받은 법인 정관
 - 공증 받은 법인 등록(설립)증명서의 사본
 - 공증 받은 설립자의 여권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
 - 공증 받은 통계카드의 사본
 - 회사(법인) 사장의 임명 결정서
 - 카자흐스탄 내에 설립될 법인의 거주지주소 증명서

- 접촉 목적: 납세자 등록증명서 취득
- 관할 지방 법무국에 등록완료 후 10일 내에 세무서에 구비서류 제출 필요

④ 관세청(무역업 등록의 경우)

과거에는 위와 같이 법인설립자(또는 대행인)가 일일이 해당관청들을 방문하여 별도로 각각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최근 규정이 개선돼 접수창구가 법무부(국)로 일원화 되었다. 따라서 법무부(국)에서 서류 접수 후 통계청, 세무서 등을 거치는 등 일괄 처리하고 있다.

[7단계]법인 등록증명서 수취

- 접촉기관: 관할 지방 법무국
- 접촉목적: 법인 등록증명서 취득. 동시에 법인정관상에 법무부의 확인 날인취득

[8단계]법인 직인의 신청, 제조 및 등록

-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직인의 신청, 제조 및 등록에 관한 권리 인장제조업체들이 보유
- 법인 직인 제작에 필요한 구비서류
 - 법인 등록증명서 사본
 - 통계 카드 사본
 - 납세자 등록증명서 사본
 - 회사 사장의 신분증 사본

[9단계]공식 구좌 개설

- 접촉 기관: 카자흐스탄의 모든 상업은행
- 구비서류
 - 법인 정관 사본(공증)
 - 설립의결서 사본(공증)
 - 본국 법인등기부등본(카자흐어 및 노어 번역 공증)
 - 납세자 등록 증명서 사본
 - 통계카드 사본
 - 법인 등록 증명서 사본
 - 회사 사장의 신분증 사본

[10단계] 업무 개시

□ 주식회사

【1-10단계】유한책임회사의 절차와 동일

【11 단계】주식 발행 허가 신청

- 접촉 기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
- 접촉 목적: 주식발행 허가 취득
 -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등록 후 1개월 내 회사의 설립자가 금융감독원에 주식 발행 허가 신청
- 구비서류
 - 본 자료 3장 <주식발행 및 규정> 참조
- 법인등록 소요 기간: 보통 10~15일
- 법인설립 등록대행
 - 현지 변호사(법률회사)가 회사 설립 등록을 대행할 경우, 설립자가 변호사(법률회사)에게 위임장을 교부
 - 법인등록 소요비용
 - 유한책임회사: 300~500달러
 - 주식회사: 500~700달러
 - ☞ 변호사 대행수수료, 번역, 공증 비용 등 포함

나. 법인형태의 전환

외국회사가 카자흐스탄 현지에 설치한 대표사무소나 지사의 형태를 현지 법인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의 대표사무소나 지사를 폐업신고하고 새로이 현지 법인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대로 존속시킨 채 추가로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다.

한편, 현지 활동 전략상 법인의 형태를 기존의 유한책임회사(TOO)에서 주식회사(AO)로 전환하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법무국 법인등록과에 제출하면 된다.

- 유한책임회사 정관
- 기존법인의 법인등기등본
- 통계청 등록카드
- 법인 납세자 등록증 (PHH)
- 설립자의 법인형태 전환의결서
- 법인 양도양수확인서
- 현지 법률전문지(신문) 게재 법인전환 공고문
- 주식회사등록 신청서(소정양식)
- 주식회사 정관
- 주식회사 설립회의록
- 법인소재지 확인 증명 (사무실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 주식회사 대표이사과 경리의 신분증(여권 또는 신분증) 및 개인 납세자등록증(PHH) 사본
-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등록수수료는 약 65달러)이며, 소요기간은 서류접수일로부터 보통15일 내외가 걸린다.

1) 대표사무소 설립

- 외국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을 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대표사무소, 지사를 설립한다.
-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직접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현지 업체와 모기업과의 중간 역할 및 모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2)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구비 서류

- 지사 혹은 대표사무소 등록 신청서
- 법인의 지사(대표사무소) 설립 결의서 3부(러시아어 및 카자흐어 번역)
 - 설립 결의서에는 반드시 법인의 사장의 서명 및 법인의 도장이 있어야 함.

6. 투자입지여건

가. 경제특구

경제특구법령은 1996년 1월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최신 개정법은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특구지정에 대한 결정권이 대통령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특구 설립은 대통령령으로 승인된다. 경제특구는 최고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나 카자흐스탄 경제 특구법은 국제 이중 과세조약 등과 같은 국제협약과 내용상 차이가 있어 이에 주의해야 한다.

1) 아스타나 경제특구

아스타나 경제특구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있는 경제특구 가운데 하나이며 Ishim강 좌안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5,900.9헥타 면적의 아스타나 경제 특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이다. 아스타나 경제특구 인프라, 행정, 주택 등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다.

- 특구 내에서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한 상품, 용역 등의 매출액은 VAT 면제
-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특구로 수입되는 상품, 장비는 VAT 영세율 적용
- 인프라시설, 행정, 주택 등 공사부지는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토지세 면제
- 경제특구 지속기간 동안 특구에서 건설된 모든 건축물은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 내 관세 면세혜택 적용

2)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

아스타나 경제특구에 이어 2003년 1월 1일에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크타우 항만지역은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982.3 헥타르이며 경제특구 지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크타우 경제특구에서 사업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면제
- 지정부문과 일치한 사업을 할 경우 생산시설부지는 토지세 면제
- 지정부문 생산설비는 자산은 재산세 면제
- 경제특구내 관세면세혜택 적용

아크타우 항만 경제특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화학산업
- 고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비금속 무기질(mineral) 제품 제조업
- 야금산업
- 금속 완제품 제조업
- 장비, 기계 제조업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경제특구 세무당국에 납세자등록업체
- 지정사업부문과 일치한 사업영위
- 생산품 매출액은 기업소득 중 90% 차지
- 경제특구 외 지역에서 회사조직 운영 금지

3) 알타라우 IT 파크

2003년 10월 1일 카자흐스탄 세 번째 경제특구인 알타라우 IT 파크는 알마타에 위치 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342 헥타다. 그 지정기간은 경제 특구는 현행법이 허용한 최대 기간인 10년(2013년 9월 30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 50% 감면
- IT 산업 사업자 경우 시설부지는 토지세 면제
- IT 산업 사업자가 투입한 설비투자는 재산세 면제
- IT 산업 지정사업 매출은 VAT 면제
- 경제특구 내 관세면제 혜택적용

알타라우 IT 파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S/W, H/W 등의 개발, 도입, 시험생산, 대량생산
- 인공지능(AI)기반 IT 개발
- 다양한 IT 프로젝트 개발 목적으로 R&D 사업

알타라우 IT 파크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경제특구 세무당국에 의한 납세자등록업체
- 지정 사업부문과 일치한 사업영위
- 지정 사업활동의 매출액은 기업소득 중 90% 차지
- 경제특구 외 지역에서 회사조직 운영금지

4) 온투스틱 경제특구

2005년 7월 1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정한 온투스틱 경제특구는 남카자흐스탄주 사이람 지역의 200헥타르의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015년 6월 30일 까지이다. 이 경제특구의 목적은 석유 제품의 수입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석유 생산 및 봉제산업 육성이며,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기업체들을 남카자흐스탄에 유치시키기 위함이다.

온투스틱 경제특구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 산업은 다음과 같다.

- 면가공업
- 섬유생산
- 봉제산업
- 고가의류 생산
- 신소재 내의 및 기타의류 관련 상품의 생산업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경제특구 내 세무 당국에 납세자 등록을 한 업체
- 위 지정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
- 위 지정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생산품 매출액이 기업소득 중 90%이상인 업체
- 경제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 회사 조직 운영 금지.

그 동안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가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한 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정부가 기준을 바꿔서 석유화학부문 기업에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이 조치는 대통령승인절차 생략 등 경제특구법 규정 범위를 넘은 특별세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석유화학부문 특별세제 시행도 유지 가능한 투자규모가 주요 판단기준이 됨에 따라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직접적인 특혜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입주 추진이 용이하다. 또한 유사 업종이 많이 입주해 있다면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산업단지는 리싸콥스크, 빠블로다르, 쿠르차토프가 있다.

1) 리싸콥스크 산업단지

리싸콥스크시는 광업 및 관련공장의 기초하에 1971년 설립되었다. 1993년에 산업단지가 설립된 후 도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리싸콥스크시에서 500여 제품이 생산되며 주요 산업 분야는 채광업, 가공 공업이다. 도시 인구는 약 3.9으로 민족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민족	명수	비중 (%)
카자흐인	6,200	15.8
러시아인	20,914	53.2
우크라이나인	6,508	16.6
백러시아인	944	2.4
독일인	3,173	8.1
타타르인	567	1.4
기타	997	2.5

2) 빠블로다르 산업단지

빠블로다르시는 1720년도에 설립된 산업도시이며, 도시 인구는 35만 명으로 추산된다. 빠블로다르시는 주요 철도 분기점이며 산업의 중심지로 석유가공, 알루미늄, 트랙터, 철, 조선 공장과 식료품 및 경공업 공장이 있다.

3) 쿠르차토프 산업단지

쿠르차토프 산업단지는 1947년도에 세미팔라핀스크 핵실험장 기초에 설립되었다. 도시의 대부분의 시민은 핵실험 사업에 관련 군인, 학자 및 관계자들이다. 도시에 수많은 의학, 생물학, 물리, 수학 연구소와 실험실 및 기계제작 공장이 있다. 현재 쿠르차토프 시에는 국립 핵센터가 설립되어 원자로 안전연구, 지진파 연구, 태양 방사에너지 등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학자들이 참여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다. 카자흐스탄 소재 법률회사 명단

□ Secret Service

- 주소: 82 A, Tole bi Str., Almaty
- 전화: (7-727) 2612-349, 261-0860
- 팩스: (7-727) 2610-860
- E-메일: secretservis@mail.ru
- 담당자: Mr. Ermakov Alexandr

□ Aequitas

- 주소: 47/49 Abai Avenue, Suite 2, Almaty
- 전화: 7-727-2581-691, 2581-692
- 팩스: 7-727-2503-873
- 담당자: Ms. Olga Chentsova

□ Baker & McKenzie

- 주소: 97 Zholdasbekov Str., Samal Towers, Samal-2, 14th floor, Almaty
- 전화: (7-727) 330-0500
- 팩스: (7-727) 2584-000, 2509-579
- 담당자: Mr. Curtis Masters

□ Chadbourne & Parke

- 주소: 157 Abai Avenue, 7th floor, Suite 27-28, Almaty
- 전화: (7-727) 2509-473
- 팩스: (7-727) 2509-474
- 담당자: Mr. Erlanbek Zhusupov

□ Denton Wilde Sapte

- 주소: 96, Baitursynov Str., Almaty
- 전화: (7-727) 2581-950
- 팩스: (7-727) 2581-905
- E-메일: almaty@dentonwildesapte.kz
- 담당자: Ms. Marla Valdez

□ Grata

- 주소: 39, Gogol Str., Almaty
- 전화: (7-727) 2590-112
- 팩스: (7-727) 2590-198
- E-메일: info@grata.kz
- 담당자: Mr. Arkadiy Kuldabayev

□ Michael Wilson & Partners

- 주소: 5, Al-Farabi Ave, Almaty
- 전화: (7-727) 2501-570
- 팩스: (7-727) 2584-894,90
- 담당자: Mr. Michael Wilson

□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 주소: 153/50A Zharokov Str., Almaty
- 전화: (7-727) 2752-667, 2746-191
- 팩스: (7-727) 2752-767
- 담당자: Ms. Zhanina Usenova

□ LeBoeuf Lamb, Greene & MacRae

- 주소: 38, Dostyk Ave., Almaty
- 전화: (7-727) 2507-575
- 팩스: (7-727) 2507-576
- E-메일: info@llgm.kz
- 담당자: Mr. Shyngysov Aset

라. 카자흐스탄 소재 회계법인 명단

□ PRICE WATERHOUSE COOPERS

- 주소: 29/6, Satpayev Street, 050029, Almaty
- 전화: (7-727) 2980-448
- 팩스: (7-727) 2980-252
- E-메일: s.k@kz.pwc.com
- 홈페이지: www.pwc.com
- 담당자: Ms. Sabina Kaukerbekova

□ ERNST & YOUNG

- 주소: 77/7 Al-faraby, , Almaty
- 전화: (7-727) 2585-960
- 팩스: (7-727) 2585-961
- 홈페이지: www.ey.com/kazakhstan
- 담당자: Jody Cambell

□ DELOITTE & TOUCHE

- 주소: 240 V, Furmanov Street, Almaty
- 전화: (7-727) 2581-340
- 팩스: (7-727) 2581-341
- E-메일: almaty@deloitte.kz
- 홈페이지: www.deloitte.kz
- 담당자: Mr. Bikenov Nurlan

□ CHADBOURNE & PARKE/ZANGER

- 주소: 43 Dostyk Street, Almaty
- 전화: (7-727) 2585-088
- 팩스: (7-727) 2509-474
- E-메일: zanger@arna.kz
- 담당자: Mr. Zhusupov Erlanbek

□ ELTAL-UWENMAN CONSULTING

- 주소: 250, Baizakov Street, Almaty
- 전화: (7-727) 2681-812
- 팩스: (7-727) 2547-739
- E-메일: borlas@eltal-borlas.com
- 담당자: Mr. Omarov Talgat

□ BRACEWELL & GIULIANI

- 주소: 57, Amangeldy Street, Almaty
- 전화: (7-727) 2581-400
- 팩스: (7-727) 2538-581/444
- E-메일: everybody@bracewellgiuliani.kz
- 홈페이지: www.bracewellgiuliani.kz
- 담당자: Mr. Gregory Vojack

□ DENTON WILDE SAPTE

- 주소: 38 Dostyk Street, Almaty
- 전화: (7-727) 2581-950
- 팩스: (7-727) 2581-905
- E-메일: Almaty@dentonwildsapte.kz
Iskander.zhanaidarov@dentonwildsapte.com
- 홈페이지: www.dentonwildsapte.kz
- 담당자: Mr. Iskander Zhanaidarov

□ MACLEOD DIXON

- 주소: 1/1 Dzhandosov Street, Almaty
- 전화: (7-727) 2509-380
- 팩스: (7-727) 2509-382
- E-메일: alexey.bukhtiyarov@macleoddixon.com
- 홈페이지: www.macleoddixon.com
- 담당자: Mr. Alexei Bukhtiyarov

7. 노무관리

가. 임금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국가 예산법에 의해 13,717텡게(약 91달러)수준이지만 실제 임금은 대졸 초임이 약 400~500달러 정도이다. 고용계약체결 당시 급여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순 급여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은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영어 또는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른 실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월 평균 임금은 2008년 기준으로 74,490텡게(약 496.6달러)이다. 임금은 지역별 차가 큰 편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티라우 주로서 약 137,625텡게 (약 917.5달러)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잠빌스크주로 46,530텡게 (약 310.2달러)로 약 2.9배의 차이가 난다.

나. 노동 조건

1) 노동 관련 규정

□ 근로계약 유형

- 고용기간에 따른 구분
 - 무기한 근로계약
 - 유기한 근로계약
- 계약 체결주체에 따른 구분
 - 개인근로계약
 - 단체근로계약

고용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과 유기한 근로계약이 모두 가능한데, 무기한 근로계약의 경우 업무가 단기 업무이거나 임시로 결근중인 직원을 대체하기 위함이나 계절 업무인 경우 외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유기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3

개월 미만의 견습기간을 두는 계약이 가능하며 그 기간 중에는 아무런 해지 사유 없이도 고용계약상의 해지가 가능하다.

피고용인이 사업장 폐업 또는 감원 등으로 근로계약파기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정상 급여의 1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피고용인 본인의 희망에 의해 사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 주당 근로시간

카자흐스탄은 통상 주 5일(1일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업무특성 또는 근무 여건상 6일 근무제가 불가피한 사업장일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은 7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하루 표준 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초과근무로 간주되며 피고용인의 동의 하에 하루 최고 2시간까지 가능하다. 초과근무 수당은 평일은 급여의 1.5배, 휴일 및 공휴일은 2배가 지급 된다.

라. 노동법 개관

1999년 12월 10일 발효된 “카자흐스탄 노동법에 관한 법”은 모든 고용관계를 규정되고 있다. 위 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는 개별 고용계약에 근거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근거)하게 되는데, 고용계약은 노동법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근로의 장소, 근로의 개시일, 직책, 권리 의무관계, 임금 및 복지혜택 등 주요 조건과 수습기간, 비밀준수 의무 등의 부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고용계약은 서면으로만 작성 가능하다.

2000년 1월 카자흐스탄 노동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노동법 위반에 대한 많은 쟁점이 화두가 되고 있고 관련 법령 및 관행 등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007년 5월 15일에 “카자흐스탄 노동에 관한 법”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 법률인 “노동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 노동사회보호부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노동법은 근로관계 체제를 WTO 가입 기준에 맞게 변경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전통적인 원칙 및 국제법과 의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 경제 활동 인구

지난 12 년간 경제 활동 인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주요 원인은 해외이민자 수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다.

1989~2000 년 사이의 해외이민자 수는 약 200 만 명에 이름.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해외 이민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이 증가되는 상태이다.

2007 년 12 월말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인구는 15,556,000 명을 넘었다. 또한, 최근 들어 처음으로 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온 정착자 수는 해외이민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 카자흐스탄 고용노동자 현황

연도	고용 노동자 수(천 명)
2004	4,438.6
2005	4,676.6
2006	4,784.7
2007	4,973.0
2008	7,857.2
2009	7,955.2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연도별 평균임금

연도	평균임금(USD)
2004	258.2
2005	270.3
2006	420.7
2007	430.2
2008	496.6
2009	439.4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2009년 09월 기준 최신자료

카자흐스탄 지역별 평균 월급 현황(2008년~2009년 상반기 기준)

지역명	2008년 급여(USD)	2009년 급여(USD)*
악몰린스크	346.6	217.4
악투빈스크	463.5	224.1
알마틴스크	366.3	186.5
아티라우스크	917.5	529.4
동 카자흐스탄	399.1	210.2
잠빌스크	310.2	188.2
서 카자흐스탄	490.5	246.6
카라간딘스크	441.9	225.1
쿠스타나이스크	362.8	206.5
카질오르다스크	440.7	211.1
망기스타우스크	816.05	433.2
빠블로다르스크	431.6	232.8
북 카자흐스탄	328.8	193.8
남 카자흐스탄	344.4	171.0
아스타나 시	740.7	425.2
알마티 시	745.7	408.1
평균	496.6	233.4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

주*) 2009년 2월 20%이상의 현지화(KZT-텡게)의 절하로 달러기준 임금이 급격히 줄.

카자흐스탄 업종별 평균 월급 현황(2009년 상반기 기준)

(단위: 달러, %)

업종	2008	2009
금융, 은행	962	919
광업, 석유, 가스	938	794
교통, 통신	588.9	615
호텔, 레스토랑	103.1	430
공무원	352.5	415
교육	754.3	308
보건	347.3	317
건설	548.9	606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바.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지는 납세의무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맺은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그의 카자흐스탄 체류 기간이 183일 초과하지 않고, 또 근로에 대한 임금이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이나 고정사업 장(P E)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 카자흐스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카자흐스탄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소득,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나라마다 조약규정 내용과 개별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사.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노동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구비 서류 및 절차

고용주가 市の 시청 또는 州 정부로부터 받은 노동허가를 근거하여 고용 희망 할 외국 근로자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국에서 카자흐스탄 노동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 市の 시청 또는 州 정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가 필요 없다.

- 외국법인장, 외국 회사 지사장 및 지점장 경우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출장 와서 1년 내 총 45일 미만 체류할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와 투자에 관한 계약서(투자 규모가 5천만 불 이상)를 체결한 회사 사장이나 기관장. 또는 카자흐스탄의 투자 관련 국가기관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카자흐스탄 경제의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는 카자흐스탄 법인(카자흐스탄에서 등록된 법인)장 경우
- 은행장 또는 보험회사 사장 경우
- 카자흐스탄이 최소 50% 지분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사장 경우
- 외교관 경우
- 봉사단장
-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외국 매체의 종업원
- 외국의 항공기 승무원, 선원, 열차 및 차량 종업원 경우
- 배우 및 선수 경우
- 개인 사업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가)
-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를 취득한 경우

아. 노동 허가 취득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노동 허가 관련 정부 규정은 2007년 12월 17일에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노동허가 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 기존에는 2단계로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의 수 및 자격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에 3단계로 실제 고용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 했어야 했지만, 현재 규정에 의하면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하여 외국인 개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노동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1) 1단계: 우선 카자흐스탄 내 필요한 자격을 갖는 종업원 구해야 하는 과정으로 현지 인력으로 충당 안 될 경우

국영 신문에서 카자흐어('Egemen Kazakhstan', 'Almaty Akshamy') 및 러시아어로 ('Kazakhstanskaya Pravda', 'Vecherny Almaty') '종업원을 구함'이란 광고를 내야 한다. 위 신문에서 광고를 낸 후 3일 내 통계청에 상기 일자리가 있는 것(종업원을 구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종업원을 구하는 광고를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의 공식 사이트 www.enbek.kz에도 게재해야 한다.

신문에서 광고를 낸 1개월 후 고용주가 외국인의 노동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고용 관련 국가기관에 제출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기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몇 명, 자격, 직업) 유인 신청서
- 고용주를 증명하는 정보(회사의 품목,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회사 등록 증명서 사본, 정관 사본, 통계청에서 발급된 통계카드(통계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납세자 증명서 사본)
- 그 동안(1개월 내) 카자흐스탄 내에서 필요한 자격의 근로자를 구한 증명 서류 (신문 광고 원본,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복지부의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증명 서류 등)
- 고용 희망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자격 증명서, 학력, 경력, 해외에서 일한 경험 증명서 등)

2) 2단계

외국인의 노동허가는 외국인 인력을 분류하여 그에 따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제출 서류도 차이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제1류- 대학 출신자로서 해당 경영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
- 제2류- 직업분류표에서 정한 각 경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제3류- 전문 숙련 근로자
- 제4류- 국제 노동력 이동 협약과 계절 노동자의 보호 협정에 따라 단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 노동자

제1, 3류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와 구인광고를 게재한 신문, 과거 노동허가를 취득한 경우 당시 노동 허가에 부수한 조건 및 그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서, 현지인이 채용 신청을 한 경우 그 거절 사유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보,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제4류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고용 관련 국가기관이 내린 외국인 근로자의 유인에 대한 결정 및 고용주가 제출한 서류를 市の 시청 또는 州 정부에게 제출한다. 市の 시청 또는 州 정부는 외국인 고용 합목적성에 대해 최후적인 결정을 내린다. 市的 시청 또는 州 정부는 승낙의 회답을 한 경우 고용주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한다.

(자료: 카자흐스탄 법률회사 'Aqitas')

8. 조세제도

가. 개요

2002년 1월 1일 발효된 카자흐스탄 조세법은 국제적인 조세 규범을 모델로 삼아 제정하였기 때문에 이전 조세법 보다는 형평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세법의 실제 적용과 집행 측면에서는 세부 규정이 미흡하고 불투명하며 일관성이 크게 결여되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이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카자흐스탄의 현재 주요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20%
- 부가가치세(VAT):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5~20%
- 개인소득세: 20%
- 재산세(property tax): 1% (비영리기관: 0.1%)
- 토지세(land tax): 농지-0.48~202.65 텡게/ha, 도시지역부지-0.48~28.95 텡게/ha
- 소비세(excise duties): 품목별 차등
- 운송세: 운송수단별 차등 (4~117 MCI, 1.030 텡게)
- 경매세(auction fee): 3%

□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를 포함 3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나. 법인소득세

1) 개요

카자흐스탄의 조세법은 세법, 대통령 및 정부법, 재무부의 조세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2년 1월 1일 대폭 개정된 조세법인 발효되었다.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법규는 2003.1.8 발효된 투자법인 데 지방자치 해당주의 위원회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보호하는 내용과 특별경제구역 내의 우대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처벌법은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벌칙규정을 다루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법 위반을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죄로 여겨지는 세법 위반행위는 과세표준을 2,000 월계산지수 (1월 계산지수 = 1,168 텡게)를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국세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구조는 분류과세 시스템으로서 이익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개인 단계에서 다시 과세를 하는 체제이다. 모든 거주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배당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2)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세법은 모든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는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모든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며, 거주 법인은 모든 지역에서 창출한 소득

에 대해 과세한다. 비거주 법인은 카자흐스탄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거주 법인의 개념은 카자흐스탄 법률에 의해 세워진 법인이거나 카자흐스탄 내에 관리 장소나 운영실체가 실제로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이전 1년으로 1.1~12.31이다.

4) 과세대상소득

-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 건물·설비 및 기타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수동적인 소득
- 상금
- 대손상각한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재고 평가 이익
- 역외 자회사의 일부 소득

5)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오직 발생주의만을 인정한다.

6) 필요경비

-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상의 필요경비는 과세 소득의 실현과 관계된 경우에만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배당: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자: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
- 로열티(무형자산 포함): 지질 탐험, 광물자원의 개발이나 발굴에 대한 권리 취득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은 자산화할 수 있으며 15%의 감가상각율로 필요경비를 계상 가능하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노하우(Know-how),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권리(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지급액에 대하여는 15%의 감가상각율로 필요 경비를 계상 가능하다.
- 기부금: 법적으로 인정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현금이나 재산을 기부한 경우 과세 대상소득의 3%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감가상각비

그룹 번호	자산의 표시	최대 감가상각율
1	건물과 구조물(오일과 가스벽, 운송장치 제외)	10
2	기계와 비품(오일과 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것 제외)	25
3	컴퓨터	40
4	기타 자산	15

7) 원천징수

- 배당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카자흐스탄 거주자인 은행에 지급된 이자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원천징수된 이자를 수취하는 거주자인 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로열티 소득: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없다.
- 기타의 소득: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없다.

8) 세무행정

- 신고
 - 신고기한: 결산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신고서 및 회계·재무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조사
 - 세법상으로는 신고서 제출 이외에는 다른 서류의 제출의무가 없다. 그러나 조사 공무원은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감사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사 실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납세방법
 - 소득세는 자진납부 방법에 의하여 납부되어야 하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부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 불복청구
 - 불복청구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안에 할 수 있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인 불복청구는 상급 과세당국이나 법원에 할 수 있다.
- 예납제도
 - 법인은 당해연도의 소득세 예상액의 12분의 1을 매월 선납하여야 한다. 매월 선납하는 세금은 매월 20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로부터 징수한 원천징수세금의 납부
 -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법인은 아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5일 이내 소득이 미지급되었으나 동 소득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소득세 신고 후 10일 이내
- 가산금
 -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율은 국립은행이 정한 연간 부채재상환비율의 2.5배이다. 예를 들어 2006년 부채재상환비율은 8%이므로 가산금은 1일에 0.055% ($2.5 \times 8\% / 365$ 일)이다.

다. 개인소득세

1) 개요

- 카자흐스탄은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과세한다.
 - 개인소득세
 - 토지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과세기간: 1.1~12. 31
- 개인소득세는 연계산 지수에 의거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가치에 따라 과세된다.

2) 조세구조의 형태

- 거주자
 -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외국납부세액은 카자흐스탄 세액 계산시 공제된다.
- 비거주자
 - 카자흐스탄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3) 용어의 정의

- 거주자
 - 카자흐스탄 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개인 또는 카자흐스탄 내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지는 개인
 - 체류지와 관계없이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
- 계속적으로 거주함의 의미
 - 어느 12개월의 기간 내에 183일 이상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것
 - 3개의 연속된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카자흐스탄 내에 거주하는 것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아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이다.
 - 카자흐스탄 국민이거나 카자흐스탄 거주허가증을 가진 개인
 - 카자흐스탄 내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사는 개인
 - 개인이나 그의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목적으로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4) 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및 고용관계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
- 투자소득
 - 이자, 배당의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 및 자본이득

- 과세방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되며 자본이득은 자진신고 납부를 통해 과세된다.
 - 배당소득: 15%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된다.
 - 이자소득: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15%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은행적금에 대한 이자는 면세.
 - 로열티 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 부동산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부동산양도소득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사업소득과 자본이득은 개인의 총 소득에 포함된다.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 중소기업을 위하여 특별세금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제도 하에서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관련하여 간편납세제도가 적용된다.
 - 전문직소득: 변호사와 개인 서기의 소득은 총액 기준으로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 파트너십의 소득: general partnership과 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이며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된다. Simple partnership과 consortia(조합의 하나)의 개인조합원은 개인단계에서 과세된다.
 -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대신하여 간편토지세만이 과세되며 간편토지세는 토지가격의 0.1%로 과세된다.
 - 사업소득의 계산: 법인의 소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나 특별세금제도가 적용되는 개인기업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 자본이득
-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개인의 총소득에는 사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아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이 포함된다.
 -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귀금속, 보석, 예술품

5) 세율구조

- 기본세율: 10%(2007년 귀속)
- 최저임금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연간 소득이 월 최저임금인 12,025텐게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된다.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카자흐스탄 원천의 비거주자의 소득은 총액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된다.
 - 이자 및 배당소득: 15%
 - 손해보험에 의거 지급하는 보험료: 10%
 - 재보험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보험료: 5%
 - 국제운송용역: 5%
 - 기타소득: 20%

6) 자본에 대한 세금

- 순자본세: 카자흐스탄에는 순자본세가 없음.

- 재산세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과세대상 재산은 주택, 아파트, 별장, 기타 건축물, 구축물로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다.
 - 과세표준: 기술상품부가 매년 정하는 재산의 가격
- 토지세
 - 개인은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나 정부부과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 고지서 발부일자: 당해연도 8월 1일
 - 납부기한: 당해연도 10월 1일

라. 급여에 대한 세금

1) 국가 사회보장연금

- 근로자는 국내인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10%의 비율로 국민연금펀드에 매월 연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펀드에 원천징수한 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급여의 10%까지 개인 전문 연금펀드에 연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이 불입액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된다.
- 고용주는 2007년에 3%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동 연금 납부액은 다음달 15일 이내에 연금펀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세

- 사회보장세는 소득을 수취하는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부담한다.
-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및 지정, 연락사무소를 둔 비거주자
- 신고납부기한: 익년 1월 15일까지
- 세율

- 내국인 근로자(07)

연 과세대상 소득(연간 계산 지수)	세율(%)
0 ~ 15	20
15 ~ 40	15
40 ~ 200	12
200 ~ 600	9
600 초과	7

주: 연간 계산 지수는 월계산지수의 12배이며 월계산지수는 국립은행이 정함.

-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전무가, 외국인 경영자

연 과세대상 소득 (연간 계산 지수)	세율(%)
0 ~ 40	11
40 ~ 200	9
200 ~ 600	7
600 초과	5

마. 자본에 대한 세금

1) 순자본세 및 자본에 대한 사업세

- 순자본세 및 자본에 대한 사업세는 없다.

2) 재산세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납세의무 제외자
 - 생산물공유계약을 체결한 광물 사업자
 - 주정부가 단독으로 투자한 법인
 - 종교 단체
- 과세대상 자산: 고정자산(소프트웨어 등 무형고정자산 포함)
- 과세표준: 자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
- 과세대상 제외대상
 - 토지세 납부대상 토지
 -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
 - 정부 결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지된 고정자산
 -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주정부 도로
 - 투자위원회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 표준세율
 - 법인: 1%
 - 개인사업자 및 간편신고대상 납세의무자: 0.5%
 - 저율 과세대상자: 0.1%
- 납부기한: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4회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계산: 역년 단위로 계산
- 확정신고납부기한: 익년 3월 31일까지
- 납부된 재산세는 법인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

3) 토지세

- 납세의무자: 토지를 소유한 모든 법인 및 개인
- 납세의무 제외 대상자
 - 생산물공유계약을 체결한 광물 사용자
 - 주정부가 단독으로 투자한 법인
 - 주정부의 기업
 - 주정부의 보상금을 받은 제2차 세계대전 퇴역군인 등
 - 종교 단체

- 과세대상 제외 재산
 - 특별자연보호구역 내 소재 토지
 - 임산물펀드나 수자원펀드에 투입된 토지

4)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 세율: 자동차의 제조국과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4~117 월계산지수까지 세율이 다양하다.
- 세액의 감액: 자동차 연령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된다.
- 세액의 납부: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7월 5일 전에 납부해야 한다.
- 신고기한: 익년 3월 31일까지

바. 부가가치세

1) 개요

- 세법 32조에 의거 카자흐스탄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부가가치세제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수입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는 모든 법인과 연간 매출액이 15,000 월계산지수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3) 고세표준 및 세율

- 재화나 용역의 실제가격(부가가치세 제외)
- 재화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 공급한 날의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
- 수입된 재화의 경우 통관가격(관련 세금 포함하되 부가가치세 제외)
- 세율
 - 일반적인 세율: 14%(2007년)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재화의 수출, 국제운송용역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카자흐스탄의 외환 관리

카자흐스탄은 1992년 IMF에 가입하였음. 1996년 7월 16일 IMF 조항의 8장에 따라 텡게 화의 태환성 보장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였다. 이에 환전이나 투자 과실에 대한 송금 등의 경상 거래에 대해 제한은 없다.

1) 통화 교환 규정

텡게화가 카자흐스탄의 공식 화폐가 되었을 때, 카자흐스탄은 금 및 화폐 보유고의 극심한 부족 현상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화 시장(Currency Market)의 발전 및 텡게화의 태환성 유지를 위하여 기업 보유 외환의 50%를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데 이 정책의 시행에는 외국 자본이 포함된 기업들은 제외되었다. 1995년 6월 10일에는 매각률이 30%로 감소되었고 동년 8월 4일 정책이 중단되었다.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텡게화의 평가 절하가 가속화되었고, 외환 시장은 급격한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9년 4월 급격한 텡게화의 평가절하 후, 통화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수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제적 외환 매각 정책을 쓰게 되었다.

국제 상품 시장의 호상화와 적절한 위기 대처로 외환 매각 정책은 몇 개월간의 시행 후 1999년 11월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시행 후 몇 가지 실질적인 행정상의 제약들이 남게 되었다.

2) 통화 규제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들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은행 규정상 혹은 조세법, 관세법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자흐스탄 내의 거주자(Resident) 간의 모든 거래는 텡게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 공식적인 은행 등의 신용 기관을 통해서만 외환의 판매, 구입, 교환이 허용된다.
- 중앙은행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국내 거주자에게 대출 형식으로 지불, 수취되는 외환은 승인된 은행 구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동의 서명한 국제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혹은 국가 비상시에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이나 금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법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필요 시 외환 거래 및 그와 관련한 거래 액수, 이율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통화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내 거주자의 수출 거래에 대한 외환 사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외환상의 수익에 대한 강제 매각을 명할 수도 있다.

3) 통화 거래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

카자흐스탄 통화법은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법적 지위 혹은 업종에 관계 없이)의 통화 거래와 관련한 라이선스 취득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00년에는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통화 거래의 목록이 라이선스 취득법에 추가되었음. 다음의 경우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통화거래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 통화 교환(Currency Exchange)을 포함하여 은행을 통한 외환상의 거래
- 소매업 운영, 서비스 제공시 외환 현금으로 거래될때
- 국내 거주자가 외국 은행(혹은 해외 금융 기관)에 텡게화 혹은 외환 구좌를 개설할 경우
- 국내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의 외환 전달 및 자본의 흐름과 관련한 거래 시

금융 시장이 성장하고 신규 금융 기관이 활발히 영업을 함에 따라 거래의 규제 및 등록에 대한 법률상의 조건이 변경되고, 통화법상의 변경을 반영하여 필수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거래의 종류도 늘어났다. 라이선스의 취득은 금융 활동 및 무역에 있어 행정적 장벽이 되므로, 통화 시장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연금 가입, 보험 및 재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는 이러한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적이지 않다.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한 정부 기관의 수도 축소되었고, 다음과 같은 거래 시에는 라이선스 취득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 수출입시 거래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하인 경우
-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국제 금융 기관의 제도적 방법으로 국내거주자가 투자하는 경우
- 제3자 구좌에 정부 혹은 정부 보증 성격의 해외 대출이 예치되는 경우: 수출 용자로 거래하는 외국 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입 거래의 용자를 위한 정부 비보증성 대출

증권 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금자산 관리업체(Pension Assets Management Companies)의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간단해졌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은 외환 거래에 관한 종합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다.

4) 현금 반입, 반출

최근까지 미화 3,000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으나, 최근 중앙은행 규정 변경으로 제한 액수가 미화 1만 달러가 되었다. 1999년부터는 법인이 현금을 반출할 경우 1%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2001년 5월 23일 이 규정도 폐지되었다.

5) 외환 거래의 등록

외환 거래의 등록 규정은 비거주자 및 그 회사가 카자흐스탄으로 자산(현금)을 반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그 등록절차를 규정하였다:

- 금융 임대(Financial Leasing)를 포함, 해외로부터 120일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 국내 거주자가 수출입 거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120일 이상 대출받는 경우
- 비거주자에 의한 직접 투자 및 유가증권 매입을 통한 간접 투자(Portfolio investment)의 경우:
 - 지적 재산권의 전면 양도에 따른 비거주자의 대금 결제의 경우
 - 비거주자에 의한 고정 자산 구매시의 대금 결제의 경우

통화 거래에 대한 보고절차 및 형식은 중앙은행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정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동 절차 및 형식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개인, 법인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

6) 통화 거래의 자유화 전망

외국 자본의 유치 및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통화 거래에 대한 통제보다는 자유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투자에 대한 수익성 향상, 리스크 감소를 위한 투자 기회 다양화에 대한 지원
- 외국 벤처(Venture)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이에 따른 기업 활동 활성화로 국가 경제의 잠재력 증강
- 카자흐스탄 주식 시장의 발전 및 발전된 제도적 방법(Instrument) 도입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무역 참여에 관한 행정적 규제 및 제약의 축소
- 비금융(Non-financial) 분야로의 외환 유입 확보

7) 투자 과실 송금 관련

투자협약 제6조에 따르면 각 투자협약국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타방 투자협약국 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유 태환성 통화로 지체없이 자국 영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타방 투자협약국 당사자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판매 또는 전면적,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입금
-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금
-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협약국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타방 투자협약국 당사자 국민의 소득
- 초기 자본 및 투자의 증진에 필요한 추가 금액

(자료: KAZINVEST)

나.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NBK)은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전체은행을 조정, 관리하고 있다.
- 1995년부터 BIS 도입 등 International Standards Transfer Programme을 추진하여 상업은행들의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고객자금의 안전성 제고 등에 주력하고 있다.
- 중앙은행 제시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인수·합병, 허가 취소 등으로 상업은행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Kazkommertsbank, TuranAlem Bank, Aljans Bank 등은 1998년 국제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1) 중앙은행의 주요 금융정책

-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기능 강화, 효율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25개 주요 원칙 이행, 은행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 은행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 개인저축에 대한 집단보장시스템 개선
- 은행간 여신거래의 상황 보장을 위해 기금제도 운용

2) 상업은행

- 현재 38개의 상업은행이 영업 중
- 외국인도 합자, 단독출자로 상업은행 설립이 가능
- 설립자본금은 상업은행 1,000만 달러, 투자은행 500만 달러이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 유지의무가 있다.
- 93년 은행감사기준 도입, 설립자본금 증액, 신규허가기준 강화, 은행간 결제제도 도입 등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 대출금리
- 94년 기업대상 융자기간은 6개월, 이자율은 중앙은행 할인율의 3%였으나 현재는 통상 은행자율로 결정하며 차입자 신용도에 따라 연 50~70% 수준으로 집계 되었다.

3) 외환제도

○ 외환관리정책

- 91년 통화법 제정 시 모든 기업은 국내은행 계좌에 반드시 외화 소득을 전액 예치해야 하며 외화매각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외환거래,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해외송금 시에만 허용하였다.
- 이후 매년 의무예치 비율을 50%, 40%, 30%로 축소하다가 95년 8월 완전히 폐지하여 기업이 외화계좌 및 외화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거래 보고의무도 면제하였다.
- 외화자산 처분 및 송금이 자유롭고 금액제한도 철폐되었으나, 대외지급 시 자금출처의 확인을 위해 상업은행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외환관리법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다.

○ 환율제도

- 92년 7월 러시아중앙은행 루블화 환율과 연계된 통합 단일환율제도를 채택하여 루블화의 달러환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이후 외환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거래량 및 시세를 기초로 일주일 단위로 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공고하고 있다.
-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 1999년 4월 4일 발겐바예프 총리와 카디르잔 다미토프 중앙은행 총재는 기업의 부도와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올해 GDP는 전년 대비 8~10% 낮아짐에 따라 기타 경제적 여파를 분석하여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환율변동 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 환율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농공은행, 저축은행, 신용은행 등 국영은행과 민간은행이 설립되었다.
- de facto peg 제도
- 2009년 1월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기존의 환율정책(de facto peg)을 고수하지만 환율변동폭은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2009년 경제정책을 공동 발표하였다.

카자흐스탄 민간 은행 현황 (2009. 5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은행명	자산규모	자기자본	순이익 2009.5
1	JSC "BTA Bank"	25,060	2,477	1,712.9
2	JSC "Kazkommertsbank"	17,662	1,386	1.115
3	JSC "Halyk Bank Kazakhstan"	12,584	1,163	91.8
4	JSC "Alliance Bank"	7,793	750	297.1
5	JSC "ATFBank"	7,264	620	4.045
6	JSC "Bank CenterCredit"	6,229	595	13.6
7	JSC "KASPI BANK"	2,116	223	24.4
8	Subsidiary Bank "BTA Bank ", JSC-"Temirbank", JSC	2,057	213	117.6
9	JSC "Nurbank"	1,936	298	14.6
10	JSC "Eurasian Bank"	1,792	181	1.762
외국은행				
1	Subsidiary Bank RBS (Kazakhstan)", JSC	976	130	0.881
2	SJSB Citibank Kazakhstan JSC	941	103	23.8
3	SJSB "HSBC Bank Kazakhstan"	787	64.6	3.5
4	SJSB "Savings bank of Russian Federation"	782	230	2.419
5	SJSB "Bank of China in Kazakhstan"	489	30.6	3.626
6	SJSB "Alfa-bank"	220	56.1	2.933
7	JSC "Delta Bank"	189	43.2	0.248
8	SJSB "KZI Bank"	55.8	18.1	1.368
9	JSC "JB "LARIBA-BANK"	46.3	25	0.446
10	JSC "Commercial and Industrial Bank of China in Almaty"	39	16.3	0.492

카자흐스탄의 은행 현황(2009년 상반기 기준)

No	은행명	주소	전화/팩스, e-mail
1	"RBS (Kazakhstan)" (renamed from "Subsidiary JSC Bank "ABN AMRO Bank Kazakhstan")	45, Khadji Mukan str., Almaty, 050059	2581-505, 2581-506 aabk@kz.abnamro.com
2	"Kazakhstan Innovational Commercial Bank", JSC	84, Sharipov str., Almaty, 050012	292-60-08, 292-01-44, 292-60-44 mail@kazincombank.kz
3	"International Bank" "Alma-Ata", JSC	38, Tulebaev str., Almaty, 050004	2507-371, 2507-637, 2503-749 lba-bank@iba.kz
4	"ATFBank", JSC	100, Furmanov str., Almaty, 050000	2583-000, 2583-111, 8-8000-800-283, 250-19-95, 259-86-89 info@atfbank.kz
5	"Subsidiary Bank "Alfa-Bank", JSC	57a, Masanchi str., Almaty, 050012	292-00-12, 292-00-21, 250-78-03 Infokz@alfabank.ru
6	"Aljans Bank", JSC	50, Furmanov str., Almaty, 050000	2584-040, 2596-787 Info@alb.kz
7	"DANABANK", JSC	111, Gogol str., Almaty, 050004	334-16-50 danabank@db.kz
8	"Bank the Positive" (Subsidiary bank of Bank of Apoalim B.M.) JSC (renamed from «Demir Kazakhstan Bank», JSC)	83, Tole by str., Almaty, 050012	244-92-44-50, 44-92-35 demirbank@demirbank.kz
9	"Eurasian Bank", JSC	56, Kunayev str., Almaty, 050002	250-86-07, 250-86-06, 244-39-24 info@eurasian-bank.kz
10	"House Construction Savings Bank of Kazakhstan", JSC	91, Abylai Khan Av., Almaty, 050000	2-793-511, 2-793-568 mail@hcsbk.kz
11	"Zaman-Bank", JSC	111a, Lenin str., Ekibastuz	(71835) 5-57-70, 4-96-45, 4-93-56 info@zamanbank.kz
12	«EXPRESS BANK», JSC (renamed from "Industrial Bank of Kazakhstan", JSC)	70, Amangeldy str., Almaty, 050012	2 67-51-05, 267-48-88 info@exb.kz
13	"Kazkommertsbank", JSC	135zh, Gagarin str., Almaty, 050060	2585-301, 2585-162 service@kkb.kz
14	"BANK "CASPIAN", JSC	90, Sharipov str., Almaty, 050012	250-18-00, 2509-596 office@bc.kz
15	"Subsidiary Bank" "KAZAKHS TAN-ZIRAAT INTERNATIONAL BANK", JSC	132, Clochkov str., Almaty, 050057	250-60-80, 250-60-82 kzibank@kzibank.com
16	"Kazinvestbank", JSC	176, Dostyk av., Almaty	261-90-33, 259-86-58 www.kib.kz
17	Subsidiary Bank "Bank of China in Kazakhstan", JSC	201, Gogol str., Almaty, 050026	2585-510, 2585-514, bockz@itte.kz
18	Joint Bank "LARIBA -	181A, Rozybakiyev	2583-344, 258-34-74,

No	은행명	주소	전화/팩스, e-mail
	Bank", JSC	str., Almaty, 050060	lariba@lariba.kz
19	"Halyk Savings Bank of Kazakhstan", JSC	97, Rozybakiyev str., Almaty, 050046	2590-777, 2590-271 halykbank@halykbank.kz
20	Subsidiary Bank "National Bank of Pakistan" in Kazakhstan, JSC	105, Dostyk av., Almaty, 050051	2597-602, 2597-603 nbp_almaty@ducatmail.kz
21	«Delta Bank», JSC (renamed from "Neftebank", JSC)	73A, Tole by str., Almaty, 050000	2448-555, 2448-556, 2448-557 office@deltabank.kz
22	"Nurbank", JSC	168B, Zheltoksan str., Almaty, 050013	2500-000, 2599-710, 2506-703 bank@nurbank.kz
23	"SENYM-BANK", JSC	162 "zh", Shevchenko str., Almaty, 050008	268-10-51, 268-18-56 senimbank@itte.kz
24	"Citibank Kazakhstan", JSC	41-A, Kazybek bi str., Almaty, 050010	2980-400, 2980-399 citibank.kazakhstan@citi.com
25	Subsidiary Bank "TAIB Kazakh Bank", JSC	103, Furmanov str., Almaty 050000	258-70-30, 258-70-09 tkb@taib.kz
26	Subsidiary Organization "BTA Bank", JSC- "Temirbank", JSC	68/74, Abai av., Almaty, 050008	2587-888, 2506-241 Board@temirbank.kz
27	Subsidiary Bank "Sberbank of Russia", JSC(renamed from "TEXAKABANK", JSC)	30/26, Gogol/ Kaldayakov str., Almaty, 050010	250-00-60, 250-00-63 post@sberbank.kz
28	"Trade and Industrial Bank of China in Almaty", JSC	110, Furmanov str., Almaty, 050016	259-63-91, 259-64-00 office@icbcalmaty.kz
29	"BTA Bank", JSC (renamed from "Bank TuranAlem", JSC)	97, Zholdasbekov str., Samal microdistrict 2, Almaty, 050000	2500-100, 2505-100, 2500-224 post@bta.kz
30	"Bank CenterCredit", JSC	Panfilov str., 98, Almaty, 050000	2584-158, 2598-598 mail@centercredit.kz
31	"Tsesnabank", JSC	29, Pobeda av., Astana, 010000	(8717-2) 770-201, 770-195 tsb@tsb.kz
32	"Eximbank Kazakhstan", JSC	80, Bogenbay Batyr str., Almaty, 050010	2663-094, 2663-910 info@eximbank.kz
33	Subsidiary Bank "HSBC Bank Kazakhstan", JSC	43, Dostyk av., Almaty, 050010	2596-900, 2596-902 Info@hsbc.kz
34	«Masterbank», JSC	39A, Gogol str., Almaty	259-75-45, 259-75-44
35	«METROCOMBANK», JSC	13/1, Al-Faraby av., «Nurly Tau», build.3 «B», Almaty	259-99-99 Info@metrocombank.kz
36	"Astana-Finance" Bank", JSC	25, Samal microdistrict 3, Almaty	315-14-16, 315-14-12

주: 알마티 시 지역번호-7 727, 아스타나 지역번호 - 7 717

자료: 카자흐스탄 금감원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유망품목 및 산업별 진출 전략

1) 건축 마감재

인프라 건설과 건물 노후화, 신수도 건설 등 건물 신개축 붐으로 건축자재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자재 수입은 중국, 터키,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으나,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이 우수한 한국 건축자재류의 본격 진출 시(현지 제조업 투자 포함) 엄청난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매년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건축자재 박람회(KAZBUILD)”에 지속적인 확대, 참가가 필요하다. 2008.9.3~6 4일간 한국 건축자재 업체 16개사 참여하였으며, 활발한 상담 및 소기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2) IT 분야

알마티 인근에 IT PARK 조성 등 IT분야 발달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현지 공단 투자 진출등 유무선 통신기기, 솔루션, 인터넷 등 분야 등의 진출 적기이다.

3) 의료장비

의료장비 노후화로 개체 수요 막대하며, 유료 고급 병원 신설 등으로 현대화 된 첨단 의료장비 구매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 및 대형병원의 의료장비 입찰정보 입수, 의료 장비 납품, 노어 설명서가 구비된 다양한 제품의 의료장비 카탈로그 현지 전시회(제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 보안기기

빈부격차 심화로 치안 상황 악화, 외국 기업 사무실, 대형 상점, 고급 아파트, 은행, 서비스업의 증가로 보안기기에 대한 수요 급증 하고 있으며, 현지 유망 전문 딜러 발굴, 국내 보안기기 업체의 공동 쇼룸 운영 및 소규모 현지 생산 시설 가동하고 있다.

5)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OSCE 의장국 수임과 2011 동계아시안게임 등 대외 이미지 제고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효율화 및 천정에너지 발전 시스템 도입이 증가할 것이며, LED, Solar Generator, Solar Battery 등의 수요가 2~3년 안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농업분야

카자흐스탄은 전통 농업국가로 농산물 재배, 가공 관련 장비 수요가 높고, 현지 농장 운영, 투자(종자, 비료, 농기계 제공 등) 및 화훼 단지 운영(높은 화훼류 수입 의존도)등 현지 투자, 노후 된 농기계류 개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7) 소규모 제조설비(식품가공 및 포장기계류 위주)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낙후된 국내 제조업 생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심화, 제조업 및 유통, 물류업 활성화에 따른 소규모 제조설비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 추세이다.

소시지, 제빵 설비 등 소규모 식품 가공기계류와 포장기계류에 특화한 국내업체 진출이 필요하다.

8) 각종 식품류

고려인이 10만명 이상 살고 있어 한국산 식품류(음식)에 대한 호응이 좋으며 한국산 식품류에도 익숙한 편인 현지사정을 고려, 가공식품, 음료, 인스턴트 등의 수출은 지속될 것이다.

저렴하지만 품질이 확고하게 떨어지는 중국제와 고가 유럽제의 중간에 속한 한국 소비재들은 경기위기에 역 샌드위치 진출기회 확대될 가능성 다대하다.

나. 유망 수출 상품

- 건축마감재
- IT 관련 제품
- 의료장비
- LED
- 석유화학제품
- 농기계류
- 식품가공기계, 포장기계
- 섬유기계
- 광산장비
- 식품류
- 소형전기제품
- 주방용품
- 자동차부품
-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 자동판매기 등

다. 소비자 특성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제 고성장과 함께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소비 능력이 높아졌다. 소비자 측에선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의 의류, 신발시장, 쇼핑 센터에서 유럽, 터키, 한국 및 중국산 상품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각 소득층마다 구매 취향이나 선호도가 많이 달라지는데, 저소득층은 저가의 저품 질 제품인 중국산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중소득층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산 또는 터키산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고가의 유럽산 상품을 많이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 한국산 인지도

카자흐스탄 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은 가격대비 좋은 품질로 인지도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제품 경우, 약 55%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LG, 삼성 등 한국산 제품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된 이유는 알마티에 소재하는 LG 조립생산 공장이 이 동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제품에 이 외에도 한국산 핸드폰, 자동차 등을 현지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의 대도시인 알마티 및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및 중국산 버스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 대신 현대 및 대우 버스가 대량으로 수입돼 운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2~3년 사이 한국음식점 등 요식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한국 교민 수의 증가뿐 아니라 개인가처분소득이 급속도로 향상됨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의 식습관 다변화 및 건강다이어트 식품 관심도 향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내 대형 마트 에는 김치와 김, 김밥, 한국산 제과제품이 중상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마. 유통구조

현재 카자흐스탄에 유통 제도는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시장, 일반 가게 및 쇼핑센터들이다.

도매유통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알마티에 카자흐스탄에서 최대 규모인 유통 시장이 위치고 있다. 이 대형 시장에는 대부분 중국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반 가게에서는 터키, 폴란드, 유럽산 상품들이 소량으로 판매되고, 대형 쇼핑센터 및 전문 대리점에서는 유럽 및 미국의 브랜드 명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재 외국 슈퍼마켓 체인 중 터키의 Ramstore가 유명하고, 그 다음 러시아의 Pyaterochka, Eldorado, 현지의 Gross, Ardager, Cash&Carry, Skif Sauda 등이 슈퍼마켓 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쇼핑 센터 중 현지의 Silk Way, Promenade, City Center, Ramstore, Mega Alma-Ata 등이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서 인지도를 얻고 있다.

2. 물가정보

(1 US\$ = 148.36 Tenge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Tenge)
식품류	쌀 1kg	150
	계란 12개	220
	쇠고기 등심 1kg	800
	돼지고기 등심 1kg	1,200
	우유 500ml	100
	식용유 1L	200
	생수 1L	7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6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120
	햄버거	400
	김치찌개 1인분	1,2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20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00,000
	무연휘발유 1L	90
	자동차 등록비	8,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2,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
	시내버스 기본요금	50
	택시 기본요금	3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800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3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4,5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5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5,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5,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5,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5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6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11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출산휴가일수	126일
	연간 국경일수	13
	주5일 근무 여부	O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0

3.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를 통한 바이어발굴

협회 명칭	연락처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본사)	전화/팩스: 7-727) 277-7055, 277-7005 e-메일: info@cci.kz 홈페이지: www.cci.kz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알마티 지사)	전화: 7-727) 292-0052, 292-9075 e-메일: alcci@rambler.ru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아스타나 지사)	전화/팩스: 7-717)232-3833 e-메일: astpalata@mail.ru
카자흐스탄 라디오TV 협회	전화:7-327) 250 88 86/팩스: 7-327) 250 84 42 e-메일: nat@natkaz.kz, nat_kaz2000@mail.ru 홈페이지: www.natkaz.kz
카자흐스탄 은행 협회	전화: 7-727-273-1689 팩스: 7-727-273-9085 e-메일: kba@asdc.kz 홈페이지: www.kba.kz
카자흐스탄 출판협회	전화: 7-727-293-7046 팩스: 7-727-292-8110, 2937046 e-메일: alkitap@asdc.kz , irisha_zh@mail.ru
카자흐스탄 건설업체 협회	전화: 7-727-273-7497, 2733981 팩스: 7-727-273-7497 e-메일: askaz@nursat.kz
카자흐스탄 가구목재 협회	전화/팩스: 7-327- 242-1616 e-메일: apmdp@nursat.zk 홈페이지: www.apmdp.nursat.kz
전시회 주최 업체(ITECA)	전화: 7-727-258-3434 팩스: 7-727-258-3444 e-메일: contact@iteca.kz 홈페이지: www.iteca.kz
Atakent Expo	전화: 7-727-258-2535, 274-7926 팩스: 7-727-258-2959 e-메일: office@exhibitions.kz 홈페이지: www.exhibitions.kz
키르기즈스탄 상공회의소	전화: 996-312-210573, 210-574 팩스: 996-312-210575 e-메일: cci-kr@totel.kg
비즈니스 안내(바이어 발굴) 사이트	www.infokz.com www.yellow-pages.kz www.prom.kz www.find.kz

나. KOTRA를 통한 바이어 발굴

1)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이란 해외 KBC가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사화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 참가 목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참가목적에 따라(1개항목 선택)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지원한다.

2) 무역사절단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 KBC가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증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tra.or.kr>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3) 해외시장 조사대행

조사대행은 업체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아, 전 세계 KOTRA 해외 KBC를 통해 바이어정보기초조사, 해외현장단순조사, 해외시장 맞춤형 조사를 해주는 유료정보 서비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tra.or.kr>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및 상담요령

1) 약속

카자흐스탄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및 관료주의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다수 민족인 카자흐 민족이 유목민 습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약 1주 전에 전화로, 필요하면 공식 레터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하고, 면담을 희망하는 측의 회사규모나 면담자의 직위에 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특히 공무원이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약속을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미팅 전날 또한 미팅 날 오전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기업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 미리 미팅 가능 여부 전화 또는 레터로 알아보는 게 필수적이며, 미팅이 가능하면 약속 시간을 정하고, 미팅 전날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체면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약속을 할 경우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 않고 약속을 하지만, 실행하는 것과는 천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 아무런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정부 고위관료들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일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대면을 하는 상태에서는 거절을 하지 못하고 승낙을 한 후 나중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약속을 파기하기 일쑤다. 시간단위로 약속을 상기하더라도 마지막 1시간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2) 식사

카자흐스탄은 많은 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할 때 메뉴 선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접대 상대를 모르는 경우, 식사를 초대할 때 미리 식사 기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면 이슬람권 민족을 감안하여 돼지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소고기 또는 물고기 요리를 주문 또는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주 귀하고, 특별한 손님을 접대할 때에는 말고기 요리 또는 양고기 머리 요리를 대접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업 접촉 이후 만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만찬 시 양고기 바비큐요리(샤슬릭)에 보드카, 코냑을 곁들이면서 성공적인 사업관계 및 친밀한 유대관계를 희망하는 건배제의를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유별나게 건배제의를 많이 하는데, 짝막한 축하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축하 멘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그밖에, 식사 중에 트림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먹거나, 상대방의 그릇에 담긴 음식을 물어보지 않고 먹으면 아주 큰 실례가 된다.

3) 선물

현지 바이어와 상담성과를 높이거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상담이 끝난 후 선물을 주거나 교환하는 것이 좋다. 이곳 사람들이 즐겨 받는 선물은 한국 민속품(부채, 전통 그림, 기념품 등), 양주, 보드카, 와인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계는 선물하면 안 되는 선물에 속한다.

4) 인사

현지에 남성간, 서로 아는 사이든, 처음에 만나든 악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 법이다. 악수는 상대방 손을 가볍게 잡는 것보다 껍 잡는 것이 더 좋으며 처음에 만나도 반가운 표현을 표하기 위해 포옹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남녀가 악수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먼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상대방 남성도 당연히 악수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처음에는 가볍게 말로인사를 하며, 친한 관계가 되면, 서로의 볼을 마주 대고 입으로 “쭉” 소리만 내며 인사를 한다.

그밖에 카자흐스탄사람들은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및 아버지 이름(부칭) (patronymic)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Mr. Akhmetov(성) Damir(이름) Akhmetovich (부칭), Ms Akhme tova(성) Saule(이름) Akhmetovna(부칭) 인사한 다음에 상대방을 “Mr. Akh metov” 또는 “Ms Akhmetova”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5) 복장

카자흐스탄은 유럽 문화가 가까우며, 유럽의 영향이 커서 현지 사업자들이 보통 미팅과 상담 시 양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성의 경우 양복과 넥타이를, 여성은 비즈니스 정장을 착용한다. 하지만, 공식 상담이 끝나고, 사적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만날 때에는 편한 옷을 입어도 무관하다.

나. 바이어 상담 / 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

카자흐스탄의 사업 관행은 유럽식에 가까우며, 일반적으로 첫 대면 시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고, 수차례 접촉 후에는 姓보다는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이 좋다. 초기 미팅 시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펜, 회사로고 핀, 메모, 책자 등)을 주고받으며, 명함도 교환한다. 명함은 통상 러시아어와 영어로 제작하면 더 좋으며, 카자흐스탄은 영어구사자가 적으며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면 좋다.

상담 시 제품 카탈로그를 충분히 준비하고, 노어 명함이나 제품 설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 로고가 찍힌 작은 선물(펜, 메모, 책자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문화는 미국이나 유럽식이 아니고 러시아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조금도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이 러시아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바이어들이 상담 시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은 제품의 수출가격 및 운송 조건이며, 현지 사업자들이 대부분 요청하는 것은 CIF Almaty 운송 조건이 일반적이다. 카자흐스탄은 위치상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으며,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이 우수한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현지 시장 위치상 한국 제품이 중국산, 러시아산 또는 유럽산 제품과 비교해 가격 면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타 지역(국가) 보다 조금 비싸게 오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거래는 자유로우나 가끔 신용장 거래보다는 TT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완전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신용장 개설 비용이 높은 편이라서 신용장 거래를 기피한다. 신용장 거래방식을 기피해 TT 거래가 일반적인데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BL 수령시 잔금을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일부의 경우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수입한 후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한 후 판매한 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판매상들은 한국 파트너 측이 판촉선전 비용을 부담해주길 원하며, 다양한 할인 조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 인사나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인맥과 자금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이 경우 대부분은 과장된 경우가 많다.

전문 수입상이 많지가 않으며, 유통구조 정립 과도기이고,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물류·운송 비용이 과다하고 소요기간이 길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소액 다품종 주문, 빠른 딜리버리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서신 왕래도 중요하지만 아랍지역 특성상 대면 상담을 선호한다.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거래관계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대면상담이 보다 효과적이다. 서신 왕래의 경우에도 우편이나 e-메일보다는 팩스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팩스보다는 e-메일 교신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큰 규모의 수입업체라 하더라도 최종결정은 사장이 직접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기업이 아닌 경우 중간 간부진과의 상담보다는 사장과의 직접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성약여부와 관계없이 식사 등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행자에 대해 후대하는 현지 관습에서 기인하지만, 때로는 성약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유의사항

카자흐스탄 바이어들은 정부 인사나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인맥과 자금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대부분은 과장된 경우가 많다.

전문 수입상이 적으며, 유통구조 정립 과도기이며, 지정학적 특성으로 물류, 운송 비용 과다 소요되므로 통관, 운송비 부담에 대한 수출가격을 계산에 넣어야 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현지 품질 인증(Registration)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바이어와 협의, 인증에 대한 수출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소액 다품종 주문, 쿼크 딜리버리를 선호하며, L/C보다는 T/T가 많고, 외상거래 요청도 빈번한 편이다. 최근 들어 현지 업체와 한국 업체들간에 거래가 활발해지며 L/C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는 바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현지 은행을 선택할 때 이 은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카자흐스탄發 신용장들이 최근 잇달아 사고가 터지고 있어 신용장이라고 덩석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정이 많고 술과 노래를 좋아하므로 초기에 바이어와 거래를 하면 몇번 가졌던 술자리 덕분에 일의 진행이 매우 순조로운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클레임건과 물량도 잘 소화하고 말 그대로 상호신뢰가 돈독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러한 신뢰와 더불어 냉정한 계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도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일천한 자유시장체제도 그러하거니와 도의나 명분보다는 실익을 중요시하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교묘하게 접속되어 있다.

결국, 판매자 스스로가 바이어에게 빌미를 주게 되고 외상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바이어의 창고에 있는 스톡이 늘어났을 때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 바이어들은 비록 자신이 주문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왔지만 결정적으로 재고 발생시 스톡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들에게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엔 판매자는 거래바이어에게 디스카운트해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카자흐스탄은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 관행이나 표준에 못 미치는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금융부문이 중앙아시아나 CIS 전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규모가 영세한 은행들이 많아 이들이 발행한 신용장을 국제거래 관행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이 그냥 믿고 받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 수입업체의 구매는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사장과의 직접대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중간 간부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 간부의 의사가 사장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들과의 상담 시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래 시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자필사인을 삽입시켜 작성하며, 러시아 문서일 경우 공인 번역사에게 위임하여 영역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향후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 발생시 문서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약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상담 후 비즈니스 연락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현지에서 상담을 한 후 상호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바이어와 상담 후에는 반드시 상호간에 연락방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e-메일 혹은 FAX, 전화 등) 현지 상황이나 바이어 출장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은 인터넷 인프라가 낙후되어 e-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잦으니 팩스, 우편과 전화를 위주로 연락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내용을 e-메일, 팩스 발송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카자흐스탄으로 무역 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류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이다.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물품을 수출하려면 운송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경쟁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및 터키에 비해 운송비 부담이 많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통관절서와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중국 및 중동 접경세관을 통한 무자료(불법) 통관사례가 만연되어 시장가격질서가 왜곡돼 정식 수입 통관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원칙적용으로 통관지연으로 인한 비용손실이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적기 물품공급이나 판매영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통관상 부당한 음성적 금전요구 관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투명한 통관절서 정립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에서조차 시급한 관제로 떠오르고 있다.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고 마켓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과 커넥션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고, 정상적으로는 입수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역 또는 투자진출을 하고자 하는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이 소비자 1,500만 명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장 접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경험적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란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에 투자 진출 할 업체에게는 이 나라의 취약한 물류 인프라가 더 큰 문제이다. 현지 제조업에 투자하려고 하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장애요건뿐 아니라 물류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해 판매 및 유통 물류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광활한 영토에 인구가 분산돼 대규모 제조업 투자 시 판매시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 투자 진출 대신 무역거래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현지에 판매법인이나 생산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현지파견 주재원의 노동 허가(비자)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지 노동법상 카자흐스탄 국민 우선 채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현지에 투자(법인, 지사)할 경우 대표를 제외한 외국인 주재원의 노동비자 취득절차가 복잡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며 까다로운 공식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관행이 만연해 있다.

과도한 사무실,주택 임차비용 부담도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공급자시장에 해당하는 현지 부동산 시장특성과 2006년 하반기부터 폭등한 사무실 및 주택 임차격 급상승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이 드는 편이다. 또한, 오일,가스,광물자원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의 급격한 유입으로 영어구사 현지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급증함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다. 2007년 도에는 한-러시아어 구사인력에 대한 한국계 건설투자 기업간 인력확보 경쟁으로 임금 수준이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유능한 현지인력 확보가 어려워 대표적인 건설투자기업인 동 일 하이빌은 국내 파견직원으로 대부분 충당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지하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널리 알려진 카자흐스탄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한 업체들은 대부분 석유, 가스 및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업체들이었는데 대체로 성공적으로 투자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TengizChevroil이며 이외도 성공사례로, Coca Cola Almaty Bottlers (음료 생산), British American Tobacco 및 Gallaher Kazakhstan(담배 업체), GSM Kazakhstan (이동통신 업체),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전자제품 조립생산 기업), KazakhMys (구리 생산업체) 등으로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 투자하여 실패한 외국업체들도 있는데 이들은 90년대 중반에 활동한 소형 업체들이었다. 투자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자 실패 주요 요인은 이 업체들이 실시한 잘못된 마케팅 및 그 당시 카자흐스탄의 관련 법률 허점으로 분석된다.

가. 투자성공 사례

1) TengizChevroil(TCO, 텡기즈셔브로일) LLP

□ 프로젝트 역사 및 결과

TengizChevroil 은 1993년에 설립된 국제 기업으로 당사의 총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기업의 주요 목적은 카스피해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는 Tengiz 유전(전체 매장량 이 750-1,125백만 톤 예상)의 개발, 탐사 및 채굴 사업이며 참여업체와 비중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비중
ChevronTexaco Overseas Company	50%
ExxonMobil Kazakhstan Ventures Inc	25%
KazMunayGas(카자흐스탄 석유가스공사)	20%
Lukarco B.V.	5%

2004년 중 TengizChevroil 이 13.7백만 톤의 석유를 채굴하여 2006년에 석유 채굴량을 22백만 톤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성공요인

TengizChevroil 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카자흐스탄 국민 및 현지 사회복지에 많은 지원과 노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TengizChevroil 의 약 3,000명의 전체 직원 중 81%는 카자흐스탄 인으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TengizChevroil 이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사업 및 자격을 높이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도 1993-2004년 중 TengizChevroil 이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총 8,900만 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engizChevroil 이 진행되는 사업에 수입품보다 현지산 제품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 하기 위해 2004년 중 6.9억 불의 규모로 카자흐스탄산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 Coca Cola Almaty Bottlers LLP

□ 프로젝트 역사 및 결과

Coca Cola Almaty Bottlers 를 1994년에 카자흐스탄 업체 Tonus 및 터키의 Efes Invest 社로 설립된 기업이다. 현지 Coca Cola Almaty Bottlers 는 알마티 공장에서 Coca Cola, Sprite, Fanta 음료 및 Bonaqua 미니랄 워터를 생산하며, 주변 나라(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7월에 Coca Cola Almaty Bottlers 가 알마티 인근 지역에서 두 번째 음료 생산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성공요인

Coca Cola Almaty Bottlers 사는 Tengiz Chevroil 과 같이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일자리, 현지 소비자들에게 품질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한 음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등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Coca Cola Almaty Bottlers 사가 카자흐스탄의 Special Olympics 팀(장애인 체육 대회)의 후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기업이 2003년에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Best Investor of year' 상을 받아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투자가인 것을 인정받고 있다.

3) GSM Kazakhstan LLP

□ 프로젝트 역사 및 결과

GSM Kazakhstan 社は 카자흐스탄 최대 통신 기업인 KazakhTelecom 및 FinTur(핀란드, 스웨덴 및 터키의 합작회사)으로 1998년에 설립된 이동통신 업체이다. 현재 GSM Kazakhstan(K'cell, Aktiv 브랜드)의 가입자 수는 약 3.8백만 명을 기록했으며 2006년 말까지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 평가 받고 있다.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 KaR-Tel(2005년에 러시아의 이동통신 사 업자인 VimpelCom 이 3억5000만 달러로 지분 인수하여 현재 K-Mobile, Excess, Beeline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성공요인

카자흐스탄 이동통신 사용자들에게서 ‘이동통신 업체 넘버원’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GSM Kazakhstan社は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료 인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이동통신 회사는 2004년 11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소비자들에게 EDGE(Enhanced Data for GSM Evolution)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02, 2004 및 2005년에 GSM Kazakhstan사가 '최우수 이동통신 업체로 평가를 받으며, '#1 Choice of the year'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JSC

□ 프로젝트 역사 및 결과

1995년에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후 알마티에서 LG Electronics社가 참여하여 전자제품 조립생산 공장을 설립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 3일에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998년 5월 28일에 알마티에 소재하는 52,000 s/m의 면적인 공장에서 텔레비전, 세탁기의 조립생산이 시작되었다. 1998~2004년 초 중 총 150만 대의 칼라 텔레비전이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LGEAK이 전자제품의 국내 수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 텔레비전과 세탁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성공요인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엘지가 제일 많이 알려진 한국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GEAK에 따르면 약 55%의 카자흐스탄 국민이 LG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의 조립공장에 최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CIS역내 가장 현대화된 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외도 이 기업이 광고 및 홍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모니터링 회사인 TNS Gallup Media Asia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중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이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가 알마티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회 복지, 교육(LG 장학퀴즈), 문화 행사의 후원자로 유명하다.

5) KazakhMys JSC

□ 프로젝트 역사 및 결과

1995년 파산에 빠진 카자흐스탄 구리 제련소를 국제입찰을 통해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아 5년간 경영 정상화 노력을 통해 현재 종업원 6만 명의 세계 10대 구리 제련소로 탈바꿈 시킨 사례이다. 참고로, 카자흐믹스(카자흐스탄 구리제련소)는 1928년 설립된 업체로 CIS에서 가장 큰 구리공장이며, 순도 99.99%의 구리를 생산한다.

□ 성공요인

카자흐믹스의 성공요인으로 현지 인력개발 및 관리, 현지 전문가 제도를 통한 인력 확보, 사회적 현지정서의 철저한 준수, 고위 경영자의 현장 책임경영, 원칙과 상식적인 투명 경영으로 신뢰간 구축을 볼 수 있다.

이외도 카자흐미스의 성공요인으로 지속적인 생산 확대 및 국제시장으로 진출 노력하는 것을 여길 수 있으며, 카자흐미스에 따르면 2005년 1-5월 중 생산된 세련 구리의 49%는 중 국으로 수출되었고, 나머지 51%는 유럽국가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5년 10월 10일에 런던 주식거래소에 최초로 카자흐미스의 주식의 매매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주식거래소의 전문가들은 카자흐미스를 45억 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명한 런던 주식거래소에서 카자흐스탄 구리 기업의 주식이 매매되는 것은 카자흐미스의 고성장 및 국제시장에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제련소 위탁경영 사례

- 파산직전의 기업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탈바꿈 -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1990년대 초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계획에 따라 서방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주요 산업시설의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파산상태에 있던 제스카즈간 콤비나트(combinaT)를 위탁경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삼성물산은 공개입찰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위탁경영 사업자로 선정되어 경영 전반에 대하여 5년간('95. 6 ~ '00. 6) 위탁경영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2 억불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기간 중 원가절감을 위하여 발하쉬 (Balk hash) 구리공장, 발전소, 석탄광산 등을 인수하여 광석에서 제품까지 독립적인 생산이 가능한 수직/수평 계열화를 이루고 1997년에는 회사 명칭을 카자흐스(Kazakhmys Corporation)로 변경하였다.

삼성의 카작스 위탁 경영을 기반으로 현재는 전 세계 동(銅)생산량의 3%, 물동량의 10% 수준인 연간 40 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중앙아시아 최대의 동 제련소로 위상이 변모했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성공사례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삼성은 상생경영을 추구했다. 고용 유지 및 현지 경영인 중심의 경영체제와 단기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경영전략 추진 등으로 상호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했다.

둘째, 직원들의 의식개혁에 힘쓴 점을 들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억제, 인센티브 도입, 투명한 경영 등으로 서구적인 경영의식 개혁을 시도했다.

셋째,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했다. 강력한 중앙통제형 재무시스템 도입, 자산의 감축, 과감한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삼성물산의 이 투자사례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카자흐스탄 위탁경영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생산체제에 접목시켜 성공 시킨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특히 구(舊) 소련 체제에서 독립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실정에 맞는 경영기법 및 제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파산된 기업을 단기간 내에 정상화시켜 카자흐스탄 정부는 물론 현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0년 6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회사의 정상화를 통해 성공적인 위탁 경영사업을 종료하고 카자흐 정부에 경영권을 완전 이양하였다.

나. 투자실패 사례

□ 프로젝트 역사 및 결과

TWG(영국)은 90년대 초 영국의 자본과 러시아인에 의한 현지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CIS 내의 각종 비철금속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비철금속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비철금속 시장의 주요 공급업체로 급속히 부상하였고, 94년 카자흐 알루미늄 등의 업체를 인수하였으나, 현지 법규 위반으로 98년 퇴출된 사례이다.

□ 실패요인

TWG의 실패요인은 다음과 같다.

- 경영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간과(이전가격의 적정성)
- 합작 파트너 선택의 중요성 간과(우호적 관계의 파트너가 관계 악화 시 축출의 주역으로 탈바꿈)
- 법정 판결의 경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평범한 진리 간과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카자흐스탄 입국 가이드

2003.12.01에 알마티 국제공항의 새 건물이 완성되어 모든 시설, 입국 절차, 통관, 파킹 등이 많이 기존에 비해 편리해졌다.

입국신고 할 때 중요 물품과 미화 소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금액이 틀리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1) 카자흐스탄 입국

□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출입 및 거주 규정

- 2000. 01. 28자 #136 카자흐스탄 정부 규정,
- 2002. 05. 29자 #595 카자흐스탄 정부 수정 규정

□ 외국인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서류를 발급

카자흐스탄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허가, 또는 내무부에서 발급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기 허가 또는 영주권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에 단기 체류자로 인정되며 카자흐스탄 내무부 및 이민국에 장기거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장기거주등록 절차는 카자흐스탄 안기부의 동의 하에 내무부와 이민국이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결정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영주등록증이며 국적 없는 사람에게는 무국적등록증이 발급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장기 거주신청은 제20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증명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영주권 유효기한 만료 2개월 전, 증명서 분실 경우 5일내에는 거주지 내무부 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 다음 외국인에게는 카자흐스탄 장기거주 허가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면서 카자흐스탄 법을 위반한 경우
- 외국인이 허위 인적사항을 알릴 경우
- 법에 따른 기타 경우

내무부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일전의 6개월 내로 새로운 여권 또는 연장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무국적증명서를 발급한다.

무국적 증명서를 갖춘 사람이 내무부에 유효여권을 제출할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영주 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국민을 위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내에 이동 또는 통과 및 거주지 선택에 대하여

외국인은 지역을 이동할 수 있으며 카자흐스탄 법에 따른 절차에 거주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 사회 질서,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강 및 법적 이익 보호가 필요하면 채택한 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무부나 안기부는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할 때,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동할 때, 또한 통행금지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안기 부의 동의 하에 외무부와 내무부가 결정한다.

외국인에게 카자흐스탄 출입국을 위해 트란지트 비자가 발급된다. 외국인이 제3국의 비자와 트란지트 티켓(티켓에 카자흐스탄 출발날짜가 있어야 함)을 가질 경우에 3일 내에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제3국에 가야 된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비자가 필요 없는 제3국에 가려고 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의 통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자동차로 카자흐스탄을 통과하거나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 할 경우에는 국제 교통을 위한 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외출할 때에는 무조건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현장에서 여권이 없으면 경찰서로 연행되고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여권에 살고 있거나 머무르는 호텔의 거주지등록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초청장 및 비자

초청장이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고 초청장은 현지회사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받는데 급행은 1~2 일 소요되고, 보통은 일주일에서 2 주가 소요된다.

초청장번호를 한국에서 받고 서울 한남동 소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일주일 만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 뒤 항공권 구입을 하면 출국 할 수 있다.

여행비자 및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출국 할 경우 현지에서 원칙적으로 여행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비자는 3 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비자는 3~6 개월 두 종류이고 노동비자는 노동허가서와 함께 1 년 비자이다. 유학비자는 1 년이 가능하며 학비를 지불하면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카자흐스탄의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8. 출장가이드, 라. 출입국/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임대

최근 3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급속히 올라 임대료도 많이 상승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알마티 중심지 및 신개발 지역이며 방3칸 기준 일반 아파트(20평 가량)의 월세는 \$1,000~1,500 정도이다. 관리세(전기세, 물세, 전화세 등)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 고급 주택의 월세는 최소 \$2500 ~3500이다.

다. 전기요금

- 1KW 당 현지화 5.2텡게(미화 0.06달러)가량이다.
- 카자흐스탄의 겨울 난방
 - 이곳의 난방 방식은 한국의 사무실처럼 벽에 붙어 있는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통해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라디에이터 방식이다. 사계절 내내 바닥에는 카펫을 깔아 둔다.

라. 통신

1) 전화요금

- 시내 및 시외통화는 우체국, 키오스크(신문, 잡지 파는 가게)등에서 판매하는 전화 카드로 공중전화 이용 가능하다.
- 국제전화는 비싼 편이며, 특히 호텔에서의 국제전화는 매우 비싼 편이다.
- 한국으로의 국제전화(한국통신, Dacom)카드는 한국식당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유럽 GSM 시스템이다.

2) 인터넷

-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환경은 대부분 모뎀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작텔레콤이란 국영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 다소 사용량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디었다. 하지만 2007

년에 통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기존보다는 속도가 빨라졌다. 통신 요금 역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차이가 있으며 속도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다. 평균 36bps~56bps 정도이다.

- 전용선의 경우 100bps까지 가능하다.

마.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이 현지에서 내국인과 같이 은행구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권 및 납세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할 경우, 해당 지역 세무서에서 납세자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바. 자동차 구입

한국인이 현지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하기 전에 먼저 소유하고 있는 한국 국제 운전면허증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교통 경찰국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한다. 보통 일반 외국인은 노란색 번호판을 받는다. 외교관은 빨간색 번호판을 받는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이 알마티를 ‘세계 자동차 전시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알마티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가 많다.

알마티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급속히 늘어난 차량 수가 2008년에 거의 61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일본 Toyota 의 각종 브랜드를 비롯해 독일의 Mercedes Benz 및 BMW는 물론, Bentley, Maybach, Hammer, Lamborghini 등 명차라 불리는 최고급도 포함된 수치이다.

수준	가격(달러)
자동차(2000cc, 기본, A/T)	20,000

사. 택시 및 대중교통

택시요금은 알마티 시내이동의 경우 보통 200~300(약 1.6~2.5달러) 텡게며, 콜택시나 호텔 주차 영업용 택시 이용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시내버스 및 전동차(트램바이)는 요금은 50텡게(0.5달러) 수준이다. 현재 지하철은 건설 중이다.

아. 병원

- Interteach
 - 주소: 83, Aiteke-bi Str., Almaty
 - 전화: 7-777-232-8993
- 한카병원
 - 주소: 141, Makataeva Str., Almaty
 - 전화: 7-727-253-6429

자. 교육

자녀의 학업이나 어학 연수를 위해서라면 훌륭한 교수, 세계적인 대학, 값싼 교육비 등 각 분야에 더 할 수 없는 좋은 여건의 환경이다. 대표적으로 카즈구 국립대, 알마티 국립대학, 외국어 대학 등이 있으며 빠드팍(어학연수)을 마친 뒤 본 수업(3학기 제도)을 1학기(9월)에 등록, 입학하면 된다

카자흐스탄의 교육 여건은 또한 다른 CIS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초·중등학교 8,290개, 전문중등학교 285개, 전문기술학교 306개, 대학교 164개 등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터내셔널 스쿨 및 KIMEP과 같은 국제적인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이다.

□ 인터내셔널 스쿨

- Almaty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185, Auezov Str., Auezov District, Kalkaman Village, Almaty, Kazakhstan
 - 전화: 7-727-250-4561/62/63
 - 팩스: 7-727-250-4564
 - e-메일: almaty@qsi.org
 - 교장: Mr. David Pera
- Tyan-Shyan
 - 주소: 10A, Basenova Str., 480060, Almaty, Kazakhstan
 - 전화: 7-727-293-2602 / 팩스: 7-727-274-5684
 - e-메일: tsofice@pactec.kz
 - 교장: Mr. Craig Jonson
- 'Miras'
 - 주소: 190, Al-Farabi Ave., 480043, Almaty, Kazakhstan
 - 전화: 7-727-255-1326, 255-1025, 255-2267, 255-1292
 - 팩스: 7-727-255-1151
 - e-메일: secretary@almaty.miras.kz
 - 교장: Mrs. Dinara Kulibaeva
- Kazakhstan International School (KIS)
 - 주소: 102, Mate Zalke Str., 480003, Almaty, Kazakhstan
 - 전화: 7-727-225-0030, 264-5527
 - e-메일: kis@yellowsun.com
- Hailey Bury
 - 전화: 7-727-355-0100
 - e-메일: k.sagyndyk@haileybury.almaty.kz
 - 홈페이지: www.haileybury.com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 기 후: 대륙성 기후
 - 1월 평균기온: 북부 -18℃, 남부 -3℃
 - 7월 평균기온: 북부 19℃, 남부 28~30℃
 - 평균 강수량: 250mm(남부 약 200mm)

기후는 대륙성으로, 덥고 건조한 여름과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교차한다. 북부가 엄동인 시기에 남부의 산록분지에서는 과수원의 꽃이 피는 등 기온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월 평균 온도는 북부에서 -18℃ 전후이고, 남부에서는 -6~-2℃이며, 7월 평균 기온은 북부에서 20~22℃이고, 남부에서는 26~30℃에 이른다. 강수량은 특히 적어서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250mm 내외로 집계된다.

강수량은 남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며, 사막에서는 100mm 미만이며, 산악지역에서는 1,000mm에 달하는 곳도 있다. 우계는 3~4월경이며 이 기간 중에 일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내린다. 아랄, 카스피해의 대평원을 투란저지라 하는데, 강수량이 적어 대부분 스텝(短草草原) 또는 반사막을 이루고 있다.

좀더 자세한 카자흐스탄내의 여러 도시의 기후는 www.pogoda.kz 또는 <http://www.weather.site.kz> 을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 계절별 평균 최고기온

도시명	4월	7월	10월	1월
아스타나	+8+10	+26+28	+8+10	-13-11
알마티	+13+15	+32+34	+12+14	-3-5
카라간다	+8+10	+28+30	+10+12	-10-12
아티라우	+12+14	+33+35	+12+14	-4-6
악타우	+13+15	+34+36	+13+15	-2-4
우스찌카메노고르스크	+6+8	+22+24	+8+10	-12-14
베뜨로바블로브스크	+6+8	+20+22	+8+10	-13-15
침켄트	+15+17	+36+38	+18+20	-1-3

나. 시차/근무시간

1) 근무시간

- 관공서: 월~금 09:00-18:00
- 은행: 월~금 09:00-17:00
- 상점: 보통 09:00-20:00 (대형 슈퍼마켓들은 대부분 24시간 영업)
- 백화점: 연중무휴 09:00-20:00

2) 시 차

- 알마아타 - 서울간 3시간
- 알마아타 - 모스크바간 3월-10월 2시간, 10월-3월 3시간

다. 주요 단위

도량형

구분	단위
거리	1m/km
무게	1kg
전기규격	Hz-50. Voltage-220 Volt
면적	1m ²
용적	1m ³

라. 출입국/비자

1) 사증 발급 신청

- 카자흐스탄 입국 예상일 약 2주전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1-5,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 전 화: 82-2) 391-8960
- 입국사증 신청 시 필요서류: 초청장,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사본, 사진 등
 - 사증발급 수수료는 대사관 구좌에 입금하면 된다
 - 카자흐스탄 입국사증의(단수 관광사증) 발급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 2001.2.17부로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개발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래 카자흐스탄 여행사(15개 사)의 초청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함이 없이 당지 Astana 및 Almaty 공항에서 도착사증(Visa on Arrival)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사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 공항 도착 사증은 단수 관광사증으로 체류허용 기간은 30일이며 사증 수수료는 미화 30불 상당이다.

2) 출입국 심사

□ 입국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소지 미화, 원화 등 외화금액의 초과금액을 반출하지 못하는 바, 세관신고서 작성시 소지 현금의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며, 세관신고서는 출국심사 시 제시해야 하므로 출국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출국

출국 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정확하게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세관원과 시비의 여지가 있는 과일, 꿀, 카펫, 그림 등은 가능한 반출치 않는 것이 좋다..

3) 예방접종

카자흐스탄에는 특별한 풍토병이 없다.

4) 통관

□ 입국 시

외화반입에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반드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은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각종 총기류, 탄약류, 마약 및 음란물 등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출국 시

무기, 탄약류, 마약,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및 골동품 등 반출금지 희귀동물의 가죽 및 뼈 반출금지 오래된 그림, 옛날 돈 및 골동품 등은 카자흐스탄 문화부장관의 반출승인이 필요하다.

5) 비자

비자발급의 경우는 여행사에 맡기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일주일간 알마티에 머무르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여행 비자를 받으면 된다. 대개 여행사들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면 용이하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수속을 할 경우의 절차이다.

- 카자흐스탄 (KAZAKHSTAN) 대사관 위치 및 근무시간
 - 전화 번호: 02-394-9716, 391-8906, 397-9714
 - 근무 시간: 09:00 - 12:00 (월 - 금)
- 관광 비자, 상용 비자
 - 구비서류: 여권, 여권 복사본 1부, 사진 1장 (반명함판 정도), 신청서, 초청장
 - 비자유효기간: 1주일, 2주일, 1개월, 3개월, 1년(비자 기간에 따라 비자 FEE 가 다르다)
 - 발급소요기간: 1박 2일, 3박 4일, 7박 8일(발급소요기간에 따라 비자 수수료는 다르다)

□ 참고사항

- 카자흐스탄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 2004년 8월 19일, 카자흐스탄 외무부는 한국을 카자흐스탄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9월1일부터 한국국민이 카자흐스탄을 단기방문(1개월 미만)하고자 할 경우 과거와 달리 초청장 없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전 세계 59개 카자흐스탄 공관에서 단수사증(상용, 사적 방문, 관광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카자흐스탄 외무부 영사국은 우리국민의 카자흐스탄 방문계획이 촉박한 경우 에는 사증발급 신청서에 조기발급 요청을 명기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 그러나 카자흐스탄 5개 국제공항(알마티, 아스타나, 아티라우, 우랄스크, 우스찌 카메노 고르스크) 도착시에 사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및 한달 이상의 장기 방문 시에는 상기 간소화 절차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금번 조치에 따라 2004년 9월 1일부터는 우리국민들의 카자흐스탄 사증발급 기간 및

경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카자흐스탄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특이 사항

- 관광, 상용, 관용, 유학 등 목적에 상관없이 카자흐스탄 외무부 승인번호가 있는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외무부 승인번호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 비자 FEE 는 US\$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 비자 FEE 는 더 송금하더라도 반환이 어려움으로 비자를 접수하면서 정확한 비자 FEE 를 문의한 후 발급받을 때에 송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 거주자등록: 아주 중요하지만 잊기 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5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모두가 거주자등록을 해야 한다. (OVIR 등록)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공항출국 시, 혹은 체류기간 중 경찰의 검문 시) 일반적으로 도착한 다음날 이 수속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세관신고

세관신고서는 소지하고 있는 세관신고 대상 품목과 외국환(무제한으로 반입 허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갈 외국환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입국 시 신고금액 제외)에는 신고 및 출처증명서가 요구되므로 입국할 때 외국환 보유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8) 출입국 유의사항

입국 시 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가는 게이트 입구에서 화물태그와 티켓이나 탑승권에 붙여 있는 점표의 확인절차가 있으므로 점표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입국승객의 화물을 70kg 로 제한하는 카자흐스탄 관세청 규정에 따라 70kg 이상 가지고 있는 승객에게는 초과화물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 환전

2009년 6월 11일 기준 1달러에 현지 화폐(텡게, KZT)는 150.35텡게의 비율로 환전되고 있다. 2006.11.16부터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새로운 디자인 화폐 도입했다. 현재 두 가지 화폐가 사용 중이다. 지폐 단위는 10,000, 5,000, 2,000, 1,000, 500, 200 텡게이며, 동전 단위는 100, 50, 20, 10, 5, 2, 1 텡게이다. 택시요금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닌 경우 약 200텡게 정도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가격도 천차만별이므로 각자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경비는 모두 현금(달러화)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나 여행자수표는 통용되고 있으나 큰 호텔이나 중앙은행에서는 여행자수표(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행자수표)를 5%의 수수료를 떼고 바꿔준다.

요즘은 공공장소(백화점, 공항, 호텔)에 현금자동인출기의 설치가 늘어났고,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계산이 가능하다. 달러화를 현지화로 환전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고, 제한 없이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전소마다 환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 높게 바꿔주는 곳에서 바꾸면 유리하다. 미 달러화는 1990년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고 상태가 좋아야 교환해 준다. 그렇지 않은 화폐는 은행에서 바꾸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물가-물가는 크게 변동사항이 작용하지 않지만 달러와 텡게가 변동률이 심하므로 비즈니스 관련 업무에는 항상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수입품이 많고 제조업 생산 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축산물은 가격이 저렴하나 플라스틱 등 공산물은 한국보다 가격이 비싸다. 같은 물건이라도 지역, 상점에 따라서 가격차가 크다.

2008년 및 2009년 4월 평균 환율 현황

구분	2008년 1분기	2008년 2분기	2008년 3분기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	2009년 4월
1USD KZT	120.4	120.5	120	120.3	138.9	150.7
1EURO KZT	175.7	188.1	176.7	162.3	190.9	198.01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바. 교통

1) 택시

택시는 택시마크 달고 다니는 차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이용도 가능하다. 정식 택시라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 이용할 때처럼 탑승전에 가격을 합의해야 한다. 알마티 시내에서 이동할 경우 200~300텡게의 요금이 일반적이며 택시나 개인차는 요금 차이가 없다. 한편 콜택시나 호텔 주차 영업용 택시는 요금이 비싼 편이지만 안전한 편이다.

- Call Taxi 연락처
 - Almaty Taxi: 058
 - Lux Taxi: 056
 - Call Taxi: 466866
 - Service Taxi: 308311
 - Max Service Plus: 466866

2) 시내교통

시내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 및 전차(트램바이, 트롤레이부스)가 있는데 이 중에 버스 노선이 커버하는 지역은 훨씬 많아 그 이용비중 또한 높다. 2008년 5월부터 버스, 트롤레이부스 및 트램바이의 요금은 40텡게에서 50텡게(약)로 올랐다.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공식 택시로 알마티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택시' 표시한 차들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일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일반 차량 요금이 공식 택시 요금 비해 싼 편이다. 이외에도 고급 호텔 (예: 하얏트, 인터콘 등)로 갈 손님들은 호텔 리셉션에 미리 연락해서 호텔 차량을 공항으로 부를 수 있다.

3) 국내교통

□ 항공편

카자흐스탄 도시간 거리가 멀어 국내 항공 노선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다. 항공편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거나 알마타 시내 공항터미널에 가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에어아스타나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국내 항공 편 탑승수속은 출발하기 1.5시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 열차편

열차는 항공료보다 저렴한 편이며, 장거리 도시로 이동할 때 많이 쓰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열차표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거나 기차역에 가서 직접 구입하면 된다.

□ 시외버스편

알마타 시외버스는 Sairan(카자흐스탄 중장거리 도시운행)과 Sayahat(단거리 도시운행) 등 두 개의 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최근에 운송회사보다 개인이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운행 요금은 표를 따로 구입 할 필요 없이 탑승 시에 운전기사한테 지불하면 된다. 버스는 평균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터미널에 가서 원하는 시간에 버스 타면 된다.

4) 항공요금

현재 ‘알마티→서울’ 및 ‘서울→알마티’ 직항은 현지 항공사인 ‘Air Astana’ 와 ‘Asiana’가 운항하고 있다.

직항	Asiana (매주 화, 금요일)		Air Astana (매주 월, 목요일)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인천 → 알마티	18:10	21:55	17:00	20:45
알마티 → 인천	23:10	07:50+1	06:50	15:45

- 저렴한 예약방법: ‘인천 -> 알마티’로 오는 직항 항공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ticket 을 구매하면 일반 티켓보다 저렴하다.
- ‘알마티 → 아스타나’편은 여러 항공사들이 매일 운항함.

카자흐스탄에서의 주요 교통 수단은 비행기, 기차 및 버스이며 지하철은 현재 알마티 에서 공사 중이다. 국내에서 기차선이 비교적 잘 정비돼 있고, 표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몇 년 전에 ‘알마티 → 아스타나’ 스페인 Talgo 고속 열차선이 설치 되었다. 알마티에서 ‘Almaty-1’ 또는 ‘Almaty-2’기차역에서 매일 19:04에 이 고속 열차를 탈 수 있다.

Talgo ‘알마티 → 아스타나’ 열차 운행 현황

	시간표		표 가격 (단위: 텡게, 1달러=150.3텡게)	
	출발	도착(다음날)	평일	토-일
알마티 → 아스타나(매일)	19:04	08:00	6,600 - 일반 11,000 - 일반침실 13,800 -고급 침실	8,200 - 일반 12,100-일반침실 15,000-고급침실

□ 참고: 국제공항

1) 아스타나 국제공항

아스타나 국제공항은 1931년도에 설립되었다. 1998년도에 공항의 이착륙시설을 재건축 하였고 이후 1시간에 20대의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명 시스템과 무선 항법 시스템이 교환되었다. 2003년도에는 VIP 건물이 완성되었으며, ACI 의 평가에 따르면 아스타나 국제공항은 아시아의 국제공항 중에 '승객수' 27위, '화물량' 29위를 차지 한다고 전하고 있다.

2) 알마티 국제공항

알마티 국제공항은 1935년도에 설립되었다. 이 공항은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과거에 알마티는 실크로드(Silk Road)의 일부였다.

보다 안전하게 비행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하여 1998년도에 알마티 국제공항의 이착륙 시설을 재건축하였다.

2000년도에 화재로 손상된 공항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여 2003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비상하는 새 모양의 디자인, 세계 기준의 여러 가지 시설과 서비스, 편리한 주차장 등은 새로운 알마티 국제공항을 CIS 국제공항 중에 1등으로 자리잡게 하는 요인이다.

3) 카라간다 국제공항

‘싸르아르까’ 카라간다 국제공항은 규모가 큰 공항이며 카라간다시에서 22km 에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있다. (아스타나시에서 200km 가량 떨어져 있다). 이 공항은 동남아, 중동, 극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4) 침켄트 국제공항

2002년도에 설립 70주년을 맞은 침켄트 국제공항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 참고: 국제 항구 중 악타우 국제항

우라늄 및 원유를 운반하기 위해 1963년에 설립된 악타우항은 카스피해 동쪽에 위치하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유일한 항구이다. 현재 악타우항을 통해 일반 화물, 원유가 운송되고 있다. 이 지역 부근에는 ‘BH-350’ 핵발전소 및 화학공업이 발전해있다.

1969-86년도에는 악타우항에 4개의 유조선 및 기타운반시설이 완성된 이후 구소련 시대 (80년대 초) 에는 악타우항을 통해 연간 원유 7백만톤이 운반되었고 일반 화물은 3십만 톤이 운반되었다. 또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따라 1996. 03. 26에 ‘악타우 무역 해운’이란 국영기업이 설립되었다.

악타우항 지역을 통해 ‘트라섹’이라 불리는 국제화물 교통축이 지나가고 있어 악타우항은 철도, 자동차, 해운, 송유관라인의 분기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동항구는 ‘바쿠-뜨빌리씨-제이칸’ 국제 송유관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통신

1) 우편, 통신

- 유선통신 분야는 전화회선이 100명당 15회선으로 선진국(40회선)에 비해 미흡한 실정(2001년 기준)이지만, 2015년까지 3배로 증설 계획을 하고 있다.
- 아스타나, 알마티, 악토베 등에 국제교환소를 설치하고, 악토베, 세미팔라친스크 등 주요 도시에 장거리 광통신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국제우편, 소포 등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다. 공중전화를 제외하고 시내 전화는 무료이지만 전화카드를 사용하면 공중전화의 통화료(3분)는 0.15달러 정도임.

우편, 통신 가격 현황

(단위: 달러)

전화개통비	1회선 / 가입비, 장치비 포함	6.6
전화사용료	월 / 기본사용료(가정용)	3.3
전화사용료(시내)	3분(180초) / 가정용 평상시간(평일 08:00-21:00)	없음
공중전화(시내)	3분(180초) / 평상시간(월-토, 06:00-24:00)	0.15
국제전화(정상)	3분(180초) / 현지-서울간 / 평상시간(월-토, 06:00-24:00)	5.2
국내우편	1통 / 일반편지(2-3페이지) 일반우편	0.5
국제우편(일반)	1통(10g 이하) / 현지-서울간 일반우편	2.6
특급우편	1개(1KG 이하) / 현지-서울간 DHL 서류	67.1

- 알마티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2006.11.26부터 전화번호체계가 변경됨.
- 기존 6자리 전화번호에 앞에 '2'가 추가돼 7자리 번호체계가 되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알마티 시내에서 저희 무역관으로 전화를 거실 때는 311-0203을 눌러야 한다. (과거에는 11 02 03)
- 한편, 해외에서 알마티로 전화거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알마티 지역번호가 기존의 3272에서 끝자리 2가 떨어져 나가 327로 바뀌었고, 그 끝자리 2는 뒷 자리 전화번호로 합쳐져 7자리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걸 때는 자릿수나 번호에의 변화는 없다. 다른 지역이나 도시의 번호체계는 변경사항이 없다.
 - 외국에서 현지 도시로 전화할 경우: 7+...
 - 현지에서: 8+...
- 현지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거는 방법은 8-10-82+0을 제외한 지역번호+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카자흐스탄의 주요도시 지역번호 현황

도시명	지역번호
아스타나	+7172
딸디구르간	+7282
카라간다	+7212
구스타나이	+7142
아티라우	+7122
악타우	+7292
침켄트	+7252
우스찌카메노고르스크	+7232

- 일반 통신에 이외도 카자흐스탄의 이동통신시장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기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들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 KaR-Tel(2005년에 러시아의 이동통신 사업자인 VimpelCom 이 3억5000만 달러로 지분 인수하여 현재 K-Mobile, Excess, Beeline 브랜드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모든 서비스를 동일한 Beeline 로 제공)에 따르면 이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2008년 말 710만 명에 다다랐다. 두 번째 큰 GSM Kazakhstan(유통 브랜드 K-Cell, Aktiv)은 이미 2008년 가입자 수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2월 중순부터 세 번째 GSM 사업자인 Mobile Telecom Service 가 이동통신 시장에 NEO 브랜드로 등장했다.
-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CDMA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 약 10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핸드폰 경우, 삼성전자, LG 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핸드폰 매출도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 SGH-D500의 경우, 2005년에 전년도 1위를 기록했던 Nokia 를 제치고 ‘핸드폰 No1’의 자리를 쟁취했었다.) 미국 모토로라, 루슨트 테크놀로지,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 등 외국 통신업체가 카자흐스탄 통신부문 장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 한국 업체

- Woojin Global Logistics
 - 전 화: 7-727-266-3268~70
 - 팩 스: 7-727-250-4605
 - 담당자: 김 용 이사장
 - e-메일: peterkim@woojingl.com
 - 홈페이지: www.woojingl.com
- (주)서중물류
 - 주 소: Office 460, 15, Republic Square ,480091, Almaty, Kazakhstan
 - 전 화: 7-727-250-6477~79
 - 팩 스: 7-727-250-8839
 - 담당자: 이동희 이사장
 - e-메일: sjl-almaty@sjl.co.kr, dhlee@sil.co.kr
- PANTOS Kazakhstan(구 범한종합물류, 현 범한 PANTOS)
 - 주 소: 404, Seifullina Ave, Almaty, Kazakhstan
 - 전 화: 7-727-266-2540
 - 팩 스: 7-727-266-2541
 - 담당자: 윤두경 법인장
 - e-메일: dkyoon@pantos.co.kr

- (주)에코비스 로지스틱스
 - 주 소: 66B Suyunbaeva., Almaty
 - 전 화: 7-727-251-5979,80,82
 - 팩 스: 7-727-251-5982
 - 담당자: 김민경
 - e-메일: kmk@ecovice.co.kr, mira@ecovice.co.kr
- UNICO
 - 전 화: 7-727-244-6644
 - 팩 스: 7-727-277-6063
 - 담당자: 김영준 지사장
 - e-메일: justin@unicologx.com
- (주) 이에스엘 링크 코리아(구 우진트랜스)
 - 전 화: 7-727-232-4148
 - 담당자: 정태헌 지사장
- 터보 GLS(주)
 - 주 소: 103 Prmanova st. Almaty
 - 전 화: 7-727-267-0519
 - 담당자: 이한용 부장
 - 홈페이지: www.turbogls.com

□ 현지업체

- Kaztranslogistics
 - 주 소: 242, Furmarova St., Almaty
 - 전 화: 7-727-263-5441/85, 4996
 - 팩 스: 7-727-250-2799
 - 담당자: Mr.Satynbekov Bakhyt
 - e-메일: info@kaztranslogistics.kz
 - 사이트: www.kaztranslogistics.kz
- Globalink
 - 주 소: 52, Kabanbay Batyr
 - 전 화: 7-727-258-8880
 - 팩 스: 7-727-258-8885
 - 담당자: Ms. Marina or Ms. Laura
 - e-메일: info@globalink.kz
- Kaztranslogistics
 - 주 소: 42, Timiryazev Str., Almaty
 - 전 화: 7-727-2502-799, 2584-875
 - 팩 스: 7-727-2584-664
 - 담당자: Mr.Satynbekov Bakhyt
 - e-메일: info@kaztranslogistics.kz
 - 사이트: www.kaztranslogistics.kz

- Globalink
 - 주 소: 52, Kabanbay Batyr
 - 전 화: 7-727-2588-880, 2588-881
 - 팩 스: 7-727-2581-360
 - 담당자: Ms. Marina or Ms. Laura
 - e-메일: info@globalink.kz
 - 사이트: N/A

아. 호텔/식당

□ 알마티 주요 호텔

- The REGENT Almaty Hotel(The Ankara in Kazakhstan)
 - Address: Almaty, 181, Jeltoksan str.
 - Tel: 7-727-2503-710 (-18)
 - Fax: 7-727-2503-719
- HYATT Hotel(Rakhat Palace)
 - Address: Almaty, 29/6, Satpaev str.
 - Tel: 7-727-2501-234
 - Fax: 7-727-2508-888
 - e-mail: mailbox@hyatt.almaty.kz
 - web-site: www.hyatt.com
- Ambassador Hotel
 - Address: Almaty, 121, Jeltoksan str.
 - Tel: 7-727-2508-989, 2508-945 (-49)
 - Fax: 7-727-2696-441
 - e-mail: info@ambassador-hotel.com
 - web-site: www.ambassador-hotel.com
- Astana International Hotel
 - Address: Almaty, 113, Baitursynov str.
 - Tel: 7-727-2507-050
 - Fax: 7-727-2501-060, 2501-230
 - e-mail: info@astana-hotel.com
 - web-site: www.astana-hotel.com
- Dostyk Hotel
 - Address: Almaty, 36, Kurmangazy str., (the corner of Kunaev str.)
 - Tel: 7-727-2636-555, 2582-270
 - Fax: 7-727-2636-804
 - Contact person: Madina (client manager)
- Otrar Hotel
 - Address: Almaty, 73, Gogol str.
 - Tel: 7-727-2506-840, 2506-830
 - Fax: 7-727-2732-013, 2506-809

- Tien-Shan Hotel
 - Address: Almaty, 151, Kunaev str.
 - Tel: 7-727-2919-160
 - Fax: 7-727-2919-162
- Kazakhstan Hotel
 - Address: Almaty, 52, Dostyk ave. (the corner of Abai ave.)
 - Tel: 7-727-2919-541, 2919-101
 - Fax: 7-727-2507-809, 2507-811
 - e-mail: hotel_kazakhstan@nets.kz
 - web-site: www.hotel-kazakhstan.kz
- “ATAKENT” Business Center
 - Address: Almaty, 42, Timiryazev str.
 - Tel: 7-727-2749-721, 2748-370
 - Fax: 7-727-2746-723
- Hoveart
 - Address: Almaty, 30 Dektyareva str.
 - Tel: 7-727-2793-983, 792-074, 383-291
 - Fax: 7-727-2464-000
 - e-mail: hoveart@hanmail.net
- Alma-Arasan
 - Address: Almaty, Alma-Arasan, 1
 - Tel: 7-727-2691-671~4
 - Fax: 7-727-2691-677
 - H.P. 7-701-111-3567
- 한우리 (Guest House)
 - Address: Almaty, 250-a, Gagarina str.
 - Tel: 7-727-2783-442
 - Fax: 7-727-2498-190
 - e-mail: hanurialmaty@hotmail.com
 - Contact person: 박석화
- Koreana 호텔
 - Address: Almaty, Baitursynov-Satpayev str.
 - Tel: 7-727-2503-192
 - Fax: 7-727-2503-192
 - H.P: 7-701-555-2114
 - e-mail: ala-tingcabell@hanmail.net

□ 알마티 주요 식당

1) KAZAKH

- Jeruyek (national, oriental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500, Seifullin str. (the corner of Karasai Batyr str.)
 - Tel: 7-727-2721-240, 2676-127
 - Tel. for delivery: 7-727-2676-126
 - (around a clock)
- Dastarkhan (national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75, Shevchenko str. (the corner of Nauryzbai Batyr str.)
 - Tel: 7-727-2695-427, 2691-317, 2691-417
 - e-mail: dastarkan@nursat.kz
 - around a clock
- Daniyar (world kitchen)
 - Address: Almaty, 26, Timiryazev str.(the corner of Baitursynov str.)
 - Tel: 7-727-2922-332
 - Tel/fax: 7-727-2927-416
 - Around a clock
- Nurbol (oriental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131, Jibek-Joli str. (the corner of Sefullin str.)
 - Tel: 7-727-2390-262, 2390-264
- Otrar (Kazakh, European and Indian kitchen)
 - Address: Almaty, 73, Gogol str. (the corner of Kunaev str.)
 - Tel: 7-727-2506-815, 2506-855
 - Web-site: <http://www.group.kz>

2) CHINESE

- Great Wall
 - Address: Almaty, 101, Raimbek ave. (the corner of Kunaev str.)
 - Tel: 7-727-2390-904
 - Tel/fax: 7-727-2390-894
- Jibek-Joly
 - Address: Almaty, 55, Abylai-Khan str. ("Jetysu" hotel) the corner of Alimanov str.)
 - Tel: 7-727-2500-422, 2500-447
- The golden waterfall (European, Oriental and Chinese kitchen)
 - Address: Almaty, 128, Bogenbai Batyr str., (the corner of Furmanov str.)
 - Tel: 7-727-2692-980

- Beijing (Chinese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52, Zenkov str. (the corner of Bogenbai Batyr str.)
 - Tel: 7-727-2543-110, 2912-171, 2911-202, 2911-112, 2911-283, 2911-293, 2911-317
 - Fax: 7-727-2914-963
 - e-mail: publisher@escort.kz
 - web-site: <http://www.escort.kz//beijing>
- Tyan-Loon
 - Address: Almaty, 107, Furmanov str. (the corner of Kazybaev str.)
 - Tel/fax: 7-727-2624-861
 - e-mail: teanlont@astel.kz
- Lotus (Chinese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8/29, Gogol str., the corner of Batibaev str.
 - Tel: 7-727-2919-462
 - Fax: 7-727-2919-464
- International Business Club
 - Address: 86, Gogol str., (the corner of Nauryzbai Batyr str.)
 - Tel: 7-727-2322-701
 - Tel/fax: 7-727-2322-893
- 투란툏
 - Address: Almaty, Abay-Rozybakiyev str.
 - Tel: 7-727-2500-399
 - H.P: 7-700-453-2035

3) Caucasus

- Pirosmani (Georgian kitchen)
 - Address: Almaty, 32, Abylai Khan str. (the corner of Mametov str.)
 - Tel/fax: 7-727-2399-715
- Suliko (Georgian kitchen)
 - Address: Almaty, 16, Kyz-Jibek str (Kok-Tube-2 settlement)
 - Tel: 7-727-2640-934

4) Japanese

- Osaka
 - Address: Almaty, 52, Dostyk ave., (the corner of Kurmangazy str.)
 - Tel: 7-727-2919-924, 2919-485 (office)
 - Tel/fax: 7-727-2919-892
- Sushi Planet
 - Address: Almaty, Dostyk ave. 43 (below Kalinin str.)
 - Tel: 7-727-2952-543

5) European

- Brno (Czech restaurants)
 - Address: Almaty, 64, Jibek-Joly str. the corner of Valikhanov str.
 - Tel: 7-727-2739-017, 2734-788
 - Tel/Fax: 7-727-2735-390
- Banquet hall “Metropol” (European, national and Chinese kitchen)
 - Address: Almaty, 139, Makataev str., the corner of Kojamkulov str.
 - Tel: 7-727-2391-216
 - Tel/fax: 7-727-2322-222
 - Around a clock
- Greece tavern (Greece kitchen)
 - Address: Almaty, 22-a, Marechek str. (the corner of Altynsaryn str.)
 - Tel: 7-727-2765-644
 - Tel/fax: 7-727-2762-715
- Dostyk (European and national kitchen)
 - Address: Almaty, 36, Kurmangazy str. (the corner of Kunaev str.)
 - Tel: 7-727-2582-270
 - Tel/fax: 7-727-2724-765
 - e-mail: dostyk@nursat.kz, bcdostyk@nursat.kz
 - web-site: <http://www.dostyk.kz>
- David’s star (Jewish, national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42, Furmanov str. (the corner of Mametova str.)
 - Tel: 7-727-2733-815
 - Tel/fax: 7-727-2503-536
- Golden ring (traditional Russian kitchen)
 - Address: Almaty, “Kalkaman” settlement, 4, “Zhaily” microdistrict
 - Tel: 7-727-2504-107, 2504-108
 - Tel/fax: 7-727-2504-106
- Prussia
 - Address: 95, Rozybakiev str. (the corner of Satpaev str.)
 - Tel: 7-727-2460-558
 - Tel/fax: 7-727-2509-331
- Romanian Court Yard
 - Address: Almaty, 135-a, Abylai-Khan str. (the corner of Kurmangazy str.)
 - Tel/fax: 7-727-2980-081
 - e-mail: dediu@petrom.almaty.kz

- Old Tavern
 - Address: Almaty, 127, Rozybakiev str. (the corner of Timiryazev str.)
 - Tel: 7-727-2445-890
 - Remarks: restaurant, billiard, sauna
- Swabian House
 - Address: Almaty, 121, Abylai-Khan ave. (the corner of Kabanbai Batyr str.)
 - Tel: 7-727-2630-515
- The Hermitage (French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43, Kurmangazy str. (the corner of Furmanov str.)
 - Tel: 7-727-2507-513
 - Tel/fax: 7-727-2501-205
- Govinda's (vegetarian restaurant)
 - Address: Almaty, 39, Abylai-Khan str., the corner of Mametova str.
 - Tel: 7-727-2710-836
 - Tel/fax: 7-727-2713-235
 - e-mail: govindas@2000.kz
- Old England (English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134, Bogenbai Batyr str. (the corner of Abylai-Khan str.)
 - Tel: 7-727-2695-104
 - Tel/fax: 7-727-2627-538
 - e-mail: oldengland@mail.kz
 - web-site: <http://www.oldengland.escort.kz>
- Pen-Club (national and European kitchen)
 - Address: Almaty, 40, Baiseitova str. The corner of Republic Square.
 - Tel: 7-727-2634-921
 - Tel/fax: 7-727-2634-840
- Saint-George (Mexican kitchen)
 - Address: Almaty, 64, Panfilov str. (the corner of Makataev str.)
 - Tel: 7-727-2731-042, 2731-068
 - e-mail: saint_george@nursat.kz
- SOHO (intercontinental kitchen)
 - Address: 65, Kezybek bi str. (the corner of Furmanov str.)
 - Tel: 7-727-2696-615, 2622-374
 - Tel/fax: 7-727-2626-983
 - e-mail: soho@online.ru
- Tomiris
 - Address: 48, Dostyk ave, the corner of Shevchenko str.
 - Tel: 7-727-2916-807, 2916-255
 - Tel/fax: 7-727-2910-631

- Tropicana(exotic kitchen)
 - Address: Almaty, 9. Shevchenko str. (the corner of Baitursynov str.)
 - Tel: 7-727-2937-253
 - Fax: 7-727-2920-797
 - Remarks: the most fashionable restaurant, evening show-program, alive music, night disco, shocking light and sound.

5) TURKEY

- Orient
 - Address: Almaty, 67, Mametova str. (the corner of Seifullin str)
 - Tel: 7-727-2394-520, 2399-672
- Dusseldorf (European, Asian and Turkish kitchen)
 - Address: 42, Timiryazev str., the corner of Manas str. (Business Center "Atakent")
 - Tel: 7-727-2447-863

6) ITALIAN

- Bellagio
 - Address: Almaty, 480020, 197, Gornaya str.(on the way to "Medeo", the last bus stop of the bus No.29)
 - Tel: 7-727-2502-500 (restaurant), 2502-611, 2502-902 (multichannel)
 - e-mail: belagio@yandex.ru
 - Remarks: Italian kitchen, Italian chief the cook, coffee, disco (open air); musicians; VIP
- Borgo Antico
 - Address: Almaty, 6/11, Iskenderov str. (the corner of Zharkentskaya str.)
 - Tel: 7-727-2935-151
 - Tel/fax: 7-727-2716-868
 - Remarks: the classical Italian restaurant

7) 한국 식당

- 신라
 - Address: Almaty, Furmanova
 - Tel: 7-727-2926-394
- 예향
 - Address: Almaty, Temiryazeva Markova Str.
 - Tel: 7-727-2608-381
- 청기와
 - Address: Almaty, Furmanova Gogolya
 - Tel: 7-727-2736-167

- 로템
 - Address: Almaty, Ablaihana 69
 - Tel: 7-727-2734-308
 - 알마티에서 가장 오래된 한식당
- 미소
 - Address: Almaty, Alfaraby-Furnanova
 - Tel: 7-727-2954-853
- 대장금
 - Address: Almaty, Auezova-Kirova
 - Tel: 7-727-2775-172
- 코리아나
 - Address: Almaty, Masanch-Abaya
 - Tel: 7-727-2606-504
- 한국가든
 - Address: Almaty, Isennalieva 21b
 - Tel: 7-727-2991-147
 - 구 '진짜루' 식당

□ 아스타나 주요 호텔

- Intercontinental
 - 주소: 아바야, 113번지
 - 전화: 7-7172-391001, 391050
- Altyn-dala
 - 주소: 베젤디노브, 6번지
 - 전화: 7-7172-323311, 327749

□ 아스타나 주요 식당

- Venecia
 - 주소: 쫘 건물안
 - 전화: 7-7172-753832, 753906
- Ak-Bulak
 - 주소: 아블라이 한, 17번지
 - 전화: 7-7172-355309
 -
- Altyn Aidarkhan
 - 주소: 레스뽀블리키, 15/2번지
 - 전화: 7-7172-216647, 216594

- Europa Palace
 - 주소: 아바야, 29번지
 - 전화: 7-7172-328890, 327256
- Praha
 - 주소: 알라타우 마이크로라이온, 10번지
 - 전화: 7-7172-373135, 373102
- Farkhi
 - 주소: 부케이한, 3번지
 - 전화: 7-7172-321899

자. 관공서 관행

1) 관공서 관행

카자흐스탄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사회주의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서비스라는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어느 관공서를 막론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의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독립된 이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카자흐어를 필수로 하여 공무원의 대부분이 카자흐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고객에게 전화 안내 서비스를 카자흐어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카자흐어로 된 서류 형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유용한 노어, 카작어 표현

- 안녕하세요!
- 노어: 즈드라스뜨부(V)이쎄!
- 카자흐어: 아쌈람 말레이꿈!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노어: 까크 바(V)쓰 자부(V)트?
- 카자흐어: 세닌 아툼 쿤?
-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노어: 스킴까 밤(V) 레트?
- 카자흐어: 시즈 니쎄데 불(B)라시즈?
- 가격이 얼마입니까?
- 노어: 스킴까 스토이트?
- 카자흐어: 칸차 두라트?
- 감사합니다!
- 노어: 스파씨바!
- 카자흐어: 라흐멧!

- 천만에요.
 - 노어: 빠찰스따.
 - 카자흐어: 작씩. (카작어에는 You are welcome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없음)
- 좋아(O.K.)?
 - 노어: 하라쇼?
 - 카자흐어: 작씩?
- 별로 좋지 않습니다.
 - 노어: 별로하.
 - 카자흐어: 좌만.
-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노어: 야 류블류 바(v)쓰!
 - 카자흐어: 멘 세닌 수엠!
- 안녕히 계십시오(혹은 가십시오, 헤어질때 표현)!
 - 노어: 다 스비다니야!
 - 카자흐어: 사우볼!
- 도와주세요!
 - 노어: 빠마기제!
 - 카자흐어: 코메께스!

차.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새해(노브이 고드)	1월 1~3일	경우에 따라서는 앞, 뒤의 일요일을 일하게 하고 일주일간 휴일로 쉬기도 한다.
여성의 날	3월 8일	이 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꽃과 선물을 한다.
나우리즈	3월22~3일	카자흐민족의 설날. 춘분을 새해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하나가 되는 날 (젠 이진스트바)	5월 1일	예전 '노동절'로 지키던 명절인데, 독립 후 '국민 대화합의 날'로 지키고 있다.
승전기념일 (젠빠베드이)	5월 9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하던 독일을 격퇴한 것을 기념하는 날
아스타나 천도 기념일	6월 10일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긴 것을 기념하는 날 (아스타나만 휴일)
제헌절(젠 간스뚜찌야)	8월 30일	헌법을 만들어 공화국의 기초를 놓은 날
공화국의 날 (젠 레스뿌브리끼)	10월 25일	공화국 성립의 날
독립기념일	12월 16일	구소련에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

카. 여행 시 유의사항

1) 주의 사항

- 물은 다량의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시 생수를 사먹거나 꼭 끓여 마셔야 한다.
- 치안은 좋은 편이나 야간에 홀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 공항, 호텔, 유흥업소, 재래시장 및 터미널 근처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개인소지품에 주의해야 한다.
- 알마티 및 카자흐스탄 지역은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알마티 지역은 호텔 및 기타 큰 식당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음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 여권 관리

- 외출 시 여권은 항상 지참하여야 하며 항상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해서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복사본은 항상 구비하여야 한다.

3) 공항 이용 시 유의 사항

- 공항근처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기본 20~50\$ 정도의 비교적 많은 금액을 요구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알마티 및 아스타나 전체 카자흐스탄의 치안상태가 비교적 좋은 상태이며 특별히 비해야 하는 지역은 없다.
- 현지에서 팁 제도가 발달되지 않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팁을 주면 무척 좋아한다.
- 특별한 문화적 금지사항이 없지만 현지에서 악수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자끼리는 처음 만날 경우 또는 소개 받을 경우에 무조건 악수하는 것은 관례로 하고 있다.

다. 유용한 연락처

- 알마티에 소재하는 한국기관 및 단체
 -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7-727-263-2660, 263-2691
 - 한인회: 7-727-265-6250
 - 한국교육원: 7-727-246-8719
 - KOTRA: 7-727-311-0284, 0285, KOICA: 7-727-253-2098
 - 한카 병원: 7-727-253-6429
 - 상사협의회: 7-777-247-2839
 - 선교사 협의회(김현두 목사): 7-777-247-2839
 - 원불교: 7-727-387-2689
 - 천주교: 7-727-241-4628
- 콜택시: 7-727-2058, 2056, 246-6866, 230-8311, 246-6866
- 시외버스 터미널
 - Sairan: 7-727-276-2644, 276-2777
 - Sayakhat: 7-727-230-0832, 230-1401

-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 주소: 5-503, Al-Farabi Ave, Business-centre 'Nurly-Tay', Almaty
 - 전화 및 팩스: 7-327-277-7050, 277-7055, 277-7005
 - e-메일: info@cci.kz
 - 웹사이트: www.cci.kz
- 비상연락처
 - 화재 신고: 01
 - 범재 신고: 02
 - 응급차 호출: 03
 - 비상상황 호출: 051
 - 가스 신고: 04
 - 전화 번호 안내: 09 or 088
 - 알마티 공항: 7-327-006
- 알마티 국제공항
 - 안내서비스: 7-727-254-0555
- 기차역
 - Almaty-1: 7-727-296-3392, 236-6844
 - Almaty-2: 7-727-296-5544, 296-5344

파. 기타 유용한 정보

□ 알마티의 주요 쇼핑 센터

- Ramstore
 - 주소: 226, furmanova Str.
 - 전화: 7-727-2587-575, 2587-580 / 팩스: 7-727-2587-568
 - e-메일: ramstore@nursat.kz
- SilkWay
 - 주소: 71, Tole bi Str
 - 전화: 7-727-2677-470 / 팩스: 7-727-2617-500
 - e-메일: sws@swt.kz
- Promenade
 - 주소: 44a, Abai Ave
 - 전화: 7-727-2700-709, 2700-711, 2700-711, 팩스: 7-727-2700-704
- 중앙백화점(쑤)
 - 주소: 62, Ablai Khan Ave
 - 전화: 7-727-2732-951 / 팩스: 7-727-2730_630
 - e-메일: info@zangar.kz

카자흐스탄산 특산물로 마유 (말 젓), 낙타 젓, 양고기, 낙타고기, 말고기 요리, 현지산 양털 카펫, 양털 모자 등으로 볼 수 있다.

하. 관광명소

- 팬트랄느 파크
 - 시인 고르키의 동상이 있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 공원 안쪽에 놀이시설과 보트장이 있고, 동물원이 있다.
- 알마타 큰 호수(카작어-오켄 알마트 켈레, 노어-알마썬 스킨에 발쇼이오제로)
 - 이 곳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호수로 웅장하고 멋있다.
 - 가까운 곳에 천문대가 있으며, 겨울에는 스키와 보드 같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 꼭주베
 - 한국의 남산타워와 비슷한 곳으로 알마타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다. 특히 야경이 매우 아름답다.
 - 카자흐스탄 호텔 건너편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블카도 운행하고 있다.
- 메데오와 침불락
 - 메데오-종합 스케이트장이 있으며 침불락 중간에 위치해있다.
 - 침불락-유럽인이 많이 찾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장이며 초여름까지 질 좋은 설원에서 스키를 비롯한 겨울 레포츠를 지킬 수 있다. 시내에서 15분정도 소요된다.
- 뽀필로브 파르크(28공원)
 - 고골랴 푸쉬키나에 있으며 산책하기에 경치가 좋으며 1912년에 있는 지진에도 거의 원형을 보존했던 정교회 사원과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이 있다.
- 카스티예브 박물관
 - 샷바에바 무스레보프에 위치한 박물관은 카자흐스탄의 미술과 러시아시대의 미술을 관람할 수 있다.
- 두르겐 국립공원
 - 송어 양식장으로 유명하며, 경관이 아주 아름답다. 낚시와 송어회를 즐길수 있으며 알마타에서 간거리 두르겐 폭포가 장관이다.
- 이스쿨
 - 지리상으로는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해있지만 쉽게 다녀올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 아타켄트 공원
 -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여름에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와 식사를 할 수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아스타나 뷰티전(Astana Beauty 2009) ○ 개최시기: 2009 년 9 월 9 일 - 11 일 ○ Perfumes & Cosmetics and associated services, special equipment and beauty-technologies»
	☐ 카자흐스탄 국제가정용품전(HomeStyle Astana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9 월 9 일 - 11 일 ○ 6th Kazakhstan International Specialised Exhibition "Household Appliances, Furniture and Interiors"
	☐ 카자흐스탄 운송전 (Transit-Trans Kazakhstan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9 월 16 일 - 18 일 ○ Kazakhstan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Exhibition
	☐ 중앙아시아 건축기기박람회(KazMet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9 월 16 일 - 18 일 ○ 2nd Central Asian International Metallurgy, Metal-Working and Machinery Construction Exhibition
	☐ 중앙아시아 광업박람회(MiningWorld Central Asia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9 월 16 일 - 18 일 ○ 15th Anniversary Central-Asian International "Mining and Processing of Metals & Minerals" Exhibition
	☐ 중앙아시아 에코테크(EcoTech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9 월 16 일 - 18 일 ○ 5th Anniversary Central Asian International Exhibiton and Conference "EcoTechnologies and EcoServices for Industrial and Municipal Sectors"
	☐ 아스타나 레저박람회(Astana Leisure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10 월 6 일 - 8 일 ○ 6th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Exhibition in Astana
	☐ 망기스타우 오일&가스전(Mangystau Oil & Gas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11 월 3 일 - 5 일 ○ 4th Mangystau Regional Oil&Gas, Infrastructure Exhibition
	☐ 카자흐스탄 국제 포장전(KazUpack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11 월 3 일 - 6 일 ○ 7th Kazakh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Packaging, Tare, Label"
	☐ 중앙아시아 국제식품전(WorldFood Kazakhstan 2009) ○ 개최시기 : 2009 년 11 월 3 일 - 6 일 ○ 12th Central-Asian International "Food Industry" Exhibition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정부기관	
카자흐스탄 공식 홈페이지	www.government.kz
Un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ttp://cci.kz
카자흐스탄 Astana 상공회의소	www.chamber.kz/eng/about.htm
금융투자기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www.nationalbank.kz
카자흐스탄 통계청	www.stat.kz
카자흐스탄 관세청	www.keden.kz
Kazkommertsbank	http://en.kkb.kz
Turanalem	www.turanalem.kz
Nurbank	www.nurbank.kz